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공학석사학위논문

# 조선시대 상류주택과 현대 대형아파트 공간구성의 관계성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pper-Class Dwellings of the Chosun period and the Contemporary Residential Apartments

- Focused on the Transformation from Single Layer to Double Layer Configuration -

2013년 0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도 영

# 조선시대 상류주택과 현대 대형아파트 공간구성의 관계성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pper-Class Dwellings of the Chosun period and the Contemporary Residential Apartments

지도교수 최 재 필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0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 축 학 과
김 도 영

김도영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02월

위 원 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국문초록

# 조선시대 상류주택과 현대 대형아파트 공간구성의 관계성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pper-Class Dwellings of the Chosun period and the Contemporary Residential Apartments

지도교수 최 재 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도 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근대화에 따른 전통과의 단절과 그것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족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변천해오고 있는 각 시대 주거의 전형과 그 변화양상을 정성적 방법과 함께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변화양상과 그 관계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주거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건축분야에서는 전통가옥의 경우 대부분 지역별 시대별 연구로써 주로 사상적·외형적·의장적 분석에 치우치거나 혹은 당시의 생활상에 기반한 문화인류학적 측면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주거는 사회적 산물로서 당시의 생활을 담고 있으며, 건축적 공간구조와 당시 사용자들의 생활상을 별도로 연구되어서는 안되며 좀 더 체계적·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시대별 전형의 상류 주거공간인 조선시대 상류주택과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로 한정한다. 각각의 사례는 시대를 대표하는 상류주거공간으로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외형 등의 커다란 물리적 변화가 있었지만, 주거공간의 특성상 당시의 상류주거라는 변하지 않은 공통속성 하에 공간구조의 변화 배경 및 양상과 그 관계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대상인 조선시대 상류주거의 경우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의 시기는 전통주거가 가장 성숙되는 기간이다. 이 시기에 발달된 富農住居는 이른바

“겹집化”된 가옥구조 특성을 보인다. 종전의 조선중기를 거쳐 상류주거를 대표해 온 홑집평면(Single layers) 중심으로 ‘채 나눔’을 통해 생활공간을 구축했던 가옥구조의 형식과 대비해 조선시대 近代初期 全南地方의 주거의 경우 한옥의 건조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농업에 기반하여 부를 축적한 계층의 주거가 늘어난 배경으로 겹집化(Double layers)화 되어가는 변이과정을 보인다. 이를 통해 보여지는 다양한 변화요소에 주목해 이러한 현상을 정성적인 방법인 사회, 문화적 시대적 배경과 정량적인 방법인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통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조선시대 近代初期 全南地方 부농주거의 **‘겹집化’** 현상과 대응하는 현대 주거공간의 사례로는 현대 대표 주거공간으로 자리잡은 2000년대 이후 완공된 주상복합 아파트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1960년대 도입과 함께 급속도로 자리 잡은 아파트는 1964년에 지어진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1980년대의 양적인 팽창을 기반해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국제주의 성격의 서구 양식의 아파트는 각 건물이 가지는 개성보다는 경제성과 기능이 우선시 되어 획일성을 띠게 되었으며, 문화적인 맥락과 고유성을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양상 속에 전통주택이 근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파트라는 서양의 주택형식으로 빠르게 전이된 현상은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현상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연구한 선례가 있다. 선례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는 주거형식이 그토록 보편화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면서 전통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각 공간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계적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바로 전통주택에서 현대주택으로의 변화를 행동방식의 공간적 구조의 개념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 주거공간의 연결고리와 변치 않는 유전인자를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한 연구의 확장 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시기 아파트의 도입은 1980년대 전형적인 평면 형태인 3침실형 3LDK(Single layers)이 대형화되면서 4,5침실형인 4LDK평면, 5LDK평면 형식의 평면으로 경제적인 우위에 있는 상류층의 공간 요구를 반영하여 ‘대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출현하면서 이러한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형의 전형적인 계획방식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고, 이러한 배경에서 출현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전의 4LDK평면, 5LDK 형식에서 보였던 대형화 양상(Single layer)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게 되며 고급화를 추구하는 주거공간으로 구성되고 있다. 최근 완공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대형화된 평면 속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3침실형 평면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부속공간, 즉 파우더룸, 드레스룸, 개인서재, 가족실 등의 공간이 첨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평면은 종전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의 특징인 거실을 중심으로 방-주방이 둘러싸는 전형적인 특성(Single layers)을 보이는 평면구조에서 다양한 부속공간이 둘러싸는 'Layer'가 첨가된 평면구성 형식(Double layers)을 보인다.

다시 말해, 본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와 현대의 상류층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특성 및 전이과정(Single layers에서 Double layers로의)의 각 시대별 특징 및 관계성을 규명하였다. 조선시대의 경우 近代初期 전남지방 富農住居 사례에서 나타난 겹집化(Double layers)과정을 분석해본 결과 공간구조상 성공적인 요구공간의 '내부化'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주거공간의 변화, 즉 겹집化 현상으로 인해 발생된 사용자의 동선 및 Life-style의 변화양상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또한 현대의 아파트 도입과 함께 상류주거 공간으로 등장한 4,5LDK 형식의 대형평면 판상형 아파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Double layers)로의 전이과정의 경우에서도 다양한 부속공간의 탄생, 그 배경 및 기능, 사용자의 Life-style 변화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용자의 생활패턴 및 각 공간기능의 변화양상을 분석과 각 시대별 사례의 관계성을 통하여 대칭구조로 살펴보았다.

**또 한가지 주목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조선시대 근대초기 겹집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실分化를 통한 '부속공간 증대'(Double layer)현상이 현대 아파트 도입(Single layer)과 함께 사라졌다가 주상복합 아파트(Double layer)의 등장과 함께 재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주거양식의 도입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는 공간요구와 형태의 진화로 보여지는 공통속성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시대는 다르지만 전형적인 주거공간의 유의한 물리적 변화양상의 관계성을 재조명 해봄으로서 시대를 초월한 우리주거의 유전인자를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보았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조선시대 상류주거, 홑집, 겹집, 주상복합 아파트, 공간구문론**

**학 번 : 2011-20578**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1.2.1. 연구의 절차 ····· 7

1.2.2. 사례선정 ····· 9

1.2.3. 연구개념 및 LAYER의 정의 ····· 16

1.2.4. 용어의 정의 ····· 17

제 2 장 공간구조의 사회성 이론 및 연구방법론 고찰 ····· 19

2.1. 공간구문론의 이론적 고찰 ····· 20

2.1.1. 공간구문론 ····· 20

2.1.2. 분석지표 및 도구 ····· 21

2.2. 사례분석을 위한 볼록공간(Convex Space) ····· 24

2.2.1. 공간의 정의 ····· 24

2.2.2. 사례 분석을 위한 볼록공간 기준 ····· 24

2.3. 선행연구 고찰 ····· 28

제 3 장 조선시대 상류주거와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공간 ····· 30

3.1. 조선시대 상류주거의 공간특성 ····· 31

3.1.1. 홑집(Single Layer)과 겹집(Double Layer)구성 ····· 31

3.1.2. 조선시대 近代初期 全南地方 富農住居 ····· 37

3.2. 현대 대형아파트 주거 공간특성 ····· 42

3.2.1. 판상형 아파트(Single Layer)와 주상복합 아파트(Double Layer) ····· 42

3.3. 각 상류주거 공간의 일반적 공간특성 비교 ····· 52

3.3.1. 형태적 전이과정 연구 ····· 53

3.3.2. 관계성 ····· 55

3.3.3. 소결 ····· 57

제 4 장 조선시대 상류주거와 현대 대형아파트 주거공간의 변화 양상 연구 ····· 60
4.1. 평면형태(공간구성) 변화 ····· 61
4.1.1. 조선시대 상류주거 공간구성 변화 ····· 61
4.1.2.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공간의 공간구성 변화 ····· 68
4.1.3. 전이과정에 따른 각 시대별 사례의 중심공간의 변화 ····· 81
4.2. “부속공간 증대“ 현상 ····· 83
4.2.1. 조선시대 상류주거의 부속공간 증대 현상 연구(안채) ····· 83
4.2.2.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공간의 부속공간 증대현상 연구 ····· 87
4.3. 실내공간 內영역의 기능적 분리 ····· 89
4.3.1. 조선시대 상류주거(안채) 內 영역의 기능적 분리 ····· 89
4.3.2.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영역별 기능적 분리 ····· 94
4.4. 평면형태의 전이과정 이후의 발생되는 Family-Life 변화 ····· 98
4.4.1. 겹집化 현상에 따른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Family-Life 변화 ····· 98
4.4.2. 전이과정에 따른 현대 대형아파트 주거공간의 Family-Life 변화 ····· 102
4.5. 소결 ····· 104

제 5 장 결 론 ····· 106
5.1. 연구의 종합 ····· 107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09

참고문헌

부록

# 표 차례

[표 1-1] Layer의 개념 ····· 6
[표 1-2] 연구 흐름도 ····· 7
[표 1-3] 조선시대 상류주거 사례 선정 ····· 11
[표 1-4] 지역별, 시기별 평면 샘플 개수 ····· 11
[표 1-5]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 사례 선정 ····· 13
[표 1-6] 1980년대 전후 판상형 아파트의 대형화(Single layer) ····· 14
[표 1-7] 각 공간 영역에 대한 정의 ····· 18
[표 2-1] 공간구문론의 통합도 산출과정 및 통제도 ····· 23
[표 2-2] '대청공간'의 도면표현이 상이한 경우 분석도면의 정리 ····· 25
[표 2-3] 조선시대 상류주택 분석을 위한 Convex Space의 기준 ····· 25
[표 2-4] 공간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전통과 현대의 연결고리를 연구 사례 ····· 28
[표 3-1] 홑집에서 겹집으로의 형태적 전이과정 ····· 36
[표 3-2] 시기의 구분 ····· 42
[표 3-3] 1980년대까지 가장 많이 준공된 판상형 아파트 평면 ····· 44
[표 3-4] "주상복합 아파트"의 용어 정의 ····· 46
[표 3-5] 관련법규 요약 ····· 46
[표 3-6] 서울시 주상복합 아파트 분포 현황 ····· 47
[표 3-7] 중요민속자료를 대상으로 한 안채의 겹집化 현상조사 ····· 53
[표 4-1] 홑집과 겹집의 영역별 통합도 분석 값 및 분석 값의 T-Test ····· 64
[표 4-2] 통합도 순위 변화 ····· 66
[표 4-3] 판상형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침실의 개수의 관계성 지표 ····· 69
[표 4-4] 판상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축계획적 측면 비교 ····· 71
[표 4-5]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일반사항 비교 ····· 73
[표 4-6] 판상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거실의 위상변화 ····· 74
[표 4-7] 판상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방 식당공간의 분리현상 ····· 75
[표 4-8] 판상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부부공간의 변화 ····· 76
[표 4-9] 판상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욕실개수 변화 ····· 77
[표 4-10] 현대 대형아파트 통합도 분석 결과 ····· 78
[표 4-11] 통합도 순위 변화 ····· 80
[표 4-12] 조선시대 상류주거 통제도 분석 결과 ····· 86
[표 4-13] 현대 대형아파트의 공간 정의 및 부속공간 분류 ····· 87

[표 4-14] 현대 대형아파트 통제도 분석 결과 ····· 88
[표 4-15] 채 내의 영역의 기능적 분리과정 분석 ····· 90

# 그림 차례

[그림 1-1] 조선시대 상류주거와 현대 대형아파트 주거공간 ····· 3
[그림 1-2] 近代初期 전남지방 부농주거 사례분포 ····· 12
[그림 1-3] 서울시내 주상복합 완공 사례 및 선정사례의 분포 ····· 15
[그림 1-4] 연구 개념도 ····· 16
[그림 1-5] 홑집과 겹집의 형태 ····· 17
[그림 2-1] 보성 이금재 가옥의 Convex Space 작도 例 ····· 26
[그림 2-2]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 분석을 위한 Convex Space의 기준 ····· 27
[그림 3-1] '채나눔'을 통한 공간구성 ····· 32
[그림 3-2] '채나눔'을 통한 공간구성 사례 ····· 33
[그림 3-3] 지역에 따른 홑집과 겹집 분포 ····· 35
[그림 3-4] 조선시대 근대초기 전남지방 부농주거 겹집가옥 사례분포 ····· 37
[그림 3-5] 나주 홍기창 가옥 안채 전경 ····· 40
[그림 3-6] 나주 홍기창 가옥 안채내 정지공간의 分化 현상 ····· 40
[그림 3-7] 홑집과 겹집의 안채공간 구성 비교 ····· 41
[그림 3-8] 조선시대 近代初期 전남지방 나주 홍기응 가옥 ····· 41
[그림 3-9] 현대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 ····· 44
[그림 3-10] 현대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 통합도 분석 ····· 45
[그림 3-11] 2000년 이후 서울시 150㎡ 이상 아파트 준공 단지 사례 수 ···· 47
[그림 3-12] 2000년 이후 서울시 150㎡ 이상 판상형 및 주상복합(타워형) 대형 아파트 준공사례 ····· 48
[그림 3-13] 주상복합 아파트의 例 ····· 48
[그림 3-14] 주상복합 아파트 통합도 분석 ····· 49
[그림 3-15] 판상형 주상복합 아파트 사례 ····· 50
[그림 3-16] 겹집化 과정 사례 예시 ····· 54
[그림 3-17] 판상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 ····· 55
[그림 3-18] 다양한 부속공간의 탄생 ····· 56
[그림 3-19]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형태적 전이과정에 따른 변화 ····· 57
[그림 3-20] 현대 대형아파트의 형태적 전이과정에 따른 변화 ····· 59
[그림 4-1] 조선시대 상류주거 평면형태의 전이과정과 그 원인 ····· 62
[그림 4-2] 조선시대 상류주거 평면형태의 전이과정(겹집化) ····· 62
[그림 4-3] 조선시대 상류주거의 전이과정에 따른 채별 통합도 변화 추이 ····· 65

[그림 4-4] 조선시대 상류주거의 전이과정에 따른 채별 통합도 변화 추이(그룹간) 66
[그림 4-5] 전이과정에 따른 안채와 사랑채의 위상변화 ····· 67
[그림 4-6] 현대 대형아파트의 전이과정 ····· 68
[그림 4-7] 판상형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침실의 개수의 관계성(Graph) ····· 69
[그림 4-8]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공간의 탄생 ····· 71
[그림 4-9] 서울시내 주상복합 아파트 준공 건수(2002년 ~ 2010년) ····· 72
[그림 4-10] 현대 대형아파트의 전이과정에 따른 영역별 통합도 변화 추이 ····· 79
[그림 4-11] 현대 대형아파트의 각 영역별 통합도 변화 추이 ····· 80
[그림 4-12] 각 시대별 주거공간의 전이과정 요약 ····· 82
[그림 4-13] 나주 홍기창 가옥의 안채 구성과 통합도 분석 ····· 84
[그림 4-14] 조선시대 근대초기 전남지방 부농주거의 “부속공간 증대” 현상 · 85
[그림 4-15] 채 내의 영역의 기능적 분리과정 분석 1(안방기준) ····· 91
[그림 4-16] 채 내의 영역의 기능적 분리과정 분석 2(건넌방 기준) ····· 92
[그림 4-17] 채 내의 영역의 기능적 분리 ····· 93
[그림 4-18] 주상복합 아파트의 실내공간 영역의 기능적 분리 ····· 94
[그림 4-19] 삼성동 홍실 아파트 Point Depth 분석 ····· 95
[그림 4-20] 더 샵 센텀스타 평면 기준 공간별 Point Depth 분석 ····· 96
[그림 4-21] 홑집에서 겹집으로의 전이과정에 따른 VERAM값 변화 ····· 98
[그림 4-22] 보성 이금재 가옥 배치 평면도 ····· 99
[그림 4-23] 보성 이금재 가옥 남・여・공・사적인 영역의 기능적 분리 ···· 100
[그림 4-24] 보성 이금재 가옥 안채 정면, 배면, 우・좌 측면 사진 ····· 101
[그림 4-25] 판상형 아파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로 전이과정에 따른 VERAM값 변화 ····· 102
[그림 4-26] 주상복합 아파트에서의 영역의 기능적 분리 ····· 103

#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주거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 강점기간 동안의 역사적 맥락의 단절과 6·25전쟁을 거치며, 기존의 환경이 바뀌고 그 후 급박하게 전개되는 우리건축의 서구화 내지는 국제주의化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를 토대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목조건축의 전통은 막을 내리고 콘크리트의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잡으며 1962년 마포 아파트의 등장과 함께 아파트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거사의 획기적 변화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외형과 물리적 환경 등이 변화하면서 우리내 전통건축의 전통성과 고유성, 맥락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공간의 속성상 그 시대의 주거공간은 그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이러한 주거공간과 사회와의 관계적 속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가 다른 두 주거공간 간의 관계적 속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근대화에 따른 전통과의 단절과 그것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족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변천해오고 있는 각 시대, 즉 조선시대 상류주거와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의 각 주거공간의 특징과 시대에 따른 형태적 전이과정을 겪으며 보여지는 여러 가지 변화요소를 밝혀보기 위해 정성적 방법과 함께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그 관계성을 찾아보았다.

전통주택이 근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파트라는 서양의 주택형식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현상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연구한 선례가 있다.[1] 이들 연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는 주거형식이 그토록 보편화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면서 전통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각 공간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계적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한계점은 바로 시대를 초월한 주거의 공통적 속성과 그 관계성을 밝히려는 노력이 미비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문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전통주택에서 현대주택으로의 변화를 행동방식의 공간적 구조의 개념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는 것이

1) 최재필, “한국 현대 사회의 주생활양식의 변화: 수도권 3LDK 아파트 주호 평면 계획의 변천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95호, 1996b
최재필, “공간구문론을 사용한 국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시계열적 분석: 수도권 4LDK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93호, 1996a

다.[2] 또한 이진경(1998)의 논문 '서구의 근대적 주거공간에 관한 공간사회학적 연구'는 서양의 근대적 주거의 발생과정을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서술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사례도 있다.[3]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거의 평면 형태를 연구함에 있어 공간의 구조와 그 당시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과의 관련성을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통계적인 방법과 함께 서술적인 방법으로 설명한다. 또한 각각의 시대별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전통과 현대주거공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연구의 확장을 의도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맥락과 의미해석에 대한 연구의 확장으로 우리나라의 시대별 상류층 주거공간인 조선시대 상류주택과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 두 주거공간의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각각의 공간에서 보이는 공간구성 원리의 관계성을 규명하고 두 주거공간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 나주 홍기헌 가옥(1929) | 용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2012) |
|---|---|
| | |

[그림 1-1] 조선시대 상류주거와 현대 대형아파트 주거공간

연구의 본격적인 진행을 위해 시대가 다른 두 주거공간의 전형인 사례를 분석해 공간구성 원리의 관계성을 찾기 위한 중심요소로 크게 두 가지를 주목했다.

조선시대의 경우 初期近代 전남지방 富農住居의 경우 신분제가 계급제로 변하고 새로운 사상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부의 축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었던 부농계층은 보다 먼저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그들의 새로운 의식과 생활방식을 주거에 적용하였다. 이 시기에 일어난 변용의 양상과 그 특징을 살펴보면 조선중기에 상류주택의 경우, 유교사상에 기반하여 가옥구성 원리의

2) 최재필, "우리나라 근대 주거의 변화", 주거론, 대한건축학회편, 1996

3) 이진경, 서구의 근대적 주거공간에 관한 공간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규범역할을 했던 **홑집평면(Single layers)** 중심의 '채 나눔'을 통해 생활공간을 구축했던 가옥구조의 형식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 近代初期에 들어서 한옥의 건조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농업에 기반하여 부를 축적한 계층의 주거가 늘어난 배경으로 **'겹집化(Double layers)化'** 되어가는 전이과정을 겪었다.[4] 현대로 넘어와 아파트의 본격적인 도입기를 필두로 발전해온 주거공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대형평면 아파트 주거공간의 경우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되었던 1970년대 거실을 중심으로 방이 둘러싸는 공간구조 속성을 유지하는 L-D-K 평면형태가 유지되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상류층의 대형평면 공간요구에 따라 등장한 거실중심의 **4LDK, 5LDK 형식의 평면(Single layers)**이 등장하였다.[5] 하지만 2000년대 주상복합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비슷한 평형대 사례의 주거공간에서는 다양한 부속공간이 생겨나고, 평면구성의 커다란 변화가 수반된 이른바 L-D-K의 단순한 Layer차원의 공간구성에서 **Layer가 추가된 평면 형태(Double layers)로의 전이과정**을 보인다. 즉 경제적 우위에 있는 계층이 거주한 대형평면 아파트 주거공간을 기준으로 아파트 도입기에 보여졌던 단순 L-D-K평면 형태의 대형평면 판상형 아파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전이과정의 공통적 속성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 初期近代 전남지방 富農住居의 '겹집化 ' 현상과 함께 안채 내의 실구획 및 공간분화 과정에서 보이는 **'부속공간 증대 현상'**과,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생겨나는 기존 거실중심의 L-D-K 평면구성에서 새로 등장하게 되는 드레스룸(Dress-room), 파우더룸(Powder-room), 패밀리룸(Family-room) 등의 **'부속공간 증대 현상'**의 관계성을 연구하였다.

조선시대 근대초기의 경우 도시화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온 연구에 반해, 이 시기 전남지방 부농주거의 경우 당대의 대지의 압박감, 상업과의 연계, 가로에 면한 입면 등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현재의 주거문제를 설명하는데 연원을 갖기 때문에 이 시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대부분 도시형 한옥과 외국에서 유입된

4) 겹집에 대해서는 문헌마다 정의 및 분류가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김홍식의 「한국의 민가」에서 제시된 겹집의 정의를 따른다. 그는 저서에서 집의 간살이가 두 줄로만 시설되고 기둥은 세줄로만 들어가는 집을 양통집이라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집의 간살이가 부분적으로만 두줄로 시설되고, 기둥이 세줄 또는 네 줄로 들어가는 집을 겹집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5) 본고에서는 LDK 평면 구성의 경우 L(Living), D(Dining), K(Kichen)을 설명한다.

새로운 형식의 주거에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도시주택만큼 현저한 변화의 과정을 보이지 않고 이제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농촌주택에 대한 건축사적 연구는 소홀하였다.[6)]

그러나 상대적으로 변화의 과정이 느리지만 농촌의 주거 또한 이시기의 시대상을 반영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모되었다. 특히 신분제가 계급제로 변화하고 새로운 사상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부의 축적으로 생활의 여유가 있었던 부농계층은 보다 먼저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그들의 새로운 의식과 생활방식을 주거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시대 근대초기 가옥의 폭 방향의 증가와 함께 겹집化의 전이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전이과정은 주생활의 전체의 성격을 바꾸었으며, 주거史에서 변화의 진원이 되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시간이 흘러 1960년대 아파트 도입과 함께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이과정을 거치며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과 함께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형태적 변화의 전이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Layer의 개념[표 1-1]을 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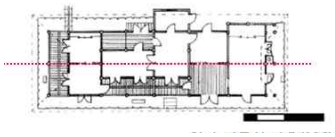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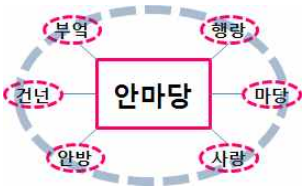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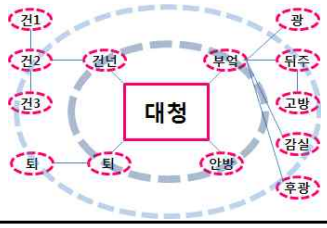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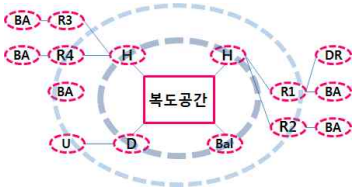
조선시대 상류주거의 경우 중기에 홑집을 기반으로 안마당 중심, 채나눔을 통한 가옥구성이 그 시대의 규범이었다. 이러한 기옥구성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행랑채, 사랑채, 문간채 안채가 둘러싸는 '채나눔' 기법이 적용된 형태 즉, Single Layer 형태의 가옥구성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조선후기 근대초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겹집化된 가옥의 경우 개별 '채'가 폭 방향으로 넓어진 물리적 조건을 기반하여 실내공간인 대청공간을 중심으로 안방공간, 정지공간, 대청공간, 건넌방공간 등 다양한 공간영역과 실 구획을 통한 그 부속공간들로 가옥구성이 이루어 진다. 이러한 가옥구성을 채內의 'Layer가 추가'된 Double Layer 형태의 가옥구성이라고 정의한다. 시간이 흘러 현대 아파트 도입기로 넘어오면 도입 초기 평면구성 방식의 시대적 규범이었던 L-D-K 평면형태를 기반으로 경제적 우위에 있던 상류층의 공간요구로 등장한 대형평면 주거공간에서 나타난 4,5 L-D-K 구성의 아파트의 경우 거실을 중심으로 방들이 둘러싸고 있는 단순한 구성을 Single Layer 형태의 가옥구성이라고 정의하고,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대형평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거실이 중심공간이 아닌 각 실들로의 출입을 위한 복도공간이 중심공간 역할을 하게 되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패밀리룸, 다용도실 등 다양한 부속공간들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Double Layer 형태의 가옥구성이라 정의한다.

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촌주택을 조선시대 근대초기 전남지방 겹집화 특성을 보이는 부농주거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Layer'의 개념**을 토대로 조선시대 상류주거와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 주거공간 평면 형태의 전이과정 및 관계성 연구를 통하여 시간에 흐름에 따른 각 시기 주거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그 관계적 속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가 다른 상류쥬거의 평면형태의 전이과정**의 연구와 그 **공통적인 속성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적 속성을 토대로 시대는 다르지만 각각의 시대의 상류주거의 특징과 평면형태의 전이과정, 그 관계성을 재조명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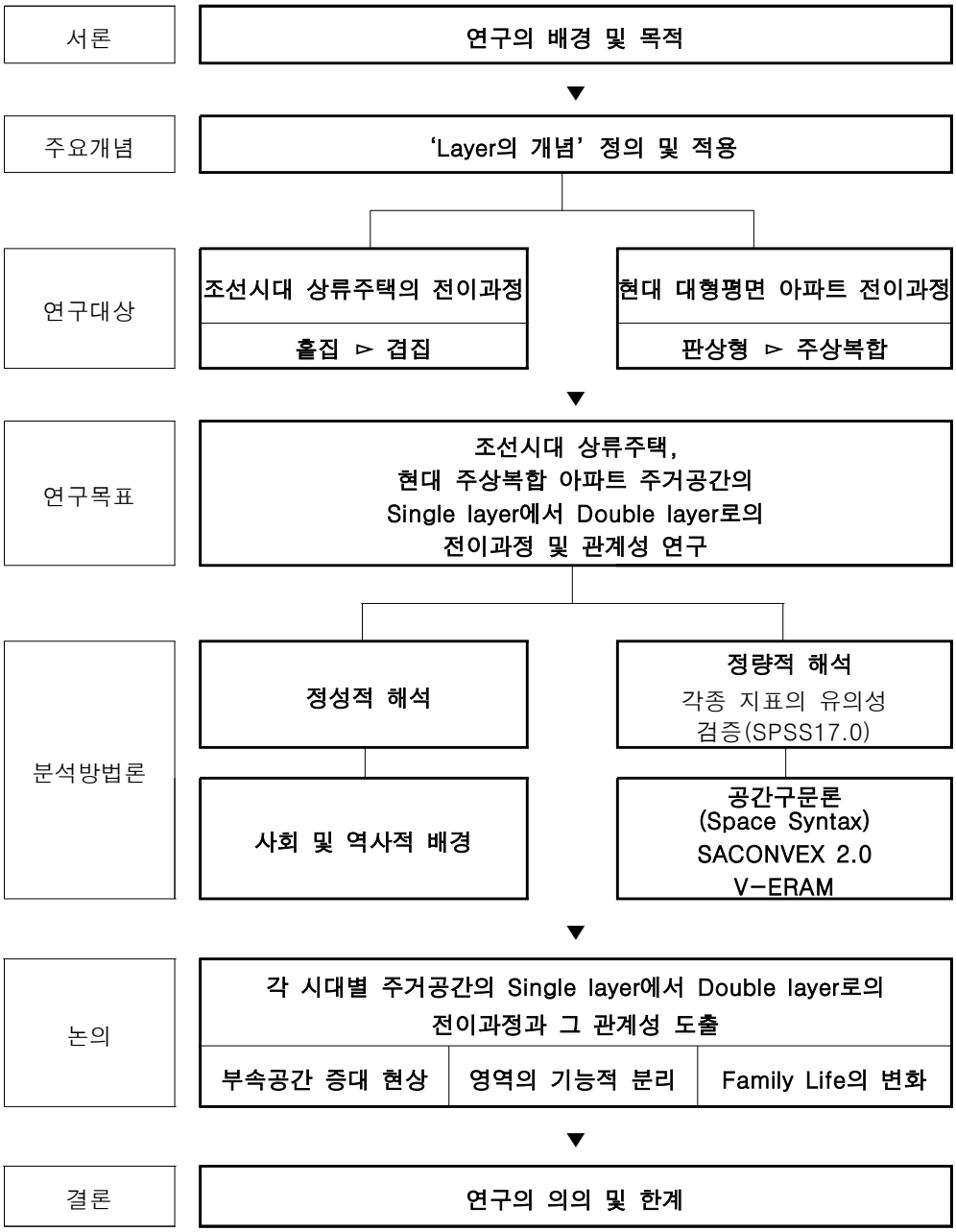
[표 1-1] Layer의 개념

| 구분 | | Single layer | Double layer |
|---|---|---|---|
| 조선시대 | 사례 | |  |
| | | 안동 하동고택(17C) | 영광 이규헌 가옥 안채(19C) |
| | Layer |  |  |
| 현대 | 사례 | | |
| | | 압구정동 한양 2차(1978) | Posco The Star park(2008) |
| | Layer | |  |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2.1. 연구의 절차

[표 1-2] 연구 흐름도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서술로써 조선시대 근대초기 전남지방 부농주거,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 주거공간과 관련한 문화, 사회적 배경과 연구에 대한 목적에 대해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공간을 형태로서가 아닌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에 의한 산물로 보게 되는 공간사회학 및 연구방법론, 즉 정량적 분석의 방법인 공간구문론(Space Syntax)에 대해 고찰한다. 공간구문론은 인간의 행태 및 공간구조의 속성을 밝혀내 분석하는 방법임을 설명하고 그 분석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며 조선시대 상류주택과 현대 대형평면 주거공간 사례의 공간분석에 적용할 때의 방법 및 한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각 시대별 상류 주거공간 사례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주거공간 형태의 전이과정(Single layer에서 Double layer로의)과 그에 따라 변화하는 사용자의 Family-Life, 실내공간의 동선조절을 통한 영역분리, 각 공간의 위계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전술한 연구의 목적의 당위성을 검증한다.

결론에서는 각 시대별 상류주거 공간의 형태적 전이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요소와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의 전이과정과 그 관계적 속성에 대해 서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각 시대를 대표하는 상류주거의 형태의 전이과정과 관계성에 대한 결론과 연구의 한계를 제언한다.

### 1.2.2. 사례선정

전술한바와 같이 조선시대 근대초기 전남지방의 부농주거 가옥사례의 경우 조선중기를 걸쳐 상류주거를 대표해온 '홑집', 즉 홑집평면(Single layers)중심으로 '채나눔'을 통해 생활공간을 구축했던 가옥구조의 형식이 한옥의 건조 및 관개기술 발달을 바탕으로 농업에 기반해 부를 축적한 신흥 상류층의 탄생을 배경으로 그 가옥의 형태가 점차 '**겹집化(Double layers)'化** 되어가는 전이과정을 겪게 된다.[7] 전봉희(1996)는 겹집화 현상의 진전은 우선 실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함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상부가구의 보 방향으로의 확대 및 하부구조와의 접속, 후면 방에 있어서의 환기 및 채광 등의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겹집化' 현상은 평면형태의 전이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홑집중심 가옥구성에서 겹집중심 가옥구성으로의 전이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연구에 적합한 사례선정에 대해 고민해본 결과, 조선시대 중기의 경우 유교문화가 주생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고, 홑집을 기반하여 '채나눔' 기법을 통해 구성된 상류주거 가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 시대상이 가장 잘 반영된 안동지방의 양동지역 상류주거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사례 선정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 전남지방의 사례로 통일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선행연구 등 여러 문헌에서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홑집구성으로 영역확장을 통해 상류주거 가옥을 구성했던 조선시대 중기까지 대상지역인 전남지방은 관개기술의 부재와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해 홍수피해에 대한 잦은 범람과 자연재해로 인해 상류주거가 발달하기 힘든 지역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조선중기 상류주거 가운데 전남지역에서 좋은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고, 연구 대상으로 적합한 가옥의 부재로 인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중기의 홑집중심의 상류가옥 구성사례는 안동지방의 양동지역 상류주거로 한정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近代初期 전남지방에서 발견되는 겹집 부농주거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채의 폭방향 확장이 눈에 띄게 진행되면서 안살림중심의 안채중심 가옥으로 변모해간다. 따라서 후기 사례에서 보이는 부농주거의 경우 비대해진 안채내 건넌방이 종전 '채나눔' 통해 구성되었던 '사랑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등 주거 내 다양한 수행기능을 흡수한다. 이러한 맥락을 반영해 조선시대 근대초기 전남지방의 겹집 부농주거 분석에 경우 전기에 발견되는 사례가옥들은

7) 본 연구에서 '겹집化'에 대한 의미는 보방향의 본격적인 실 분화를 의미한다.

가옥전체를, 후기에 발견된 가옥들은 안채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현대의 대표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은 아파트는 1964년에 지어진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197·80년대의 양적인 팽창을 기반해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양적 질적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1970년대 후반 전형적인 아파트 평면인 3침실형 3LDK(Single layers) 평면이 당시 아파트의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고 경제적 우위에 있는 계층의 요구가 반영되어 대형화된 사례가 등장한다.[8] 이렇듯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던 상류층의 요구를 반영한 대형평면 즉, 4·5침실형 평면형태인 4LDK평면, 5LDK 평면이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평면구성의 대형화 현상은 물리적 내부공간의 공간 확장과 방의 개수의 증가 외의 거실중심·방이 둘러싸고 있는 L-D-K 평면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새롭게 출현하고, 아파트 평면형의 계획방식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된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대부분 3침실형 평면을 기본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부속공간, 즉 파우더룸, 드레스룸, 개인서재, 가족실 등의 공간이 생겨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며, 기존 거실 중심의 평면(Single layer)에서 부속공간이 둘러싸는 평면구성 형식(Double layer)으로 형태적 전이과정을 겪게 된다. 따라서 분석대상 사례는 조선시대의 경우 중기에 홑집구성을 기반으로 '채나눔'이 활발했던 안동지역 상류주택10가구를, 18C후반~19세기 초반의 겹집화 현상이 잘 드러나는 전남지방 近代初期 富農住居 22가구를 선정하였다. 현대의 경우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에 완공된 서울 도심부의 판상형 대형L-D-K평면의 아파트와 2000년대 이후 서울시내에 완공된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정하였다.[9] 선정한 사례의 대상이 된 평면자료 조선시대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발행한 "중요민속자료 기록화보고서" 제13호, 37호와 "한국의 주거민속지", "한국의 건축문화재(전남편)등을 참고하였다. 현대 대형아파트 사례는 각 사례의 건설화사 홈페이지, 네이버 부동산(http://land.naver.com), 세진기획에서 발행한 「아파트 백과」를 참고하였다.[10]

8) 최재필, 조형규, 박인수, 박영섭 (2004). 국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6), pp. 155~164

9) 현대의 경우 상류주거라는 공통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150m²~180m²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의 공통적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례는 강남구, 서초구, 반포구 등으로 선정하였다.

10)「아파트 백과」강남편, 세진기획, 2006

[표 1-3] 조선시대 상류주거 사례 선정

| 안동문화권 상류주거(중기) | | 전남지방 부농주거(후기) | | | |
|---|---|---|---|---|---|
| 홑집가옥(Single layer) | | 겹집가옥(Double layer) | | | |
| | | 가옥전체분석 | | 안채중심 분석 | |
| 가옥명 | 연대 | 가옥명 | 연대 | 가옥명 | 연대 |
| 관가정 | 1529 | 나주 홍기용 | 1892년 | 나주 홍기창 | 1918년 |
| 낙선당 | 1540 | 나주 홍기헌 | 1929년 | 담양 고재선 | 1915년 |
| 향단 | 1553 | 장흥 위계환 | 1937년 | 무안 나상열 | 19C말 |
| 쌍벽당 | 1566 | 보성 이금재 | 1900년 | 무안 박봉기 | 1920년 |
| 양진당 | 1600 | 보성 이범재 | 1918년 | 보성 문형식 | 1900년 |
| 충효당 | 1660 | 보성 이식래 | 1891년 | 보성 이용욱 | 19C말 |
| 율리종택 | 1630 | 보성 이용욱 | 19C말 | 보성 이종선 | 1908년 |
| 계서당 | 17C전반 | 영암 최성호 | 19C말 | 영광 이규헌 | 19C말 |
| 유일재고택 | 18C 후반 | 장흥 위성룡 | 1946년 | 장흥 위성룡 | 1946년 |
| | | 해남 윤탁 | 1908년 | 장흥 위성탁 | 1918년 |
| | | 화순 양동호 | 1938년 | | |
| | | 화순 양승수 | 1934년 | | |

[표 1-4] 지역별, 시기별 평면 샘플 개수

| 지역 | 방수 | 1800년대 중반 | 1800년대 후반 | 1900년대 초반 |
|---|---|---|---|---|
| 장흥 | 채나눔 | | 20 | 15 |
| | 안채통합 | | 3 | 15 |
| 보성 | 채나눔 | 10 | 11 | 14 |
| | 안채통합 | 4 | 10 | 16 |
| 무안 | 채나눔 | 10 | 14 | 17 |
| | 안채통합 | 6 | 17 | 14 |
| 나주 | 채나눔 | 10 | 18 | 16 |
| | 안채통합 | 6 | 15 | 13 |
| 합계 | 22 | | | |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기는 이미 신분제가 의미를 잃고 계급제로 이행되었다고 보고 그 기반이 농업이라는 의미에서 부농으로 칭한다. 갑오경장(1894) 이후 공식적으로도 신분제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부농주거란 용어는 '부유한 농촌의 주거(Wealthy Rural House)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실제로 분석대상 가옥들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기존의 분류에서 이 시기 등장한 계층은 농경지와 분리되어 소작료만 생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농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림 1-2] 近代初期 전남지방 부농주거 사례분포

[표 1-5]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 사례 선정

| 19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 강남구 일대 완공된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 | | | 2000년대 서울 도심부 일대 완공된 주상복합 아파트 | | |
|---|---|---|---|---|---|
| 판상형 아파트(Single layer) | | | 주상복합 아파트(Double layer) | | |
| 아파트 명 | 완공 | 전용면적 | 아파트 명 | 완공 | 전용면적 |
| 압구정동 구현대7차 | 1978 | 151.20㎡ | 도곡동 대림 아크로빌 | 1999 | 172.46㎡ |
| 압구정동 한양2차 | 1978 | 150.41㎡ | 여의도 트럼프월드 | 2002 | 178.5㎡ |
| 역삼동 개나리 4차 | 1979 | 176.86㎡ | 여의도 금호 리첸시아 | 2003 | 164.86㎡ |
| 청담동 삼익 | 1980 | 163.24㎡ | 목동 하이페리온 | 2003 | 154.05㎡ |
| 삼성동 홍실 | 1981 | 162.47㎡ | 삼성동 포스코더샵 | 2003 | 160.28㎡ |
| 대치동 청실 | 1981 | 151.91㎡ | 삼성동 아이파크 | 2004 | 156.85㎡ |
| 압구정동 성수현대 | 1981 | 163.67㎡ | 서초 아크로비스타 | 2004 | 149.84㎡ |
| 압구정동 한양7차 | 1981 | 151.55㎡ | 도곡동 아카데미 스위트 | 2004 | 164.87㎡ |
| 청담동 현대1차 | 1982 | 159.08㎡ | 도곡동 타워펠리스 | 2004 | 156.86㎡ |
| 반포 삼호가든 | 1982 | 179.01㎡ | 잠실 갤러리아펠리스 | 2005 | 164.30㎡ |
| 도곡동 삼익 | 1983 | 153.71㎡ | 여의도 롯데캐슬아이비 | 2005 | 150.80㎡ |
| 삼성동 상아3차 | 1983 | 160.41㎡ | 여의도 더샵시티 | 2007 | 163.50㎡ |
| 대치동 선경2차 | 1983 | 174.00㎡ | 용산 시티파크 | 2007 | 177.52㎡ |
| 개포동 경남 | 1984 | 179.20㎡ | 여의도 자이 | 2008 | 163.64㎡ |
| 개포동 현대 | 1984 | 177.19㎡ | 용산 파크타워 | 2009 | 149.92㎡ |
| 도곡동 우성 | 1985 | 152.74㎡ | 플래티넘 남산 | 2010 | 158.97㎡ |
| 압구정동 미성2차 | 1986 | 155.37㎡ | 용산 센트레빌아스테리움 | 2012 | 156.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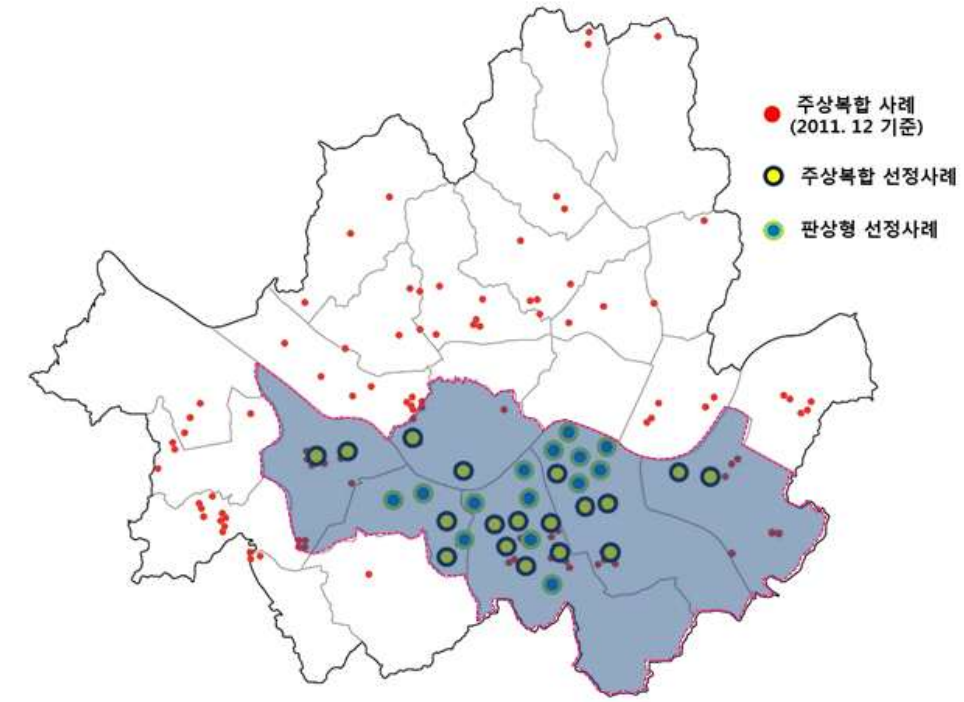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 주거공간의 경우 1970년대 후반 양적인 팽창을 앞세워 상류층의 공간요구에 따라 L-D-K 공간구조를 유지한 채 3LDK형태에서 4,5LDK 형태의 평면으로 대형화되어간다. 이 시기 변화과정의 특징은 공간의 대형화와 함께 공간구조 구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러한 특징은 평면의 대형화에 따라 방의 개수는 늘어나지만 거실을 중심으로 방이 둘러싸고 있는 L-D-K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속성(Single layer)은 아래의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 1980년대 전후 판상형 아파트의 대형화(Single layer)

| Single layer / 반포동 삼호가든아파트(1983) | |
|---|---|
| 3LDK 평면(107.24㎡) | 5LDK 평면(179.01㎡)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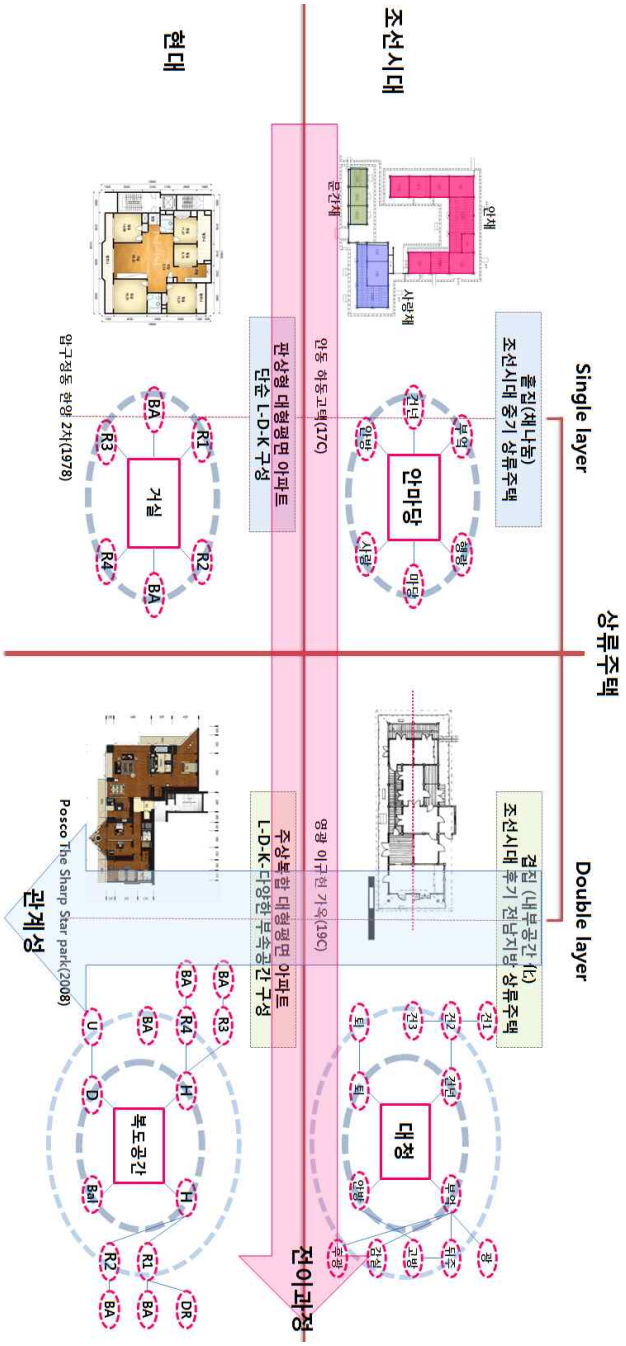
이 시기 해당 연구의 사례에 해당하는 대형평면 아파트는 주로 서울지역 강남일대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당시 아파트 시세보다 크게 우위에 있었고, 해당지역이 개발의 중심부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에 준공된 선정사례가 상류층이 주로 거주하였던 주거공간으로 볼 수 있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미 1970년대 초반에 태동하였던 세운상가 등의 사례가 있지만 이 시기에는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하는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상류층이 본격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 사례의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준공된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례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례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포지역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3] 서울시내 주상복합 완공 및 선정사례의 분포

## 1.2.3. 연구의 개념




[그림 1-4] 연구 개념도

본 연구의 전체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전술한바와 같이 상류주택이라는 상위개념 아래 조선시대와 현대 상류주택의 형태적인 전이과정의 유사성과 조선시대 근대초기 전남지방 부농주거와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공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의 골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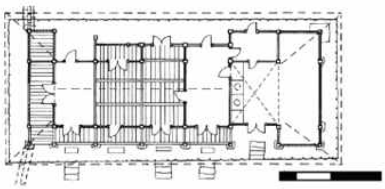
### 1.2.4. 용어의 정의

**⊙ 조선시대 근대초기 부농(상류)주거**

조선시대 近代初期에는 이미 신분제의 의미가 크게 없어진 시기로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겹집으로 지어진 부농주거는 상류주거로 정의했다. 이러한 주거의 형태는 겹집化, 즉 형태적 전이과정을 거치면서 평면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생활 전체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위 사례의 대상가옥을 조선시대 근대초기 당시 상류층이 거주하는 주거라 칭한다.

**⊙ 홑집(Single layer)과 겹집(Double layer)**

전술한 바와 같이 홑집은 마당중심의 채나눔을 통한 가옥구조를 칭한다. 각각의 채는 한줄로 배열 되어있고, 기둥은 두줄로 배열되어있으며 보 방향으로 하나의 실을 가지는 형식을 홑집이다 한다. 겹집의 경우 전후 방향으로 기둥열이 추가로 생겨 이러한 공간을 실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지거나 새로운 구획을 통하여 전후의 실을 모두 본격적인 거주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난 집을 겹집이라 한다.

| 홑집구성 | 겹집(보성 이용우 가옥 평면) |
|---|---|
| |  |



[그림 1-5] 홑집과 겹집의 형태

⊙ 판상형 아파트(Single layer)와 주상복합 아파트(Double layer)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강남구 일대에 준공된 사례를 말하며,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1990년대 후반 같은 지역에 준공된 사례로 한정한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류층이 거주하는 주거의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두 사례 공히 전용면적 150㎡ ~ 180㎡ 사례를 칭한다.

⊙ 공간 영역에 대한 정의

시대가 다른 주거유형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각 공간별 영역의 구분이 필요했다. 먼저 본연구에서 도입한 'Layer의 개념'에서 Single Layer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홑집'구성 상류주거의 경우 안마당, 사랑채 등의 영역과 현대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의 경우 거실, 거실발코니 등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영역의 경우 '공적영역'으로 정의 했다. 조선시대 近代初期 전남지방 부농주거에서 좌우퇴공간 및 부엌영역 등과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의 식당, 주방, 가족실 등 단위주호 내에서 가족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반 공적영역'으로 정의했다. 또한 가옥내에서 가장 내밀하고, 독립된 개인전용 공간을 '사적영역'으로 정의했다. 이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7] 각 공간 영역에 대한 정의

| | | 공적영역 | 반 공적영역 | 사적영역 |
|---|---|---|---|---|
| 정의 | | 단위주호 내 가족 구성원과 방문객 모두가 사용하게 되는 공적, 사회적 영역 | 단위주호 내 공적, 사회적 영역 중 가족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공간 | 단위주호 내 휴식, 취침 및 가족 각자의 개인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 독립성과 내밀성이 요구되는 공간 |
| 조선 | 홑집 | 안마당, 사랑채 | 대청, 부엌공간 | 안방, (사당채영역) |
| | 겹집 | 안마당, 대청, 사랑방영역 (+부속공간) | 좌우퇴공간, 부엌영역 (+부속공간) | 안방영역 (+부속공간) |
| 현대 | 판상형 | 거실, 거실발코니 | 부엌, 식당 | 침실, 욕실 |
| | 주상복합 | 거실, 거실발코니, 응접실 | 부엌, 식당, 가족실 | 침실, 욕실, 부속공간 |

# 제 2 장 공간구조의 사회성 이론 및 연구방법론 고찰


2.1. 공간사회학 및 공간구문론의 이론적 고찰

2.2. 조선시대 근대초기 전남지방 부농주거 공간 특성

2.3.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 공간 특성

## 2.1. 공간구문론의 이론적 고찰

### 2.1.1. 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은 1984년 영국 런던대학 건축학부 교수인 빌 힐리어와 줄리엔 핸슨(Bill Hillier & Julienne Hanson)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공간을 정량적적으로 기술하는 분석방법론이다. 그들은 건축물의 공간구조나 도시의 발생적 형태가 어떻게 특정한 형상(Configuration)을 취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건축공간에서의 질서화는 실제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질서화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바로 건물의 본질과 형태에 개입한다고 말한다. 즉, 건축공간의 기능이나 장식적 요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공간 자체 혹은 공간의 배열을 통해 공간적 질서 및 관계를 발견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공간의 배열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생활이 서로 만나고 교차하거나 분리되는 방법론적 이야기다.

공간구문론은 공간의 배치를 노드와 에지의 그래프로 표현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며, 깊이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래프구조에서 위상학적 중심을 지표화하는 분석방법이다. 공간구문론은 그래프 이론에 의해 건축 및 도시공간을 노드(Node)와 에지(Edge)의 그래프로 형상화하고, 그래프에서의 각 노드의 수치를 이론에 따라 정량화 하며 공간의 연결관계에 따른 깊이를 기반으로 연결도(connectivity), 통합도(integration), 통제도(control value), 명료도(intellgibility)등의 지표를 산출하여 공간구조를 분석한다.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분석은 공간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공간구문론은 공간의 기하학적 형태나 속성보다는 위상학적관계성에 대하여 분석하며 공간을 노드로 이동을 에지로 표현함으로서 인간과 공간을 함께 고려함으로서 사회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건축연구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도 가능하게 하였다.

### 2.1.2. 분석지표 및 도구

공간의 정량화를 위한 첫 단계는 건물의 내부를 주목하면서 비롯되었다. 단위 공간들간의 상호간 연결관계는 각 공간 관계의 그래프를 '정간(正間, Justified)'함으로서 공간의 연결과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공

간관계의 재현방법은 관간적 관계의 체계를 매우 분명하게 한다.[11] 이렇듯 분석 대상의 그 평면이 대칭적 혹은 비대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와 분배적 혹은 비분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 다른 건물들과의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12]

하지만 실제 건축공간이라는 것은 불규칙적인 공간의 결합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J-Graph로 나타내기 위해서 힐리어는 볼록공간(Convex Space)로 답을 제시한다.[13] 즉 면적-둘레 비율(area-perimeter ratio)을 가지는 블록공간을 먼저 고르는 식으로 파악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상지 또는 건물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다보면 결정 및 보정할 수 있다고 밝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블록공간을 가급적 최소화 하는것이고, 또한 최대한 잘 조정된(Fine-Tuning map)을 그리는 것이다.[14]

앞서 설명한 공간구문론(Space-Syntax)에서의 통합도(Integration)는 단위 공간에서 다른 단위 공간까지의 연결 관계의 상대적 깊이(depth)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통합도는 특정 공간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깊이를 가지는 공간의 비율을 통해, 기준 공간을 중심으로 '전체적인(global)'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함축한다. 다시 말해 통합도가 높을수록 다른 단위 공간으로의 접근이 쉽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도는 해당 공간 구조의 위계상 중심성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최재필(1996)의 연구를 보면 공동주택의 평면을 분석하였을 때, 거실의 통합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거실이 전체 평면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실은 그 기능상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일상생활을 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등의 사회적 교류가 발생하는 공간이기에 다른 공간에 비해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거실의 통합도가 높게 나온다는 사실은 공간구문론의 분석결과가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통합도의 계산법은 하나의 노드에서 모든 노드에로의 접근 가능한 평균깊이를 구하고, 공간의 규모의 영향을 배제하기위하여 1차로 평균깊이를 보정하여 0에서

11) 공간을 정간(Justified)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공간을 Root로 하여 다음공간으로의 연결과계를 단계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즉 Root 로부터 한 단께 깊이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동일한 층위에 정렬시키고, 두 단계 깊이에 공간들을 그 상위 층에 정렬시키고, 그 이상의 공간들은 그 상위 단계에 차례로 정렬하는 것이다.

12) 앞의 책, p. 14

13) 볼록공간(Convex)은 오목공간(Concave)과 구별된다.

14) 앞의 책, p. 98

1사이의 값인 상대적 공간심도 (Relative Asymmetry)로 변환시킨다. 그러나 이 보정치의 값은 여전히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반적인 값의 분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에 다이아몬드 그래프의 개념을 도입하여 RRA(Real Relative Asymmetry)값을 구하고 표현의 객관성을 위하여 RRA의 역수를 취하여 통합도로 표시한다. 산출과정은 표와 같다.

반면 통제도(Control value)는 각 공간의 연결도(Connectivity)에 의해 구해질 수 있다. 연결도는 자신을 포함하여 몇 개의 다른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이다. 어떤 한 공간의 통제도는 그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의 연결도의 역수값들의 합으로 나타난다. 즉 이웃한 공간이 분배해주는 동선의 비율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통제도는 바로 옆에 이웃한 공간의 수, 다시 말해 동선을 공유하는 공간의 수와 직접 결부된다. 따라서 그것은 기준 공간을 둘러싼 '국지적(local)' 동선분포를 보여준다. 통제도 지표는 통합성과 일정한 상관성을 가지지만, 그것이 내포하는 공간들 간의 관계는 엄연히 다르다. 다시 말해 통합도가 전체적 시스템 안에서 그 공간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라면, 통제도는 동선이 집중되고 분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15)]

15) 앞의 책, p62

[표 2-1] 공간구문론의 통합도 산출과정 및 통제도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0, pp. 59~60 참고 작성)

| 지표이름 | 함수 | 비고 |
|---|---|---|
| 평균깊이<br>(Mean Depth) | $MD(i) = \frac{\sum_{k=1}^{n} d(i,k)}{n-1}$ | 한 기준영역이 다른 모든 영역에 대해 갖는 깊이의 평균 |
| RA<br>(Relative symmetry) | $RA_i = \frac{MD_i - 1}{\frac{n}{2} - 1}$<br>$= \frac{2(MD_i - 1)}{n-2}$ | 평균깊이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표준화 한 것 |
| RRA<br>(Real Relative Asymmetry) | $RRA_i = \frac{RA_i}{D_n}$ | 서로 다른 공간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 RA를 Dn(다이아몬드 그래프의 루트가 되는 노드의 RA값)으로 나눈 것 |
| 통합도<br>(Integration) | $I(i) = \frac{1}{RRA(i)}$ | RRA값이 작을수록 중앙성이 높은 반대되는 의미를 보정하기 위해 RAA를 역수 취한 것 |
| 통제도<br>(Control Value) | 1 / 연결도(Connectivity) | 연결도(Connectivity)값의 역수로써 국지적으로 특정공간에서 인접공간의 통제정도를 나타낸 것 |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통합도가 크다는 것은 전체 공간에서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다른 공간으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을 뜻하며, 통합도가 작다는 것은 전체 공간에서 그 공간이 분리되어 다른 공간들에서 접근이 비교적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제도가 크다는 것은 바로 인접한 공간들과의 동선교류가 활발하여 해당 공간을 지나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제도가 낮다는 것은 인접공간과 동선교류가 적어 해당 공간을 지나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분석도구로써 공간구문론을 기반하여 개발된 SaConvex1.7과 2.0을 사용하였고, 분석지표의 유의함을 증명하기 위해 실시한 통계분석은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SPSS 18.0을 활용하였다.[16)]

## 2.2. 사례분석을 위한 볼록공간(Convex Space)

### 2.2.1. 공간의 정의

공간구문론에서 도시 및 건축공간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으로서 단위공간설정이 필요하다. 도시공간의 연구에서는 가로공간을 축선(Axial line)으로 작성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건축공간과 관련해서는 내부공간의 분포를 볼록공간(Convex sapce)로 작성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볼록공간으로 단위주호의 각 구성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볼록공간은 공간의 단위를 일종의 폐구간으로 닫혀진 공간영역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각 볼록공간은 공간 내의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이 그 공간 외부로 나가지 않는 공간으로서 정의 된다. 혹은 모든 내각이 180도를 넘지 않는 공간으로 정의해도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17]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조선시대 상류주거 공간간과 현대 대형평면 단위주호평면에 대하여 Convex Map 작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 2.2.2. 조선시대 상류주택 분석을 위한 볼록공간 기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간구문론(Space Syntax)를 사용하여 조선시대 상류주택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채'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주거내에서 일어나는 생활의 다양한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 전체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힐리어의 몇 가지 기준 외에 조선시대 상류주택 공간분석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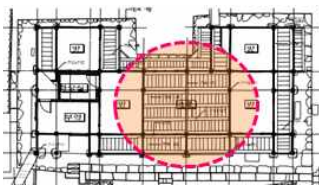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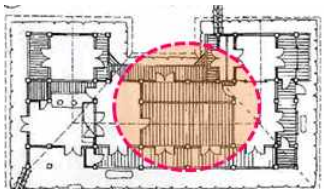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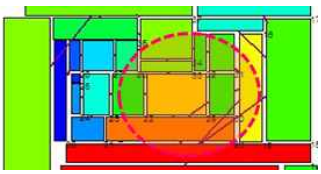
먼저 볼록공간 작도에 있어서 가장 적은 수의 비만한 큰 볼록공간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방과 대청공간 앞의 좁고 긴 툇마루가 있을 경우 바닥이 연속이 되었다 할지라도 각 공간의 영역 구분에 따라 툇마루를 구분한다. 기단의 경우 오르내리는 행태가 가능한 경우 연결공간이라고 규정했다. 외부공간 역시 가장 적은 수의 비만한 가장 큰 볼록공간으로 구분한다. 또한 하나의 볼록공간이 폭 1M 이하인 공

16) SaConvex17은 서울대학교 건축도시공간연구실에서 개발 된 프로그램으로, 볼록공간을 이용한 분석에서 공간구문론의 변수와 ERAM의 변수들을 분석할 수 있다.

17) 최윤경, 사회와 건축공간, 도서출판 시공문화사. 2003 p.19

간은 어떠한 ACTIVITY가 일어나기 힘든 공간으로 판단한다. 추가로 겹집주거 사례 중 대청의 공간영역에 따라 일부사례의 경우 문을 달아 표현한 도면과 표현하지 않는 도면이 발견된 사례가 있어 해당 사례의 경우 도면 참고 사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최신에 발간된 “한국의 전통문화재(천득염, 전봉희)”를 우선순위로 참고하여 분석도면을 작성하였다.

[표 2-2] ‘대청공간’ 의 도면표현이 상이한 경우 분석도면의 정리
(보성 이금재 가옥 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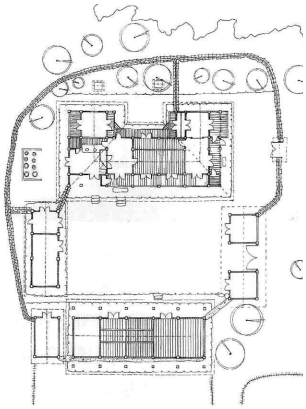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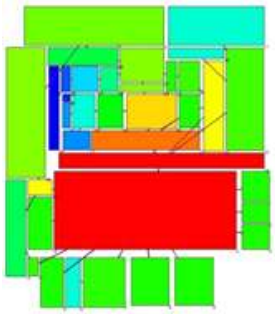
| | | |
|---|---|---|
|  |  |  |
| 기록화보고서, 문화재청 | 한국의 건축문화재, 기문당 | 통합도 분석을 위한 작도 |

앞서 설명한 분석의 기준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3] 조선시대 상류주택 분석을 위한 Convex Space의 기준

| | |
|---|---|
| 외부 공간 | 1. 가장 적은 수의 비만한 큰 볼록공간<br>2. 단위 볼록공간의 최소폭이 1M 이하일 경우 활동이 일어나기 힘든 공간 |
| 내부 공간 | 1. 가장 적은 수의 비만한 큰 볼록공간<br>2. 방과 대청 앞에 연속된 툇마루의 경우 대청과 툇마루 사이에 기둥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을 해준다. 또한 좁고 긴 툇마루의 겨우 그 한쪽 벽면이 불연속적일 경우는 평면이 연속적일지라도 벽면에 따라 구분한다.<br>3. 대청공간의 경우 “한국의 전통문화재” 를 참고하여 공간구분 영역을 참고하여 작도하였다. |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선시대 근대초기 전남지방 부농주거 중 보성 이금재 가옥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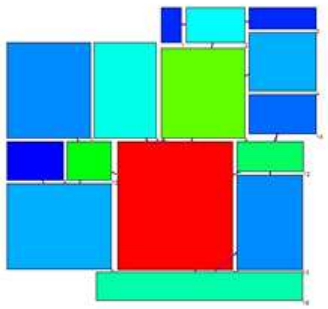
| 보성 이금재 가옥(1900) | | |
|---|---|---|
| 영역<br>구분<br>기준<br>설정 |  |  |

[그림 2-1] 보성 이금재 가옥의 Convex Space 작도 例

### 2.2.3.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 주거공간 분석을 위한 볼록공간 기준

본 연구에서 조선시대 상류주택과 평행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대형평면 아파트 주거공간 분석을 위한 볼록공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역시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볼록공간 작도에 있어서 가장 적은 수의 비만한 큰 볼록공간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상류주거와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전제한다. 또한 거실영역과 같이 단위공간이 크고, 특정한 볼록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 거실을 면하고 있는 발코니를 기준으로 반대편 복도공간의까지 영역을 거실영역의 볼록공간으로 규정했으며, 복도공간의 경우 꺾이는 경우에 따라 볼록공간의 그 단위를 나누었다. 거실 및 침실 등에서 진입이 가능한 발코니, 즉 거실전면 발코니가 연결된 경우 하나의 단위공간으로 보았으며, 외부영역의 경우 계단실 및 홀(hall)공간영역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 압구정도 현대2차 아파트(1981) | | |
|---|---|---|
| 영역 구분 기준 설정 | |  |

[그림 2-2]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 분석을 위한 Convex Space의 기준

## 2.3. 선행연구 고찰

주거는 건축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인류사의 시작과 함께해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건축형식이며, 그에 따라 지리학, 사회학, 건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18)]

공간구문론은 공간의 배치를 다루고 그 속성을 정량적으로 구현하는 기법으로서 이미 많은 주거공간관련 연구들에서 분석의 타당성 및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간구문론은 조선시대 중기의 상류주거 즉, '채나눔'을 통한 공간구성 특성이 보이는 가옥 사례와 현대 판상형 아파트 일부에 국한되어 적용·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주거평면연구에서 유형학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위상학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면적이나 형태, 규모 등 유형학적 측면의 연구나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라 할지라도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각 시대별 분석에만 국한하고 있다. 즉, 각 시대상이 반영된 주 생활 공간구조 파악에 대한 연구는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시대가 다른 시대별 연결고리를 찾고자 했던 노력은 미비했다고 볼 수 있다.

[표 2-4] 공간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전통과 현대주거의 연결고리를 연구 사례

| 연구자 | 연구내용 요약 |
|---|---|
| Hillier & Hanson(1984) | 19세기 후반 지어진 영국주택의 공간배치에서 당시의 주생활양식을 분석하고, 이후 적용 가능한 요소 고찰 |
| Hiller & Hanson, Graham(1987) | 실명이 표시되지 않은 프랑스 농가의 평면만을 가지고 각 공간의 기능 및 주생활 양식을 추출 |
| 최두원(1991) | 한국 주생활의 사회적 진화가 주거형태의 디자인 진화로 이어짐 |
| 최재필 (1987, 1989) | 전래주택에서 아파트로의 한국주택 변이과정 중 한국 고유의 주생활양식이 지켜져 내려옴 |

18) 강영환, "한국 전통민가 연구의 동향과 과정", 대한건축학회지 통권 147호, 1989
해당연구는 주거의 개념을 전통민가로 한정하면서 주거유형의 생성과정 또는 결과로서의 형태적 특성을 분류의 주요관점으로 하여, 민가의 개념을 전문가가 아닌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적 경험에 의해 산출한 것이며, 그 결과 그 사회안에서 보편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건축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전통건축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주거공간을 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선행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전통과 현대 주거공간의 공통속성을 찾고자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 현대 대표 주거공간으로 등장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통과 연결지어 관계성을 논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판단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 및 V-ERAM의 정량적인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각 시대별 상류주거인 조선시대 근대초기 전남지방 부농주거의 등장과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19] 이러한 각 시대별 상류주거의 형태별 전이과정의 유사성과 관계성을 도출하고 사회적, 경제적, 인문적,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을 병행함으로서 한 시기에 국한된 지역이나 시기가 아닌, 일반적 현상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해석을 함에 있어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더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상류주거라는 공통속성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반영되고 주거공간 내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의 생활상 및 상류주거의 형태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19) 최재필 외, Visibility ERAM을 이용한 초대형 복합공간의 동선체계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6
V-ERAM 이론은 공간구조를 가시성 그래프로 재현하며, 결과 지표는 시각적 인접성에 기반하여 이동의 확률분포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ERAM 분석에서처럼 전체(Global) 속성을 보기 위해서는 Visibility ERAM(VERAM)지표를, 국부적(Local) 속성을 보기 위해서는 Visibility ERAM(r)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주거공간 내에서 별어지는 시각적 속성에 따른 동선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VERAM 지표를 활용한다.

# 제 3 장 조선시대 상류주택과 현대 대형아파트 주거공간

3.1. 조선시대 상류주택 공간특성

3.2. 현대 대형평면 주거 공간 특성

3.3. 각 공간의 일반적인 특성 비교

## 3.1.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공간특성

### 3.1.1. 홑집(Single layer)과 겹집(Double layer)

#### (1) 홑집(Single layer)

대들보 아래에 방을 일렬로 배치한 홑집은 외통집이라고도 불리며, 한반도의 서부와 남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한반도의 서남부는 산악이 적고 평야가 많은 지역으로서, 인구가 조밀하고 산림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홑집이 많이 발견된다. 또한, 홑집은 채광과 통풍이 좋기 때문에 한서의 차가 큰 한반도 기후에 적당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홑집은 一(일)자형 집과 ㄱ자형 집으로 구분된다.

一자형 집은 一자형이 기본이나 부속건물이 붙어서 二 (이)자형, ㄴ자형, ㅁ자형 등의 변형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또한 ㄱ자형 집은 ㄴ자형이 기본이며, 여기에 부속사가 붙어 ㄷ자형, ㅁ자형, ㄴㄱ자형 등의 변형이 생겨났다.

홑집의 예를 지방별로 몇 가지를 들어보면, 一자형 집은 부엌, 아랫방, 윗방으로 구성되는데, 평안남도 평야지대와 평안북도 서남쪽 평야지대에 산재한다. 이一자형 집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주거형식이다.

二자형 집은 안채와 바깥채가 나란히 배치된 평면형으로서 쌍채집 이라고도 한다. 건물의 좌우 끝은 담으로 이어지며 앞뒤채의 간살이는 비슷하게 구성되었다. 서울과 개성을 비롯한 중부지역의 ㄱ자형 집은 대청이 있는 반면에, 평안도의 ㄱ자형 집은 부엌이 건물 모퉁이에 배치되며 대체로 대청을 두지 않는다. 또 강원도의 ㄱ자형 집은 몸채 부엌 쪽에 외양간이 꺾이어 달려서 ㄱ자형을 이루는 특징을 보인다.

ㄱ자형의 변형인 ㄷ자형 집에서는 중심공간인 안방과 대청은 건물 중앙부에 배치하고, 부엌, 광, 대문, 아랫방 등의 부속공간은 좌우 날개에 두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집을 말굽집이라고도 부른다. ㄱ자형 집은 ㄱ자형 안채에 ㄴ자형 바깥채가 세워진 집을 말하는데, 이는 살림형편이 나아짐에 따라 바깥채를 마주 세움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채는 안방과 건넌방, 마루, 부엌으로 이루어지며, 바깥채는 대문, 사랑방, 외양간 등으로 구성된다.[20]

20) 홑집과 겹집의 분포, 「전통가옥 구조」, p. 45

-(일)자형 집과 ㄱ자형 집의 변형으로 생겨난 ㅁ자형 집은 시기적으로 제일 늦게 나타난 것으로, 구조적인 면에 있어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ㅁ자형 집을 짓는 경우도 있으나, 살림이 나아지면서 증축을 하여 이어 붙임으로써 ㅁ자형 집이 되는 경우도 있다. ㅁ자형 집은 대개 부농이 사는 경우가 많아 상류주택으로 분류되며, 그 안에서의 생활도 남녀의 출입문을 따로 계획한다든지, 내·외벽을 설치 한다든지 하는 식의 공간사용 주체 별 영역구성을 반영하여 계획하려는 흔적이 보인다.[21]

특히 조선시대 중기 이후 유교사상, 즉 공간사용 주체 별 영역구성이 이루어진 상류주택을 살펴보면 홑집단위의 '채나눔'을 통한 가옥구성이 당시의 일반적인 규범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상류주거는 대부분 방대한 영역확장을 통해 '채나눔'을 활발히 하여 주거공간을 구성함으로서 유교사상을 주거에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전술한 연구 방법을 통해 조선중기의 주생활과 공간구조와의 관계에 따른 상류주택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다.[22] 이처럼 홑집 구성을 통한 '채나눔' 기법은 조선시대 중기 상류주택에서 활발히 보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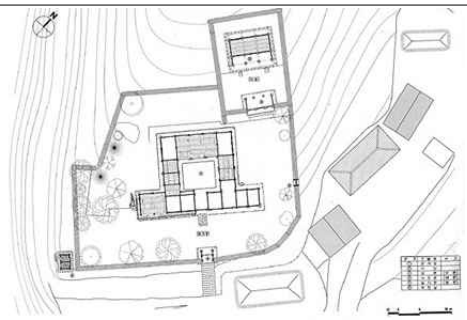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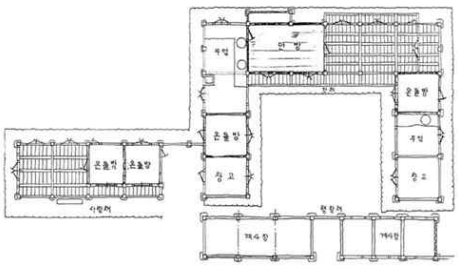
**조선시대 중기 하동고택 배치 및 평면(1836)**

하동고택의 경우 가옥의 진입부의 대문채, 안마당 진입부의 문간채, 사랑채, 내밀한 공간에 안채가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채나눔' 을 통해 공간을 구성한 조선시대 중기 상류주택의 例이다.

[그림 3-1] '채나눔' 을 통한 공간구성

21) 전경희, 남경숙, 한 대실내 공간에서의 전통의장요소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

22) 이상은, 주생활과 공간구조와의 관계에 따른 조선시대 상류주택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위 논문은 조선시대 유교사상이 주생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설명한다.

| 관가정(1529) | 낙선당(1550) |
| --- | --- |
| | |
|  |  |

[그림 3-2] '채나눔' 을 통한 공간구성 사례

앞서 설명한 '채나눔' 기법을 통한 가옥구성의 특성은 선정사례의 모든 가옥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즉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조선시대 중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홑집구성'을 기반으로 '채나눔'기법을 활용해 주거공간의 공간요구를 충족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 실내공간의 확장을 통해 공간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한옥의 건조기술 수준과 상대적으로 대지 사용에 대한 압박이 덜했을 것이라는 동인 추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시기 선정사례는 '홑집구성'(Single layer)가옥구성 원리의 일반적인 특징을 논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아도 무방하다.

### (2) 겹집(Double layer)

겹집은 기둥이 두줄로 배열되고 보방향으로 하나의 실을 가지는 홑집에 반해, 기둥열의 절반 이하의 크기로 기둥이 재배열 되는 형식을 퇴집이라 한다. 더 나아가 후퇴부분이 더 발달하여 퇴공간을 실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지거나 새로운 구획을 통하여 전·후의 실을 모두 본격적인 거주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게 되는 집을 이른바 '**겹집**'이라 한다. 이러한 겹집은 한반도 동북지방인 관북지방, 평안 남북도의 압록강 연안 산지, 강원도 동부의 태백산맥 양쪽 경사면, 그리고 경상북도의 중부지방까지 분포되어 발견되고 있다.

겹집의 발생원인은 크게 두 가지 설로 나뉜다.

첫 번째, 중세초기의 양통집에서 전퇴집, 혹은 전후퇴집을 거쳐 겹집으로 이행하였다는 설이 있다.[23]

두 번째, 북부지방의 집중형 주거문화와 남부지방의 분산형 주거문화의 접촉변용을 통한 변화의 결과로써 생겨난 절충형 주거문화로 보는 설이 있다.[24]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연원 모두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원을 기반으로 조선후기로 갈수록 겹집화 현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해당시기 경제적 규모가 큰 집일수록 겹집화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겹집화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봉희(1996)는 이러한 겹집화 현상의 원인을 공간이용의 효율성에서 찾았다. 즉, 겹집화 현상은 일정공간의 효용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홑집구성에서 보여졌던 '채나눔'이 아니라 채 안에서 실분화를 통해 공간을 획득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인구압, 대지의 압박, 씨족사회, 협업의 중요성 등의 대·내외적 상황이 원인이 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겹집化 현상은 한옥의 건조기술의 발달 및 목재공급의 활성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 전남지방에서는 수준 높은 겹집 부농주거들이 건립되었다.

조선후기에 들어서 겹집구조는 제주도 등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영호남의 남해안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주택형태가 되었다. 제주도 겹집에는 정지, 고광, 구들, 상방(上房) 등이 있다. 평면의 중앙에 상방이 위치하는 것이 특이한데 대개는, 마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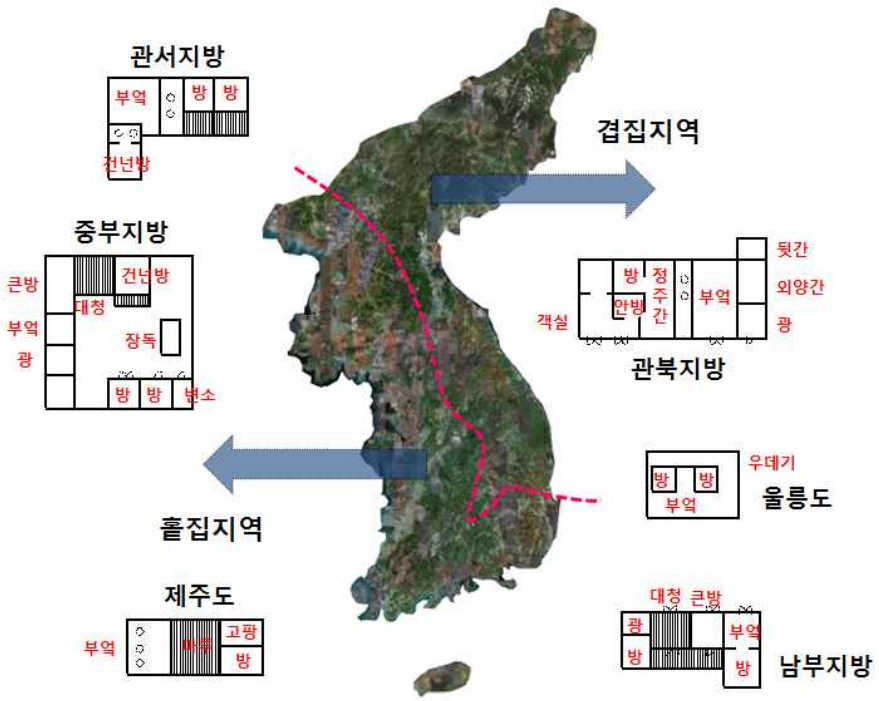
23)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pp.39 ~ 40 참조

24) 전봉희, 「조선시대 주거사에 있어서 겹집화 현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6.10, p.195

되어 있으나 마루를 깔지 않은 경우에는 상방이라고 부른다. 이 상방은 제사, 집회, 여름의 거처, 접객, 식사 등을 하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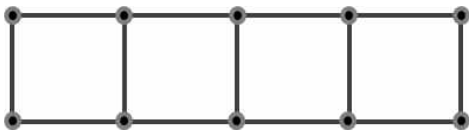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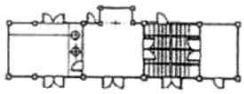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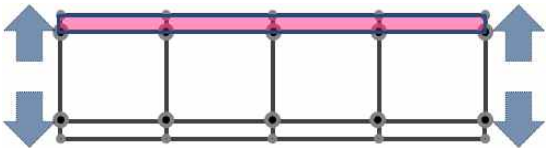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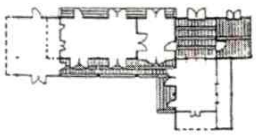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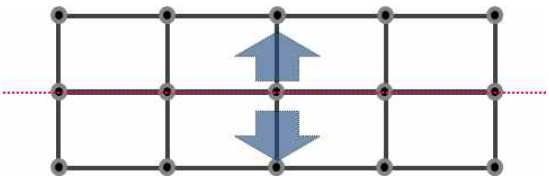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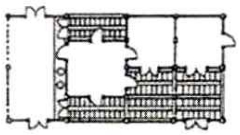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그림3-3]와 같이 겹집은 한반도의 우상측 즉, 겨울이 길고 춥고 건조한 지역에 나타나고, 홑집은 한반도의 좌하측 즉, 겨울이 짧고 덥고 습한 지역에 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술한 내용과 같이 기후 및 지형적 특성에 기인하는 겹집의 등장배경은 연구의 대상인 조선시대 近代初期 전남지방의 일반적인 겹집구조의 등장배경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배경은 다음 소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3-3] 지역에 따른 홑집과 겹집 분포

[표 3-1] 홑집에서 겹집으로의 형태적 전이과정[25)]

| | | |
|---|---|---|
| 홑집 |  |  |
| | 기둥이 두줄로 배열<br>보바향으로 하나의 실 구성 | |
| 퇴집 |  |  |
| | 기둥이 폭방향 절반크기로 다시 배열 | |
| 겹집 |  |  |
| | 후퇴부분이 발달하여 실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지거나<br>새로운 구획을 통하여 전후의 실을 모두 본격적인 거주공간으로<br>사용할 수 있는 공간 탄생 | |

전봉희는「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2012)에서 한옥 형태의 전이과정을 위에 재구성한 [표3-1]과 달리 겹집화 현상 후 발견되는 '두줄백이집'까지 총 네 단계의 형태적 변화과정을 서술한다. '두줄백이집'은 폭방향으로 넓어진 공간이 실이 사용되는 '겹집화'현상에 더해 전·후 공간에 퇴가 달리는 형태의 가옥을 말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Layer의 개념'에서 '홑집(Single Layer)'에서 '겹집(Double Layer)'로의 전이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두줄백이집'은 겹집화 현상에 포함하여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25) 전봉희 권용찬,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도서출판 동녘, 2012, p.125 재구성

### 3.1.2. 조선시대 近代初期 전남지방 富農住居

조선 후기에서 근대에 이르는 주택과 마을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전남지방은 이 시기 주거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대규모의 실측조사로 축적된 방대한 자료들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26] 또한 농업을 기반으로 조선후기 이후 자본을 축적한 부농계층의 수준 높은 주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선시대 상류주거의 사례로서 전남지역 농촌의 부유한 가옥에서 일어난 구조적, 공간적 변화의 양상을 분석하고 변화의 방향을 추적했다.

[그림 3-4] 조선시대 근대초기 전남지방 부농주거 겹집가옥 사례분포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이 지역의 겹집의 등장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근대초기 관개기술의 발달과 자영농 사회의 성숙에 따른 주거내 공간의 증대요구가 지방장인의 성장과 목재공급 등의 기술사적 발전에 힘입어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27]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집, 1985」 의 주거건축 105채를 대상으로 한 **'겹집化 현상'** 조사표를 참고해보면 조선시대 후대로 내려올수록 홑집의 사용빈도가 줄고 퇴집, 겹집의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겹집化 과정'**이라고 하며, 초기근대를 특징짓는 주요지표로서 시대의 흐름에

26) 천득염, 전봉희의 「한국의 전통문화재 전남편」을 통해 광주, 전남지역 건축물의 실측과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정리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지역 건축물의 활발한 연구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27) 전봉희, 「조선시대 주거사에 있어서 겹집화 현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6.10, pp.193~201

따른 주거 형태의 전이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신분제의 변모와 새로운 사상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조류속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지녔던 부농계층은 대개 일가가 마을을 이루는 씨족마을에서 생활하였다. 이 전남지방 거주지의 입지적 특성과 거주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8)]

1. 시대변화에 부응한 일부 계층이 오히려 전보다 경제적인 부를 얻기도 했다. 대개는 수리사업 이후 새로 얻어진 농경지를 확보한 사람들이었으며, 특히 호서 호남의 해안가 가까운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2. 이런 지역에서는 주택들이 전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혈연적으로 연결된 단일집단의 주택건설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생활의 편의나 집의 모양새 갖추기가 유행하였다. 전통적인 양반주택의 규범과는 거리가 먼 새로운 이념의 주택이 지어진 것이다.

3. 농촌에서 성장한 부호 세력은 전통적인 지주계층도 있었고 신흥 소지주 출신들도 있었다. 하지만 양반 혈족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농경지를 소유하며 지역에서 유력한 계층으로 부상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4. 이 시기에 새로 집단거주지를 형성하여 하나의 혈족 마을을 구성한 곳에서는 과거 17, 18세기의 양반 마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양반 마을이 종가의 권위를 절대시하고 문중 사당을 높이 받들어 하나의 뚜렷한 위계 질서를 내세웠던 것과 대조적으로 새로 형성된 혈족 마을에서는 위계질서 보다는 마을 공동의 경제활동 또는 생활의 편의가 중시되고 외부에 대해 마을 전체를 과시하려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5. 혈족간에 뚜렷한 위계질서가 보이지 않아 서로 간에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치장을 한 집들이 군집을 이루며 특별히 영세한 집도 잘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미 제도상으로 노비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19세기에 이르러 더욱 결속력이 강화된 씨족마을에서는 이전의 위계질서나 유교의식보다는 경제적인 요건이 중시된 듯하다. 따라서, 부의 축적이 마을 전체로서 가능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비슷한 규모의 수준 높은 가옥들이 많이 건립될 수 있었다.[29)]

28)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pp.314~318의 내용 요약정리

이처럼 사례의 대상지역인 전남지역에서는 초기근대의 시기동안 주로 농업에 기반을 둔 부호들이 출현하였고, 이들은 신분제에서 계급제로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해 유교적 관습보다는 실생활에 중심을 둔 주거문화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호들의 출현이라 함은 반드시 부의 축적을 통한 신분상승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다. 분석 대상 가옥들의 소유주들은 여러 대에 걸쳐 명문가로서 지역에서 잘 알려진 집안이다. 즉 이 시기를 통해 특히 부의 축적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보이고, 이 때는 이미 전통적인 의식개념과 생활방식이 그 이전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이 새로 건축하는 주거에서 이러한 점들이 많은 부분 반영되었을 것이라 보고, 이러한 요소가 좀 더 잘 주거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에서 '부농(상류)'를 언급하고 용어를 사용했다.[30]

이 시기 전남지역에서 건축된 부농주거는 형태상 '一자집'으로 대표되는데 4칸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주택은 부엌, 큰방, 마루, 건넌방의 배열 순서를 규범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 부농주거는 대개 5칸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5칸 이상의 안채는 다양한 확대 경향의 여러 단계적 모습들을 보인다.[31] 이 시기 사례는 특히 부엌과 마루가 넓어지고, 이렇게 획득한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한다. 겹집化 과정의 결과로 폭 방향의 길이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좌우로 실을 분화하기 보다는 위아래(폭방향)으로 구분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따라서 건넌방은 상·하방으로 바뀌고 부엌 내부에 새로운 실이 구획되며 큰방과 마루 역시 필요에 따라 상하로 구분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 및 경향이 심해지는 이러한 변화과정은 지역적 특성이라기 보다는 初期近代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폭 방향으로의 공간의 확장·분화 과정을 통해 내부공간을 획득해 나아가는 새로운 실구성의 경향을 분석하여, 이 시기의 공간적 요구 및 요구에 대한 해결책의 실마리가 한 채 內의 공간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 이전에 보여졌던 주택과는 다른 새로운 주거공간을 창출하고 있으며, 공간이용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이전의 홑집중심의 공간구성 보다는 좀 더 근대적인 방향으로 공간구성 방식 기법이 전개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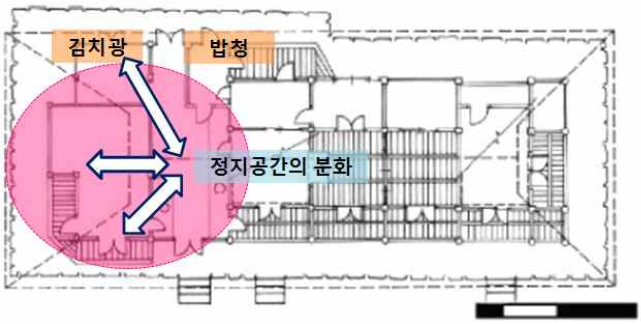
---

29)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p.225~226

30) 본 연구에서 정의한 부농의 자세한 의미는 앞에서 서술했다. (1.2.4. 용어의 정의)

31) 전봉희, 全南 寶成 地域의 凹字形 住居에 관한 硏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8, p.165 요약정리

[그림 3-5] 나주 홍기창 가옥의 안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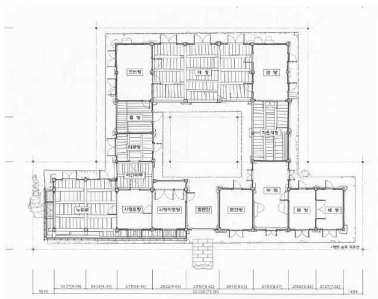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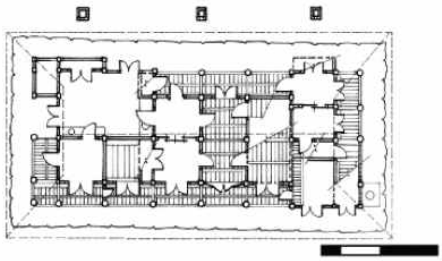



[그림 3-6] 나주 홍기창 가옥 안채내 정지공간의 分化 현상

나주 홍기창 가옥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좌측 정지공간의 확장과 공간의 요구로 나타난 정지방의 등장과 정지(부엌)공간 후면의 김치광, 밥청 등의 부속공간을 두었다. 또한 출입과 노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지공간 측면에 쪽마루를 부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김치광의 존재는 다양한 수장공간이 안채 내부의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획되는 사례로서 특이할 만한 점으로 꼽을 수 있다. 밥청은 원래 일군들의 식사장소를 일컫는 용어이다.[32] 해당 공간은 관련 문헌에서는 부엌에서 가사노동을 배려한 것으로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을 차리는 공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정지공간과 관련된 부속공간들의 탄생은 부엌에서의 가사노동을 배려한 것으로 다양한 주생활이 점차 채 내부로 통합되고 있는 초기근대 **'겹집化 현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이 시기 전남지역에서 발견되

32) 박선희, 「조선시대 반가의 식사·취사생활과 공간사용」, 건축역사연구 제1권 2호 통권2호, 1992

는 사례의 가옥들은 공간적 요구가 증대될 때 채의 후면공간과 폭 방향 확장을 통한 소요공간 획득을 통해 요구공간을 해소해 나아감을 확인 할 수 있다.

| 홑집(관가정,1529) | 겹집(무안 나상열 가옥, 1912) |
|---|---|
|  |  |

[그림 3-7] 홑집과 겹집의 안채공간 구성 비교

| 전경 | 안채진입부 |
|---|---|
| | |

[그림 3-8] 조선시대 근대초기 전남지방 나주 홍기응 가옥

## 3.2. 현대 대형평면 주거 공간 특성

### 3.2.1. L-D-K 평면구성 아파트(Single Layer)

1957년 종암동에 처음 지어진 우리나라 아파트는 1964년에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규모 단지 계획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의 다양한 평면형태가 시도되면서 1980년대의 양적인 팽창을 기반으로 한국의 시장상황과 주거문화에 맞는 평면형을 생산해왔다. 마포아파트 탄생 이래 불과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아파트는 전체 주거에서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1970년의 약 4만 가구에서 2000년 현재 523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33] 이렇듯 아파트 도입과 함께 시기별 평면의 변화과정은 급속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변화 과정에 근거한 평면형태의 변화과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다.[34] 해당 연구에서는 분석에 앞서 아파트 주거공간 분석을 위해 먼저 시기구분을 사회·경제적 이슈와 관련 제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3-2] 시기의 구분[35]

| 구분 | 시기 | 특징 |
|---|---|---|
| 제 1기 | 1966년~1975년 |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
| 제 2기 | 1976년~1985년 | 대규모 인영 아파트 단지<br>아파트 열기(熱氣)가 시작됨 |
| 제 3기 | 1986년~1989년 | 신시가지 개발<br>아파트 현상 설계 |
| 제 4기 | 1990년~1997년 | 신도시 개발<br>주택 200만호 건설 |
| 제 5기 | 1998년~2002년 | IMF 외환위기<br>분양가 자율화, 재건축 활성화 |

본 연구에서는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 사례로써 '제2기'에 준공된 사례로 선정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준공된 사례는 L-D-K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Single layer의 개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33)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전국 총11,051,156호의 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약 47%인 5,231,319호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으로 국한할 경우 약 55%에 이르고 있다.

34) 최재필 외 3명, 「국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분석」, 1996년~2002년의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188호, 2004

35) 위의 같은 논문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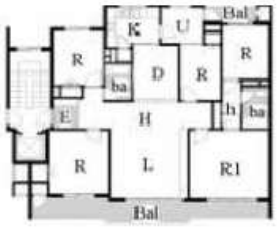
아파트 도입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의 급속도로 아파트가 보급되는 현상과 대비해 서구의 아파트는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오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양식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나, 우리의 아파트는 일반 대중과 괴리되어 있었던 도입 초기 이후 점차로 주택시장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많은 연구자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아파트 확산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부터 소비자 선호·수요에 대한 조사까지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이들 사회·문화·행태·경제적 요인은 상호 복합적으로 얽혀 아파트 확산을 이끌었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주택이 근대화를 겪으면서 아파트라는 서양의 주택형식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현상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연구한 선례가 있다.[36]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도입이 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원인과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수암, 박용환(2000년)은 1962년부터 199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어진 모든 아파트 평면을 분석하여 주택시장에서 가장 선호되었고, 이에 따라 대량 복제되었던 아파트 평면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던 것은 판상형의 주동형태를 가진 계단실형 아파트로서 3개의 침실을 가지는 85㎡ 내외의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을 가지는 평면이었다. 즉 계단실형 아파트로서 3개의 침실 평면(3LDK) 형태는 오랜 기간 가장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 시기동안 평면이 대형화되면서 4침실형, 5침실형 또한 등장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이러한 평면형태 역시 거실 중심의 방이 둘러싸고 있는 4LDK, 5LDK 평면 형태적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형평면 판상형 아파트 사례는 당시 경제적으로 상류계층이 주로 거주했던 강남, 송파 일대에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 가장 많이 준공된 3침실형, 4침실형, 5침실형은 다음과 같다.

36) 최재필, 「공간구문론을 사용한 국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시계열적 분석: 수도권 4LDK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93호, 1996

[표 3-3] 1980년대까지 가장 많이 준공된 판상형 아파트 평면

| 3침실형 | 4침실형 | 5침실형 |
|---|---|---|
| | |  |

(R: 침실, R: 안방, L: 거실, D: 식당, K:주방, E: 현관, H: 복도/홀
Ba: 화장실, U: 다용도실, bal: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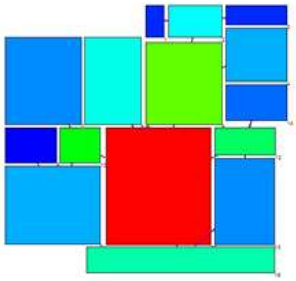
이러한 판상형 대형아파트 평면형태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방이 현관에서 가장 먼 남향에 위치한다는 점, 둘째, 거실·식당·부엌 등의 거주공간이 하나로 묶이면서 큰 열린공간을 구성한다는 점, 셋째, 침실(방)들이 거실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다는 점, 넷째, 외기(발코니)에 노출되는 전면부에서 거실을 가운데 끼고 양 옆에 침실이 배치되는 3Bay 형식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 압구정동 한양2차(1981) 전경 | 평면구성 |
|---|---|
| | |

[그림 3-9] 현대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

압구정동 한양2차(1978) 아파트의 사례를 살펴보면 앞에 서술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당시 대형평면을 요구하는 경제적 우위에 있는 상류층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대형평면은 평면의 면적이 증가하면서 방의 개수가 비례하여 증가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으며, 여전히 거실중심의 방이 둘러싸고 있는 L-D-K 공간구성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정의한 Single layer 개념에 정확히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압구정동 구현대 7차(1978) | 통합도 분석 |
| --- | --- |
| |  |

[그림 3-10] 현대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 통합도 분석

위의 통합도 분석 이미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분석 결과는 3LDK 아파트 평면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평면의 크기와 함께 방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거실'**이 주거공간의 중심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주거내 중심공간인 거실에서 대부분의 실들로 한번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부침실의 공간심도(현관을 중심으로 한 거리)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방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프라이버시(Privacy)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부침실 내 전용 화장실이 생겨나는 것이 추세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 주상복합 아파트(Double layer)

1990년대 후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과거 신도시 등의 지속적인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대량생산되어왔던 아파트의 양적인 팽창은 점차 질적인 요소가 결합되는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 주상복합 아파트가 출현하면서 이러한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형의 전형적인 계획방식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된다. 주상복합 아파트 일반적으로 고층빌딩의 골조와 코어구조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외적조건 속에서 평면이 구성되어야 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또한 각종 부대시설 증가에 따른 공유면적이 증가하고 설비의 요구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아파트 평면형도 이를 분양가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형화 고급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렇듯 2000년대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류층의 주거공간인 주상복합 아파트의 용어의 정의 및 건축법규는 다음과 같다.

[표 3-4] “주상복합 아파트”의 용어 정의

| 구분 | 정의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8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
| 주택법 제16조 주택법시행령 제15조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 |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건물 |

[표 3-5] 관련법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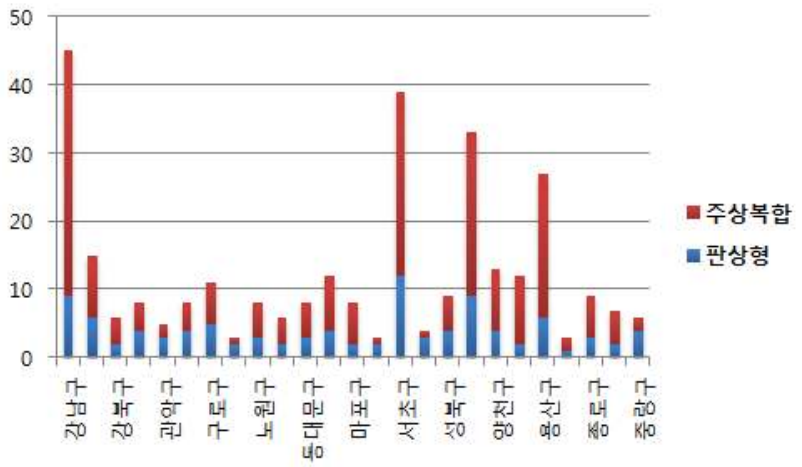
| |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흔히 “주상복합건물”이라 함)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법률 제8383호(2007.4.20) 주택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따라 2008.4.21.부터 주택법을 적용하여 관리함 |
| 주상복합건물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중 용도변경(주택법시행령 별표3 제1호)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리모델링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 |
|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상가 등)과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법무부 소관)에 따라 관리함 |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서울시 준공 사례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6] 서울시 주상복합 아파트 분포 현황(2011.12 기준, 전용면적 150㎡이상)[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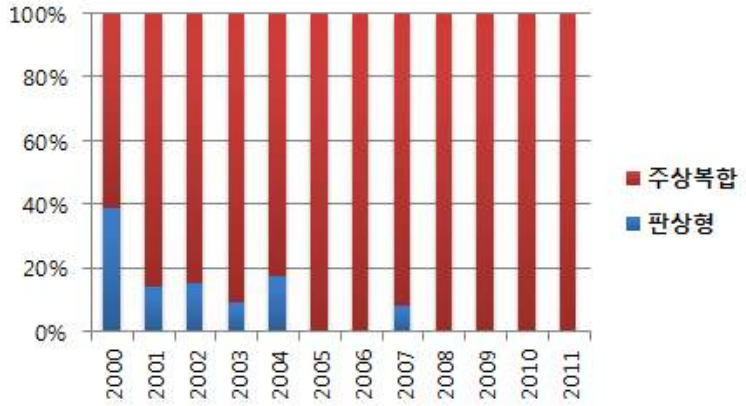
| 구 | 단지 수 | 구 | 단지 수 | 구 | 단지 수 |
|---|---|---|---|---|---|
| 강남구 | 39 | 도봉구 | 4 | 양천구 | 9 |
| 강동구 | 9 | 동대문구 | 5 | 영등포구 | 10 |
| 강북구 | 4 | 동작구 | 8 | 용산구 | 21 |
| 강서구 | 4 | 마포구 | 6 | 은평구 | 2 |
| 관악구 | 2 | 서대문구 | 1 | 종로구 | 6 |
| 광진구 | 4 | 서초구 | 27 | 중구 | 5 |
| 구로구 | 6 | 성동구 | 1 | 중랑구 | 2 |
| 금천구 | 1 | 성북구 | 5 | | |
| 노원구 | 5 | 송파구 | 24 | 총 | 207 |

주상복합 아파트는 처음 등장한 1999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를 통해 본 연구의 사례기준인 150㎡~180㎡(전용면적)에 해당하는 판상형 아파트의 감소와 맞물려 현대의 대형아파트 즉, 경제적 우위에 있는 상류층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은 더 이상 판상형 아파트가 아니라 주상복합 아파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2000년 이후 서울시 150㎡ 이상 아파트 준공 단지 사례수

37) 네이버 아파트(land.naver.com)를 통해 서울시내 2000년~2011년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150㎡이상의 사례가 나타나는 판상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준공사례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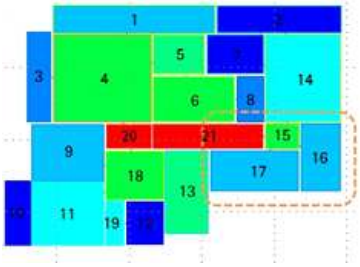

[그림 3-12] 2000년 이후 서울시 150㎡ 이상 판상형 및 주상복합(타워형) 준공사례

| 용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전경 | 평면구성 |
|---|---|
| | |

[그림 3-13] 주상복합 아파트

이렇듯 2000년대 상류주거로 자리잡은 주상복합 대형평면 아파트는 판상형 아파트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타워형 형태의 매스를 기반으로 등장한다는 점, 둘째, 주거내 거실 중심이 아니라 현관에서 거실 및 식당, 주방 등의 다양한 실로 이동을 위한 통로공간이 중심이라는 점, 셋째, 영역의 분리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점, 넷째, 드레스룸, 파우더룸, 개인서재, 가족실 등 부속공간이 활발하게 등장한다는 점, 또한 판상형 대형아파트가 전용면적 증가와 비례해 방의 개수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는 점에 반해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용면적에 증가함에 따라 침실의 개수가 3.5개 정도로 수렴하여 대부분의 사례의 침실개수가 4개를 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 도곡동 타워펠리스 3차 | 통합도 분석 |
| --- | --- |
| |  |

[그림 3-14] 주상복합 아파트 통합도 분석

위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판상형 아파트와는 달리 타워형 아파트의 외관 및 매스의 형태를 보이는 차이 이외에도, 주거공간의 위상학적 중심공간이 거실이 아니라 다양한 실들로 이동하기 위한 복도공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실, 드레스룸, 다용도실, 드레스룸 등의 부속공간 탄생과 함께 이러한 공간의 통제공간인 부부침실 및 안방과의 연결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판상형 아파트 사례에 비해 주방 및 식당공간의 통합도가 높아져 종전의 판상형 아파트의 거실의 비해 상대적으로 중심공간에 위치한다. 이렇듯 다양한 부속공간의 탄생에 따라 발생한 공간영역의 위상변화 과정에 대한 동인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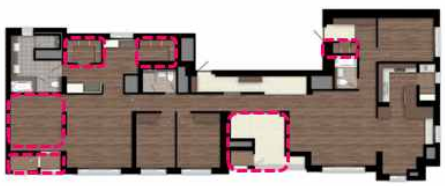
다시 말해, 본 연구를 통해 논의를 시작한 시대의 흐름에 따른 형태변화의 전이과정의 공통점에서 보이는 '부속공간 化' 현상에 대한 이유는 조선시대 근대초기 전남지방 부농주거의 경우 전술한 내용과 같이 부농계급의 출현, 한옥의 건조기술 발달, 대지의 압박, 채내의 요구공간 증대 등의 이유가 겹집化 과정의 원인이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의 경우에는 판상형 아파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전이과정을 거치면서 보여지는 이른바 '부속공간 化'현상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속공간들의 탄생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평면형태의 전이과정을 거치며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시대적 흐름일 것이다.

두 번째, 2000년대 이후 사례의 기준인(150㎡~200㎡) 대형평면 아파트의 경우 타워형 주상복합 사례가 주류를 이루며, 이러한 주거의 평면 형태는 공간이 비대해지고 심도(Depth)가 깊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이른바 '먹방'을 해결하기 위

한 수단으로 쓰였을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이유 중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논리에 그 중심이 맞추어져있다. 두 번째 언급한 “타워형으로 형태가 바뀌면서 생겨난 심도 깊은 공간인 ‘먹방’을 해결하기위해 다양한 부속공간들이 탄생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판상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속공간들이 나타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른바 ‘판상형 주상복합 아파트’는 기존 판상형 아파트의 특성이 유지되어 폭 방향으로 깊지 않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른바 다양한 부속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아래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하여 살펴본 ‘부속공간 化 ’현상은 타워형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진화과정에서 생긴 심도 깊은 ‘먹방’공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거 형태의 전이과정에서 보여지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 경희궁의 아침 주상복합 아파트(150㎡) |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주상복합 아파트(174㎡) |
|---|---|
| | |
| |  |

[그림 3-15] 판상형 주상복합 아파트 사례

위의 첫 번째 사례인 ‘경희궁의 아침(전용면적 161.54㎡)’은 전·후면 발코니를 가지는 판상형 주상복합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실 및 공용공간과 침실의 면적을 줄이면서 생긴 면적을 가족실, 파우더룸, 패밀리룸, 다용도실 등 다양한 부속공

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인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주상복합 아파트’ 역시 판상형 아파트의 형태적 속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양 옆의 확장된 공간을 통해 앞의 사례와 비슷한 다양한 부속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전이과정의 결과물로서 탄생하는 다양한 부속공간들은 새로운 주거양식의 도입과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시대적 트랜드로써 그 해석이 가능하다.

## 3.3. 각 상류주거 공간의 일반적 공간 특성 비교

조선시대 근대초기 부농주거(겹집) 사례는 공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홑집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실제로 별동의 건립이 아닌 실 구획을 통하여 필요한 공간을 얻게 되면 건축면적뿐만 아니라 건축비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되며, 외부 공간을 활용한 가족구성원들의 생활이 채 내로 들어오게 됨으로서 편의 측면에서도 장점을 보인다. 또한 외부를 통하지 않는 안채 내부의 동선만으로도 많은 부분의 가족생활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보여진다. 개인서재, 가족실, 개인욕실 등이 실 분화를 통해 생겨남으로서 실내 공간내의 공간 활용 및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두 상류주거 모두 다양한 부속공간들이 발생하게 된다. 조선시대 전남지방 근대초기 부농주거 사례의 경우 전술한 내용을 이유로 폭 방향으로 가옥이 넓어지게 되는 현상, 즉 **'겹집化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양한 부속공간'**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적 전이과정은 가족구성원을 포함한 가옥 전체 및 주생활 변화의 동인이 되었다.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부속공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거주자의 다양한 공간요구가 반영된 공간으로 변모해가며, 이러한 현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요구가 반영된 시대적 트랜드로써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점인 조선시대 상류주택과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의 각 시대별 **평면형태의 '전이과정'**과 **'관계성'**에 대해 두 주거간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형태의 전이과정

조선시대 근대초기 전남지방 부농주거의 경우 겹집화 된 형태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배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영농 사회의 성숙에 따른 주거내 공간의 증대요구가 지방장인의 성장과 목재공급 등의 기술사적 발전에 힘입어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38] 아래 표는 「문화재대관-중요민속문화재」, 문화재관리국 1985. 의 주거건축 105채를 대상으로 한 겹집화현상 조사표이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시기가 후대로 내려올수록 홑집의 사용빈도가 줄고 퇴집, 겹집의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겹집이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전후퇴집의 출현과 비슷한 시기로 겹집이 전후퇴집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에 관계되는 듯 하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퇴집에서는 전후좌우퇴집이, 겹집에서는 두줄백이집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19세기 후반부터는 홑집이 건립된 사례가 없다. 이렇게 근대로 내려올수록 홑집에서 퇴집, 겹집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일컬어 '겹집化 과정'이라고 하며 이것은 初期近代를 특징짓는 주요 지표의 하나이다. [39]

[표 3-7] 중요민속자료를 대상으로 한 안채의 겹집化 현상조사
(출처:「문화재대관-중요민속문화재」, 문화재관리국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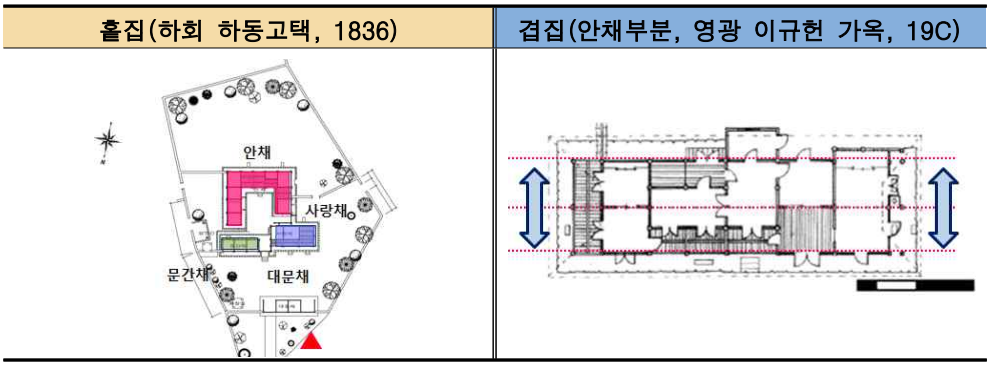
| | 홑집 | 퇫집 | | | 겹집 | | |
|---|---|---|---|---|---|---|---|
| | | 전퇴집 | 전후퇴집 | 전후좌우퇴집 | 반겹집 | 겹집 | 두줄백이집 |
| 16C이전 | 3 | | | | | | |
| 조선중기 | 9 | 3 | 1 | 1 | | 2 | |
| 18C전반 | 5 | 2 | | | 1 | | |
| 18C후반 | 2 | 7 | 4 | | | | |
| **19C전반** | **2** | **5** | **4** | | **4** | **2** | |
| **19C후반** | | **8** | **9** | **1** | **3** | **4** | **3** |
| 조선말기 | | | | 7 | | | 1 |
| 20C전반 | | | 1 | 5 | 1 | 1 | 5 |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近代初期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겹집사

38) 전봉희, 「조선후기 주거사에 있어서 겹집화 현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6. 10, pp.193~201

39) 전봉희, 같은 글, p.198

례를 통해 과거 홑집을 통해 상류가옥을 형성했던 구성 기법과 특성을 대비해 홑집에서 겹집으로의 전이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정의한 'Layer 개념'에서 본다면 홑집에서 겹집으로의 전이과정 즉, 겹집化 과정은 'Single Layer'에서 'Double layer의 형태'로의 형태적 전이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6] 겹집화 과정 사례 예시

위의 사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836년 건립된 하동고택의 경우 진입부의 대문채를 지나면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 사랑채, 문간채 등이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채나눔' 가옥구조를 보인다. 하지만 조선시대 近代初期 겹집화 현상을 보이는 전남지방 부농주거 영광 이규헌 가옥은 가옥의 중심공간인 안마당이 실내공간인 전면 대청으로 그 역할과 쓰임새가 바뀌어가고 있으며, 부엌(정지)공간과 안방영역이 활발하게 실분화를 통해 공간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듯 겹집에서는 대청을 중심으로 안방, 부엌, 고방, 기타 간살이를 위한 부속공간으로 분화되어 사용하고 있는 형태로의 전이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현대의 대형평면 주거공간에서도 비슷한 전이과정과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1970대 아파트의 본격적인 도입 및 보급과 함께 그 시기 평면형태의 전형이였던 거실중심의 L-D-K 평면의 등장과 함께 경제적 우위에 있었던 상류계층의 대형평면의 요구에 대응해 서울시내 도심부에 4, 5L-D-K평면이 등장했다. 대형평면 판상형 아파트의 공간구성(L-D-K) 평면의 특징은 대형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거실'을 중심으로 방이 둘러싸고 있는 속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평형의 증가와 함께 방의 개수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렇듯 판상형 아파트는 평면의 대형화 현상에도 'Single layer 형태'를 보임에는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시간이 흘러 2000년대 들어서 다양한 부속공간의 탄생을 수반한 타워형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은 거실보다는 다양한 부속공간 등의 실로의 이동의 중심공간 역할을 하게 되는 **'복도공간'**이 주거전체의 중심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판상형 아파트는 복도공간을 중심으로 거실, 부부영역, 자녀영역, 다양한 부속공간 등이 둘러싸는 형태로의 판상형 아파트에서의 전이과정을 겪게 된다. 즉 주상복합 아파트는 **'Double layer 형태'**의 주거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시대별 상류주거는 형태적 전이과정의 유사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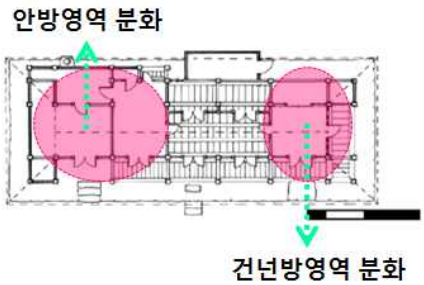
| 판상형 아파트(압구정동 한양7차, 1978) | 주상복합 아파트(포스코 센텀스타, 2009) |
|---|---|
| | |

[그림 3-17] 판상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

### (2) 관계성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상류주거 구성은 홑집에서 겹집으로, 현대 대형 아파트는 판상형 아파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형태적 전이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형태적 전이과정은 본 연구에서 논하는 **'Layer의 증가'** 현상에 부합하는 공통속성을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주거공간은 다양한 요구기능을 실내공간의 변용을 통해 수용해 나아간다는 점, 즉 다양한 부속공간이 발생한다는 점, 종전의 Single layer형태의 주거공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Family-life를 보여준다는 점 등도 각 시대별 상류주택간의 관계성의 한 부분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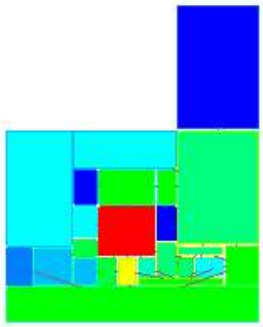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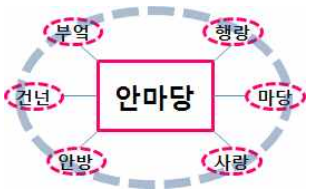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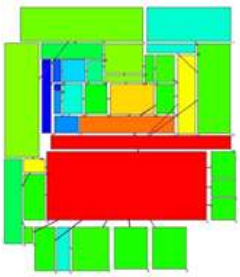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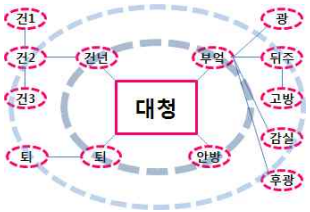
| 장흥 위성룡 가옥 | 일산 자이 |
| --- | --- |
|  | |

[그림 3-18] 다양한 부속공간의 탄생

위의 장흥 위성룡 가옥(1946) 사례를 보면 이미 부엌과 안방영역의 상당한 공간분화, 즉 채 내에서 폭방향 확대를 통해 획득한 공간을 이용하여 '내부공간 化'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부공간화 현상을 통하여 당시 거주자들은 요구기능을 '채 內'에서 해결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서도 부부침실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부부침실을 기준공간으로 개인서재, 드레스룸, 파우더룸, 다용도실 등 다양한 요구공간의 탄생을 통해 거주자의 공간요구를 해결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질 4장에서는 3장에서 설명한 조선시대 상류주택과 현대 대형아파트 주거공간의 형태적 전이과정의 공통속성과 전이과정에서 보이는 관계성을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그 시대상의 배경연구와 공간분석 기법을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그 전이과정의 원인과 과정·결과, 관계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3) 소결

| 평면 | 통합도 분석[40] | Layer의 개념 |
|---|---|---|
| |  |  |
| 관가정(1592) | | |
| **'채 나눔' 중심의 상류주거 공간 구성<br>안마당 중심의 살림구성<br>유교이념이 주생활에 반영** | | |
| |  |  |
| 보성 이금재 가옥(1900년대 초반) | | |
| **'내부공간 化' 를 통한 '채' 공간 구성<br>안마당에서 대청으로 중심공간 전이<br>실사구시 사상이 주생활에 반영** | | |

[그림 3-19]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형태적 전이과정에 따른 변화

3장의 일반적인 특성비교 및 해석의 요약은 다음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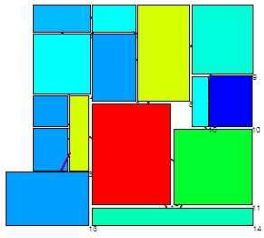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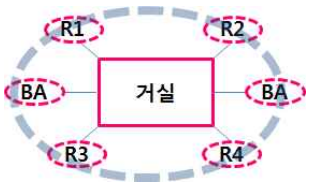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중기 '채나눔'을 통해 공간의 확장, 주거를 구성했던 사례는 Single layer 형태의 특성을 보이며 안마당중심의 살림구성 유교이념

40) 연구의 방법으로 앞장(2장)에서 서술한 지표로써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전체 공간 내에서 중심공간이고,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전체 공간 내에서 중심공간에서 벗어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즉, 공간사용 주체별로 공간이 구성된 가옥으로 이러한 생활상이 주거공간에 반영되었음을 해석 할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등장하기 시작한 近代初期 부농주거의 경우 폭 방향으로 획득한 공간을 활용하여 계획된 '내부공간 化 현상'을 통해 '채나눔'을 통해 충족했던 다양한 요구기능을 실내에서 수용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옥전체의 중심공간이 안마당에서 실내공간인 안대청공간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토대로 조선시대 近代初期 해당 시대의 중심 이념이였던 '실사구시' 사상 즉 안살림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간구성이 주거공간에 반영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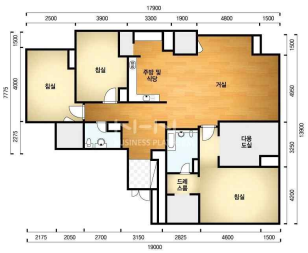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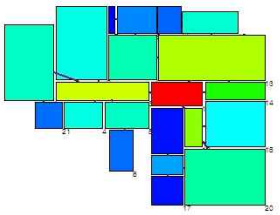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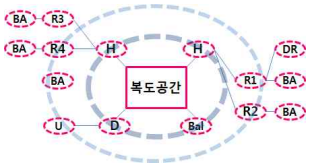
현대의 경우 아파트 도입 초기에 등장한 대형아파트의 경우 L-D-K의 공간구조를 유지하는 Single Layer형태의 공간구조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0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Double Layer형태의 공간구조를 보임으로써 Single layer에서 Double layer로의 형태적 전이과정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3장을 통해 각 상류주거 공간의 일반적 공간 특성을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근대초기의 겹집化 현상과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은 평면형태의 전이과정의 유사성과 그 관계성을 보이고 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4장에서는 이러한 전이과정의 유사성과 관계성의 과정과 사회·문화적인 배경 등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관계적 속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 시대별 주거공간의 '공간구성의 변화과정', '부속공간 증대 현상', '실내공간 內 영역의 기능적 분리', '공간분화에 따라 변화하는 Family-Life' 의 주제를 필두로 시대의 사회배경 연구와 공간분석을 통해 각각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보았다.

| 평면 | 통합도 분석 | Layer의 개념 |
|---|---|---|
| |  |  |

도곡동 삼익 아파트(1983)

**거실중심의 L-D-K 평면 유지**
**공적/사적 영역 구분 단순**
**평형과 침실개수의 비례관계**

| | | |
|---|---|---|
|  |  |  |

신천 갤러리아 펠리스(2004)

**복도공간 중심의 영역의 기능적 분리**
**세대간, 기능적 영역 및 동선분리**
**부속공간化 현상**

[그림 3-20]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의 형태적 전이과정에 따른 변화

# 제 4 장 조선시대 상류주택과 현대 대형아파트 주거 공간 변화 양상

4.1 평면형태(공간구성) 변화

4.2 '부속공간 증대' 현상

4.3 실내공간 內 형역의 기능적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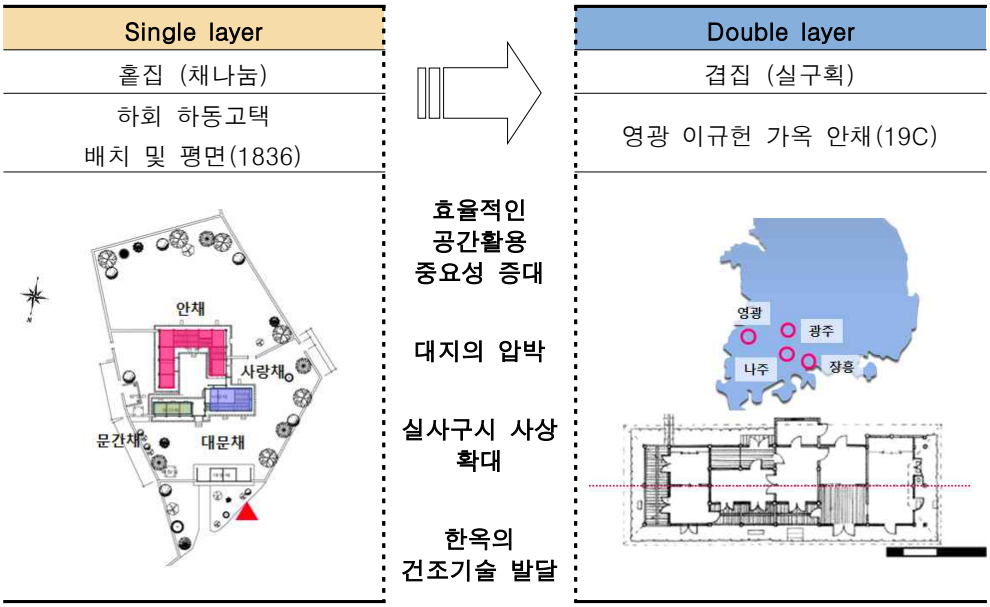
4.4 평면형태 전이과정 후 Family-Life 변화

## 4.1. 평면형태(공간구성)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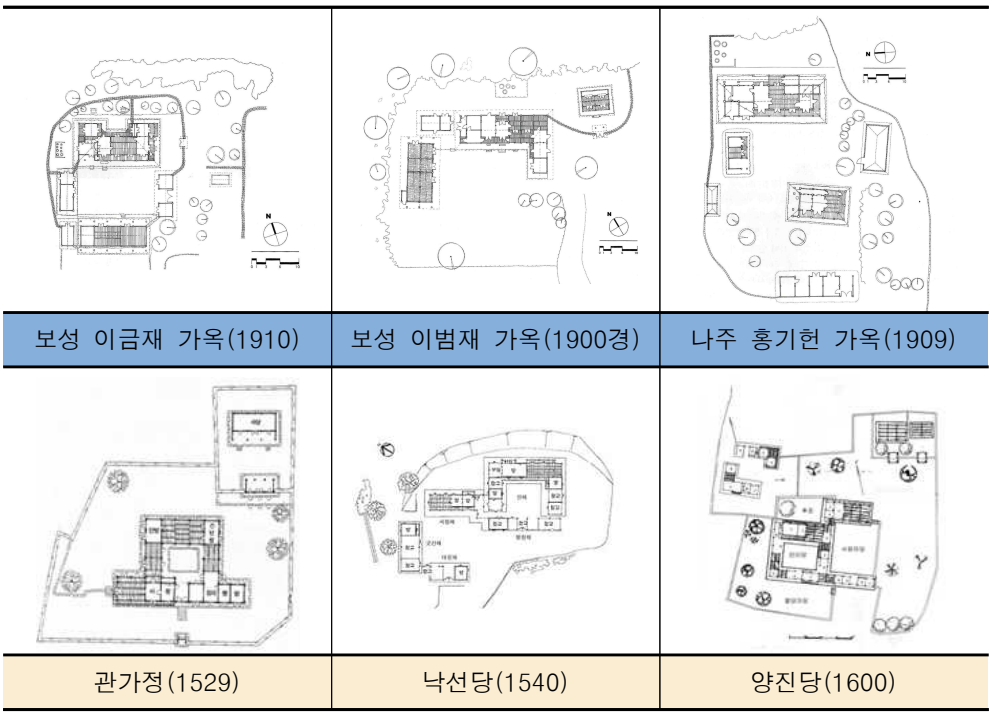
### 4.1.1. 조선시대 상류주택 공간구성 변화

조선시대 중기 상류주택 구성 원리의 규범이었던 '홑집'중심의 '채나눔'을 통한 공간구성은 안동의 양동지역 상류주거를 살펴보면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시대 近代初期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전남지방 富農住居에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겹집化' 현상은 이른바 주거史에 있어서 큰 사건이다. 조선시대 近代初期 초기 겹집형태의 부농주거 사례의 경우도 그 시기에 따라 형태적 변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881년에 건립된 보성 이용욱 가옥 사례의 경우를 보면 조선시대 중기까지 상류주거에서 보여졌던 유교사상 즉 공간사용 주체별 영역구성으로 남성중심 공간인 '사랑채', 안주인 중심의 공간인 '안채', 노비들의 공간인 '행랑, 문간채' 조상을 모시는 공간인 '사당채'등으로 '채 나눔'을 기반한 공간구성에서 안채의 폭 방향 증가에 따른 겹집化 현상에 힘입어 '채나눔'으로 충족해왔던 다양한 요구공간을 점차 '채 內'에서 흡수하게 되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 시기 주거를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 및 문헌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조선후기로 갈수록 전체 주거공간 내에서 안채의 위상과 그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해당 지역 사례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반영된 안채가 겹집化 현상이 더 활발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이 동인이 되어 가옥전체의 성격이 새롭게 바뀌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지역에 건립된 부농주택의 경우 전술한 다양한 배경을 근거해 안채중심의 가옥, 즉 안채가 겹집化 되면서 가옥이 수행해야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1910년 건립된 보성 이금재 가옥을 살펴보면 이미 안채內에서 안방영역의 공간과 건넌방영역의 공간영역이 '채'內에 공존하며 해당 공간이 기능적으로 분리되는 공간구성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지공간(부엌)에서 행해졌던 다양한 주생활이 겹집化 현상과 함께 다양한 부속공간들이 탄생하게 되고, 이러한 공간이용이 채內로 통합되면서 정지영역 마찬가지로 이전의 '홑집'에서 이루어졌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성격을 보이는 가옥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림 4-1] 조선시대 상류주거 평면형태의 전이과정과 그 원인




[그림 4-2] 조선시대 상류주거 평면형태의 전이과정(겹집化)

위 사례의 시기별 공간의 위상학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통합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에 앞서 각각의 영역을 목적·활용·기능 등이 유사한 그룹으로 그룹핑(Grouping) 작업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近代初期 전남지방 부농주거에서 활발하게 발견되는 '고방채', '곳간채' 등은 안채의 안살림과 관계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채영역'**으로, '사랑채', '별당채', '작은 사랑채' 등의 공간은 남성 중심 공간인 **'사랑채영역'**으로 구분했다. 또한 '행랑채', '아래채' 등 노비와 관련되는 공간영역은 **'행랑채 영역'**으로, '헛간채', '문간채', '대문채' 등 주거의 입구공간과 관련되는 공간은 **'문간채 영역'**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영역구분을 토대로 각 공간별 통합도 값 및 유의미한 정도의 지표인 P값을 구하여 홑집(Single layer)에서 겹집(Double layer)로의 형태적 전이과정을 겪으면서 각 공간영역별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했다.[41]

41) P값이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SPSS 1.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과값으로 제시되는 지표로써 해당 분석 집단 간 차이정도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통상 인문·사회·경제학에서는 P값이 0.05이하일 경우 두 집단간 유의미함을 인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집단간 차이의 유의미한 P값의 기준을 0.05로 정했다.

[표 4-1] 홑집과 겹집의 영역별 통합도 분석 값 및 분석 값의 T-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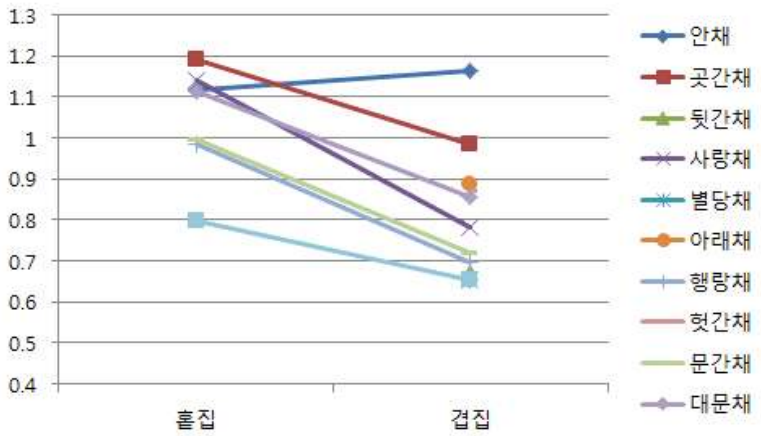
| | | 홑집 | | 겹집 | | P값[42] |
|---|---|---|---|---|---|---|
| | | 통합도 평균값 | N | 통합도 평균값 | N | |
| 안채영역 | **안채** | 1.116921 | 10 | 1.162587 | 22 | .000 |
| | 곳간채 | 1.192387 | 6 | .984541 | 17 | .047 |
| | 뒷간채 | - | | .672677 | 11 | - |
| | **평균** | 1.116921 | | 1.158445 | | .002 |
| 사랑채 영역 | **사랑채** | 1.138736 | 10 | .782785 | 22 | .000 |
| | 별당채 | - | | .654305 | 5 | - |
| | **평균** | 1.138736 | | .736548 | | .000 |
| 행랑채 영역 | 아래채 | - | | .887137 | 4 | - |
| | **행랑채** | .985402 | 10 | .697745 | 14 | .007 |
| | **평균** | .985402 | | .735623 | | .005 |
| 문간채 영역 | 헛간채 | - | | .871710 | 9 | - |
| | **문간채** | .995237 | 10 | .718003 | 12 | .000 |
| | **대문채** | 1.111779 | 10 | .855238 | 22 | .003 |
| | **평균** | 1.025452 | | .795568 | | .001 |
| 사당채 영역 | 사당채 | .798799 | 10 | .653819 | 11 | .487 |

분석한 사례의 통합도 결과 값 중 가장 높은 공간영역, 즉 공간 위상학적으로 가장 중심인 공간은 조선시대 중기 홑집구성 사례의 경우 **'사랑채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지표는 조선시대 중기의 상류주택의 경우 유교사상 즉, 남녀유별 사상에 입각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조선시대 중기에 남성중심의 공간배치 및 주생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정량적 지표로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유교사상이 약화되고, 효과적인 안살림을 위한 실사구시 사상이 대두되면서 안살림 중심의 **'안채영역'**이 위상학적으로 중심공간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시대 近代初期로 갈수록 안주인의 살림권과 지위가 계속해서 성장하였던 시대적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행랑채 영역'** 은 조선시대 중기 홑집구성에 비해서 近代初期 겹집의 사례에서 통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시대 중기

42) 앞서 서술했듯이 SPSS 1.7을 통해서 변화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P값이 .05 이하인 경우(P<.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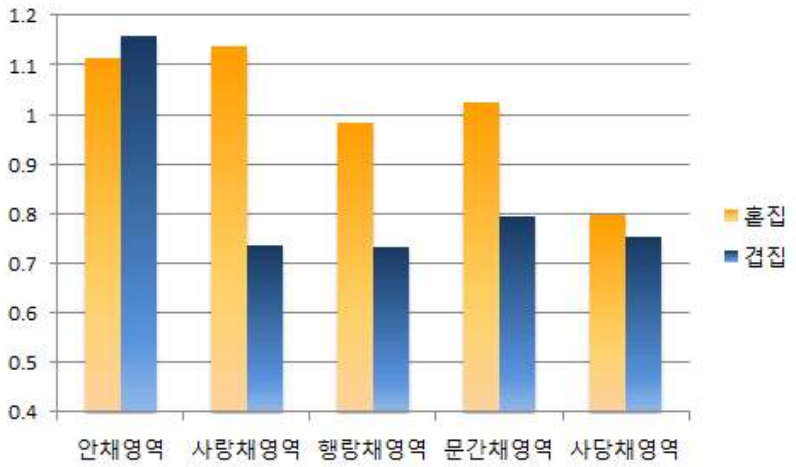
의 엄격한 상하관계에 입각한 노비들의 지위와 노비를 부리기 쉬운 상대적으로 중심공간 및 통제공간에 두어 생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 近代初期 등장한 겹집가옥에서는 행랑채 영역의 공간 위상이 떨어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먼저 겹집화 과정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안채內의 노비의 기거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이고, 또한 행랑채 영역이 가옥의 가옥전체에서 위상학적으로 낮은, 소외되어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에 덧붙여 조선시대 중기의 경우 노비와 함께 주생활을 구성했다면, 조선시대 近代初期의 경우 이미 머슴을 두는 신분사회가 더 이상 아닌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반영된 지표가 결과로 도출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당채 영역**'은 통계적인 유의수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P=0.487) 홑집에서 겹집으로의 전이과정을 정량적인 지표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음 그래프는 홑집과 겹집에서 등장하는 각 '채' 별 통합도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3] 조선시대 상류주거의 전이과정에 따른 채별 통합도 변화 추이(전수)

평면형태의 전이과정에 따라 채별 통합도의 변화 값을 각 채의 영역으로 그룹핑(Grouping)해 평균값을 기준으로 통합도 값의 변화를 구하였으며, 이러한 값을 표현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림 4-4] 조선시대 상류주거의 전이과정에 따른 채별 통합도 변화 추이(그룹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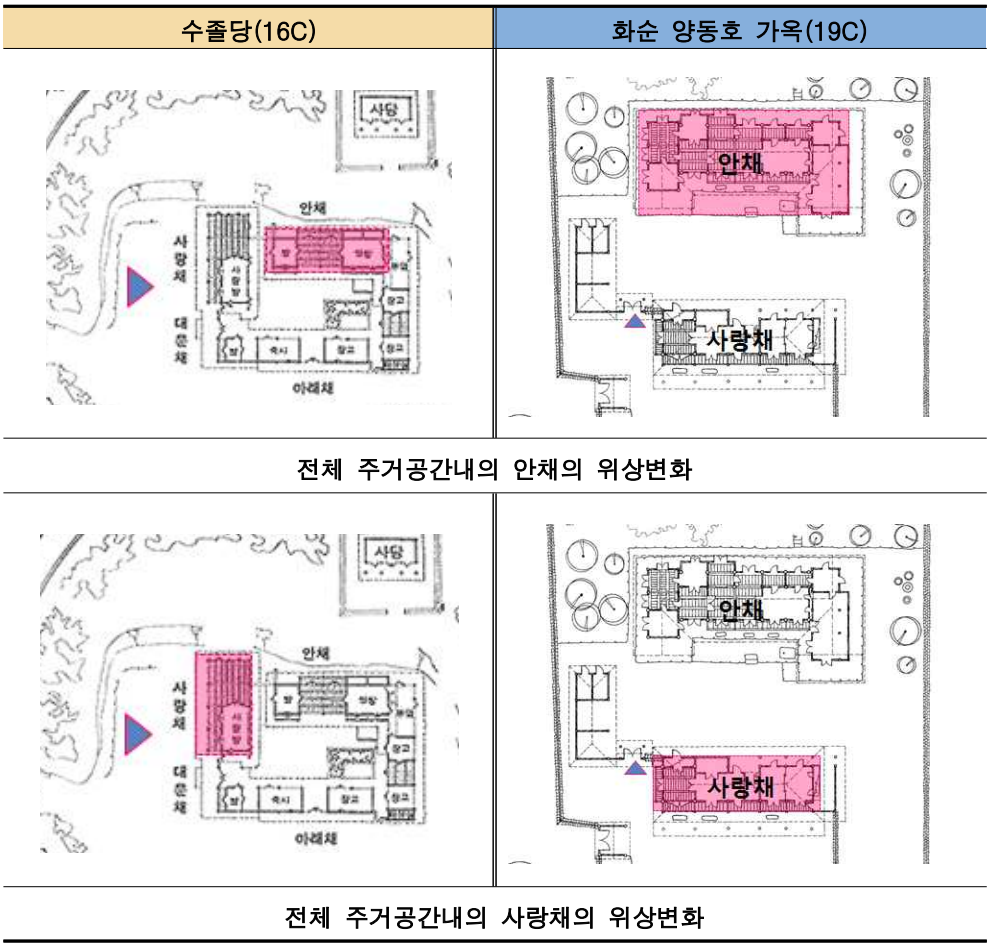
[표 4-2] 통합도 순위 변화

| | 안채영역 | 사랑채영역 | 행랑채영역 | 문간채영역 | 사당채영역 |
|---|---|---|---|---|---|
| 홑집 | 2 | 1 | 4 | 3 | 5 |
| 통합도 평균값 | 1.116921 | 1.138736 | .985402 | 1.111779 | .798799 |
| 겹집 | 1 | 3 | 4 | 2 | 5 |
| 통합도 평균값 | 1.158445 | .736548 | .735623 | .795568 | .653819 |

위에서 도출한 지표 값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형태적 전이과정에 따라 **'안채'**와 **'사랑채'**의 전체 공간 내에서 각각의 위상 변화가 가장 심했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가옥사례의 배치도에서 그 공간영역의 위상변화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선중기 홑집구성의 상류주거에서는 사랑채영역의 통합도가 안채의 통합도보다 높아 중심공간에 위치하고 있고,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 近代初期에 등장하는 겹집구성의 경우 반대로 안채의 통합도가 높아 중심공간에 위치함으로써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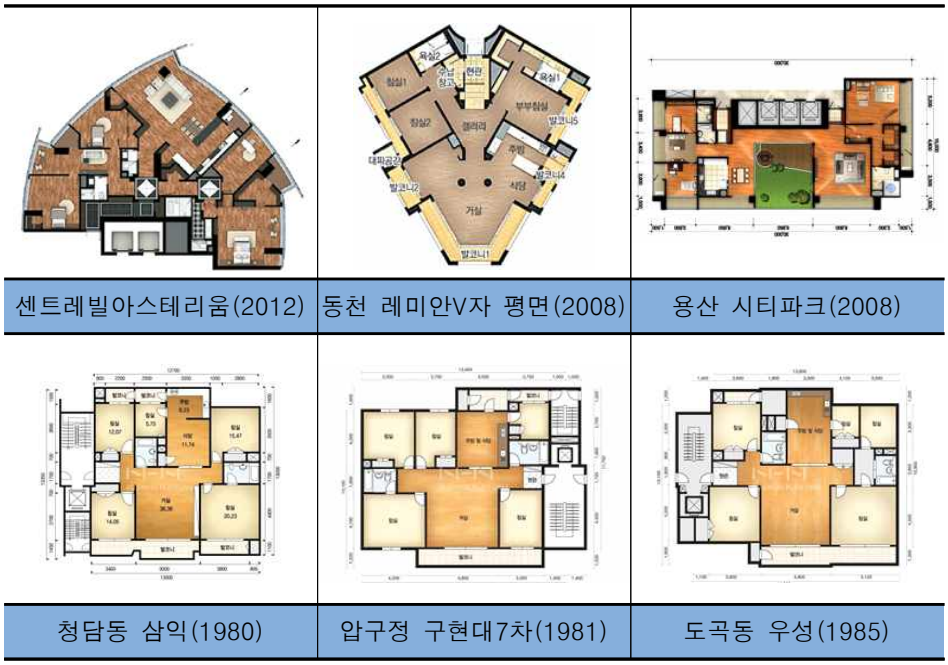
각의 두 영역의 전체가옥 내 위상 정도가 역전되었다.

다음은 조선시대 중기 홑집구성의 수졸당과 조선시대 近代初期 겹집구성의 화순 양동호 가옥의 '사랑채영역'과 '안채영역'의 가옥내 위상변화를 나타낸 도면이다.




[그림 4-5] 전이과정에 따른 안채와 사랑채의 위상변화

### 4.1.2. 현대 대형평면 주거공간의 공간구성 변화



| 센트레빌아스테리움(2012) | 동천 레미안V자 평면(2008) | 용산 시티파크(2008) |
|---|---|---|
| 청담동 삼익(1980) | 압구정 구현대7차(1981) | 도곡동 우성(1985) |

[그림 4-6]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의 전이과정

현대 대형평면 주거공간의 경우 1962년 마포 아파트의 보급 이래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매우 자명하다. 지난 100여년의 우리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20세기 초중반, 도시형 한옥과 단독주택, 외인주택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공동주택은 이른바 서구의 주택형식인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아파트의 도입 초기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도입기인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의 경우 3LDK 형식의 평면형태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그 시대의 보편적인 주거규범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이미 앞장을 통해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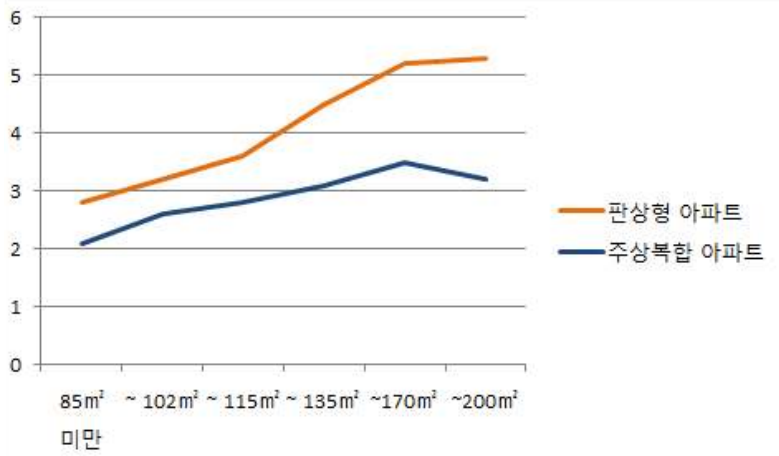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대형평면을 요구하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류층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강남일대의 주로 등장한 판상형 대형 평면아파트는 침실의 개수가 증가한 형태 즉, 4·5LDK 형식의 평면이 등장하게 된다.[43] 이 시기의 판상형

43) 본 연구에서는 현대 대형평면 주거공간의 형태적 전이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당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계층이 주로 거주한 전용면적 150㎡~180㎡ 규모의 강남일대의 사례를 Single layer(판상형 대형평면), Double layer(주상복합 아파트) 공히 선정하였다.

아파트의 경우 평형대의 증가와 함께 침실의 개수가 비례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거실중심의 L-D-K공간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면적의 증가와 함께 방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반면 그 후에 등장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사례에서는 전용면적과 방의 개수가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 물론 면적이 증가하면서 구획된 방의 개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편차가 심하고 판상형 대형아파트와 같이 일정한 비례관계 추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미루어 볼 때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증가하는 전용면적의 사용은 방 이외의 다른 공간, 즉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부속공간이 차지하게 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4-3] 판상형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침실의 개수의 관계성(Graph)[44]

| 면적범위㎡ | 판상형 아파트 | 주상복합 아파트 |
|---|---|---|
| 85㎡ 미만 | 2.8 | 2.1 |
| ~ 102㎡ | 3.2 | 2.6 |
| ~ 115㎡ | 3.6 | 2.8 |
| ~ 135㎡ | 4.5 | 3.1 |
| ~170㎡ | 5.2 | 3.5 |
| ~200㎡ | 5.3 | 3.2 |




[그림 4-7] 판상형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침실의 개수의 관계성(Gra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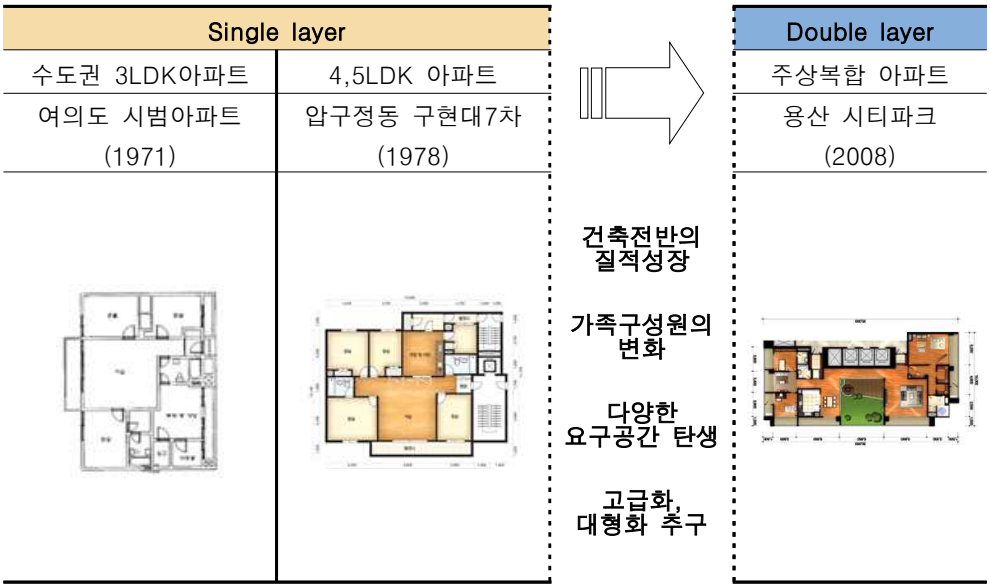
44) 해당 데이터는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강남구, 반포구, 서초구 일대에 지어진 판상형 아파트의 면적대별 사례와 2000년대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 사례를 면적대별로 20가구씩 조사하였다. 방의개수는 최소 3개를 가지는 3LDK평면을 시작으로 분석하였다. 해당시기 준공된 3LDK아파트는 대부분 25평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기준 규정에 의해 국민주택 규모에 맞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에 경제적 우위에 있던 상류층이 거주한 4·5LDK 아파트 주거공간은 전술한 내용에 근거해 이야기하면 거실중심-침실이 둘러싸는 형태의 Single layer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Layer의 개념'에 적용해보면 조선시대 近代初期 겹집화 된 주거공간의 탄생 이전의 '채나눔'이 활발했던 시기에 규범적으로 건립되었던, 홑집형태(Single layer)주거공간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 후반 이른바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을 통해 우리가 규범적으로 받아들여 왔던 판상형(Single layer)형태의 주거공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주거공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주상복합건물은 1981년 8월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상업지역 내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이하 중략)', 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주상복합건물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45] 1980년대는 주상복합건물을 비롯한 다양한 부류의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신도시 및 신시가지에 확대 적용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개별건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이 등장하였으며, '보라매 복합타운' 등과 같은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시도되었다. 신도시 개발에도 주상복합건물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형태도 고급형 도심주거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방편으로 주상복합건물이 등장하면서 이는 고급화, 대형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경제적 우위에있는 상류계층을 대상으로 발전해가게 된다. 이와 함께 소득증가에 따른 높은 삶의 질 선호와 고급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995년 세대수 제한이 폐지되었고, 1998년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 비율을 90%까지 확대시켜 줌으로써 해당 사례의 증가 및 대형화, 고급화를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다.[46]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준공되기 시작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대부분 부유층이 거주하는 강남, 서초, 반포 일대에 지어졌으며 최근에는 용산, 여의도 등 업무중심 지역에도 준공되고 있다. 이렇듯 주상복합 아파트는 현대의 상류층의 대표주거 공간이 되었으며, 아파트 등장과 함께 주거공간의 전이과정을 거치게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45) 정은진,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특성, 한국학술정보(주), 2006, p.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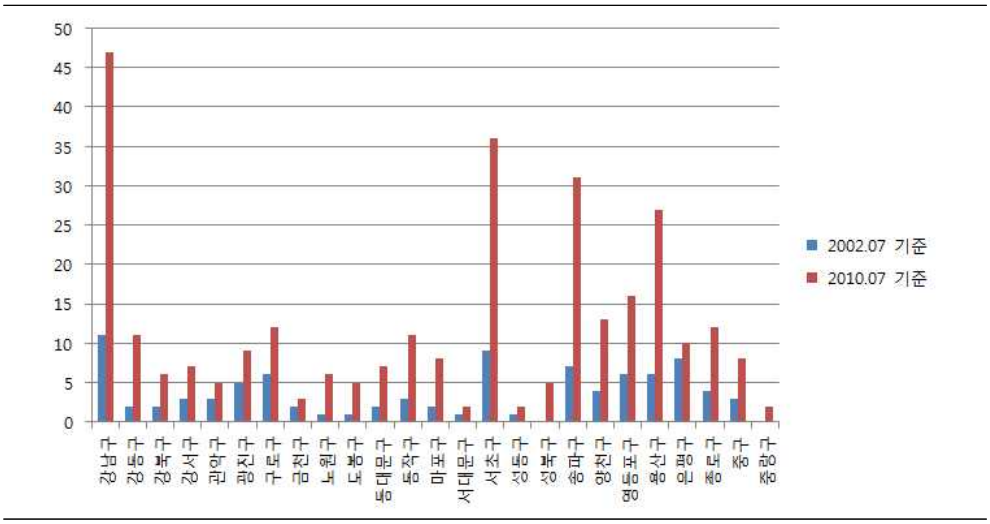
46) 위의 책, p.98




[그림 4-8]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공간의 탄생

[표 4-4] 판상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축계획적 측면의 비교

| | 판상형 아파트 | 주상복합 아파트 |
|---|---|---|
| **근거법** | 주택건설촉진법 | 건축법 |
| **승인대상** | 사업승인 | 건축허가 |
| **분양방법** | 공개청약 | 규정없음 |
| **분양보증** | 보증대상 | 보증제외 |
| **사후관리** | 공동주택 관리령 | 일반 건축물 적용 |
| **용도분류** | 주거시설 | |
| **부가가치세** | 전용 25.7평 초과시 부과 | |
| **1가구 2주택** | 해당 | |




[그림 4-9] 서울시내 주상복합 아파트 준공 건수(2002년 ~ 2010년)[47]

위의 표[4-8]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판상형 대형아파트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형태로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전이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전이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각각의 사례로 정한 대상의 여러 가지 통계지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통계지표를 통해 전이과정을 통해 주생활과 평면속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통합도 분석을 통하여 주거공간별 위상학적 공간 순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판상형 아파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전이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선정한 사례의 일반적인 특성을 항목별로 비교해보았다. 해당 두 시기 사례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류층 주거'의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반포구 일대에 준공된 사례를 선정하였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등지에 준공된 사례를 선정하였다. 또한 두 시기 사례는 공히 전용면적 150㎡ ~ 180㎡의 범위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다.[48]

47) 네이버 아파트(land.naver.com)를 통해 서울시내 2000년~2011년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150㎡이상의 사례가 나타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준공사례를 조사하였다.

48)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의 전용면적 150㎡ ~ 180㎡은 본고에서 도입한 'Layer의 개념'이 주거공간의 전이과정에 있어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표 4-5]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일반사항 비교

| 항목 | 판상형 아파트 | 주상복합 아파트 |
|---|---|---|
| 사례수 | 20개 | 20개 |
| 준공(평균) | 1978 ~ 1984 (1981.5) | 2002 ~ 2012(2007) |
| 전용면적 | 157.32㎡ | 154.66㎡ |
| 분양면적 | 189.29㎡ | 199.04㎡ |
| 전용면적 (범위) | 151.40㎡ ~ 176.86㎡ | 149.12㎡ ~ 178.50㎡ |
| 전용면적율 (%) | 83.11% | 77.70% |
| 방의 개수 | 4.86개 | 3.56개 |
| 욕실 개수 | 2.00개 | 2.95개 |
| 거실 | 57.18㎡ (29.68%) | 28.14㎡ (15.35%) |
| DK | 25.89㎡ (12.95%) | 27.31㎡ (14.89%) |
| 부부공간 | 33.43㎡ (17.35%) | 41.09㎡ (22.41%) |
| 부부공간 내 실 | 9.76㎡ (4.67%) | 19.94㎡ (11.13%) |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계층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거공간이라는 공통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용면적이 150㎡~180㎡ 의 분포를 보이는 대규모 주거공간을 판상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통 기준으로 삼았다. 두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전이과정을 거치면서 전용면적율이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주상복합 아파트는 서비스 면적을 더 많이 보유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주상복합 아파트는 판상형 아파트와는 달리 지하주차장 면적을 전용률 계산에 적용하기 때문에 전용면적률이 감소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침실의 개수가 감소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같은장 표[4-7]에서 설명했다.

**세 번째, 거실면적이 감소했다.**

판상형 아파트에 비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거실면적이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거실이 더 이상의 주거 내 중심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4-6] 판상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거실의 위상변화

| 청담동 삼익아파트(1983) | 용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2012) |
|---|---|
| | |

**주상복합 아파트의 거실면적(15.35%)대비**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는 거실면적(29.68%)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거실영역의 평균 통합도는 1.077862로써**
**판상형 아파트의 통합도 평균값1.649221보다 감소했다.**
**이를 통해 판상형 아파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전이과정을 통해 거실의 면적 및 통합도가 모두 감소하여, 거실이 더 이상 중심공간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거실면적의 감소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가장 먼저 거실공간이 위상학적인 중심공간에서 멀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의 경우 거실은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용하는 공간이었다. 동시에 가족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며, 둘러싸고 있는 방들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중심 매개공간이었다. 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과 함께 거실의 점유면적이 대폭 축소되고(29.68% ⇨ 15.35%) 그 위상 또한 감소하였다. 다른 해석으로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부속공간이 탄생했기 때문에 새롭게 탄생한 부속공간이 점유면적을 일부분 차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거실의 점유면적 및 위상이 축소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네 번째, 복도공간의 면적 및 위상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복도공간의 점유면적 및 통합도가 크게 상승했다. 이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중심공간이 더 이상 거실이 아니라 복도공간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복도공간은 다양하게 탄생하는 부속공간 현상과 함께 새롭게 추가되는 'Layer'공간으로의 이동을 위한 공간영역으로써 중요도가 높아졌고, 사적인 영역의 기능적 분리를 위해 공간심도를 높이기 위해 그 역할 및 위상이 증가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다섯 번째, 주방 및 식당공간의 분리현상이 나타난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방과 식당이 분리되어 각각의 독립영역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주방과 식당이 하나의 공간(DK)로 존재하는 경우보다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사례가 (D-K) 6사례로 나타났고(30%),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는 17사례로 나타났다.(85%)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주방 및 식당공간의 분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점유면적이 증가(12.95% ⇨ 14.89%)[49]하면서 공간적 위상이 증가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4-7] 판상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방 식당공간의 분리현상

| 도곡동 우성아파트(1985) | 삼성동 아이파크(2004) |
|---|---|
| | |

**판상형 아파트는 주방 및 식당영역의 대부분의 사례의 경우(70%) 나누어지지 않았지만, 반대로 주상복합 아파트의 대부분의 사례(85%)에서 주방 및 식당영역이 나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이과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주방 및 식당영역의 위상이 증가하여 영역이 확장, 분리되는 현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49) 각 공간의 점유면적은 전체 공간의 전용면적 대비 각 개별공간의 점유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여섯 번째, 부부공간 영역의 면적이 증가했다.**[50]

판상형 아파트에 비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부부공간의 영역이 대폭증가 한다.(위의 사례분석 자료 참고 / 17.35% ⇨ 22.41%) 이러한 원인은 부부침실내의 다양한 부속공간 즉, 전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개인서재 등이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표 4-8] 판상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부부공간의 변화

| 압구정동 구현대7차(1981) | 신천동 갤러리라 펠리스(2004) |
|---|---|
| | |

**주상복합 아파트의 부부침실의 면적이 경우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보다 작아졌으나, 부부공간의 전체영역(해당 부속공간 포함)은 증가했고, 해당 부속공간과 연결관계 또한 활발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한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전이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표들의 값과, 세부적인 변화관계를 증명하고자 각 공간 영역별로 통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석에 앞서 앞에 설명한(1.3. 용어의 정의) 공적, 반공적, 사적, 외부, 부속공간 영역 등에 따라 그룹핑(Grouping) 작업을 선행하여 영역별로는 통합도의 값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해당 분석결과 지표는 다음과 같다.

50) 본 연구에서는 부부공간 영역을 부부침실과 개인서재, 드레스룸, 파우더룸, 전실, 전용발코니, 개인욕실 등 부부침실의 전유공간으로 정의했다.

**일곱 번째, 욕실개수가 증가했다.**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의 경우 분석결과 4LDK+2B 형태 혹은 5LDK+2B 형태가 나타난다.[51]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삼은 대형평면의 경우(150㎡이상) 욕실은 공용욕실과 안방욕실 등 총2개가 규범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주상복합 대형 아파트의 경우 욕실의 개수가 대부분 3개인 4LDK+3B 형태가 추세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평면계획 측면에서 방수에 대한 중요성은 줄어들고 욕실수가 3개로 증가하면서 욕실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부공간영역, 자녀공간영역, 공용공간영역 등 기능적인 영역분리 현상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각 영역별로 욕실을 계획함으로써 영역별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4-9] 판상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욕실개수 변화

| 청담동 삼익아파트(1983) | 여의도 롯데캐슬 엠파이어(2005) |
|---|---|
| | |

**판상형 대형아파트의 경우 전 사례 욕실의 개수는 공용욕실과 부부침실 전용욕실, 즉 2개의 욕실을 가진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욕실의 개수가 3개인 사례가 추세로 등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영역의 기능적 분리와 함께 분리된 영역마다 욕실의 필요에 의한 요구가 반영되고 있는 결과로써 해석이 가능하다.**

51) 본 연구에서 B는 Bathroom을 칭한다.

[표 4-10]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 통합도 분석 결과

| | | 판상형 아파트 | | 주상복합 아파트 | | P값 |
|---|---|---|---|---|---|---|
| | | 통합도 평균값 | N | 통합도 평균값 | N | |
| 공적영역 | 거실 | 1.649221 | 20 | 1.077862 | 20 | .000 |
| | 거실 발코니 | 1.024375 | 20 | .792695 | 20 | .000 |
| | 응접실 | – | | .672677 | 4 | – |
| | 복도공간 | 1.107048 | 20 | 1.373959 | 20 | .005 |
| | 평균 | 1.489954 | | 1.215541 | | .001 |
| 반공적 영역 | 주방 | .818757 | 20 | 1.098713 | 20 | .037 |
| | 식당 | .818757 | 20 | 1.098713 | 20 | .037 |
| | 가족실 | | | 0.985477 | 8 | – |
| | 다용도실 | .696113 | 14 | .591706 | 20 | .058 |
| | 평균 | .798547 | | 1.078874 | | .003 |
| 사적영역 | 부부침실 | .983834 | 20 | .780036 | 20 | .001 |
| | 침실 | .831575 | 20 | .753010 | 20 | .046 |
| | 화장실 | .810823 | 20 | .689303 | 20 | .029 |
| | 개인욕실 | .600757 | 20 | .538487 | 20 | .229 |
| | 부속공간 | | 6 | | 20 | |
| | 평균 | .897745 | | .715548 | | .028 |
| 부속공간 영역 | 드레스룸 | .862852 | 6 | .606697 | 20 | .263 |
| | 파우더룸 | – | | .523415 | 18 | – |
| | 개인서재 | – | | .659481 | 12 | – |
| | 평균 | .862852 | | .593365 | | – |
| 입구영역 | 현관 | .803214 | 20 | .685676 | 20 | .0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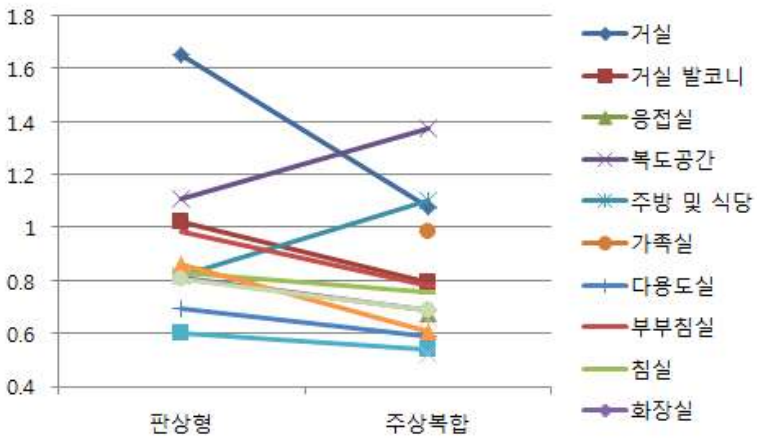
각 세부 영역별 통합도 분석결과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거실**이 가옥내 가장 중심공간임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전이과정을 거친 후 그 중심공간이 **복도공간**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거실이 가족이 함께 모여 여러 가지 Activity를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또한 손님의 응접공간으로써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공간 역할을 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과 함께 보여지는 평면상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다양한 부속공간들의 탄생인데,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복도공공간이 가옥내 가장 중심공간으로써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탄생한 다양한 부속공간들로의 이동통로인 복도공간이 가옥내 중심공간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이유로는 다양한 복도공간의 탄생은 공적인공간과 사적인공간의 거리(심도)를 조절하는 장치로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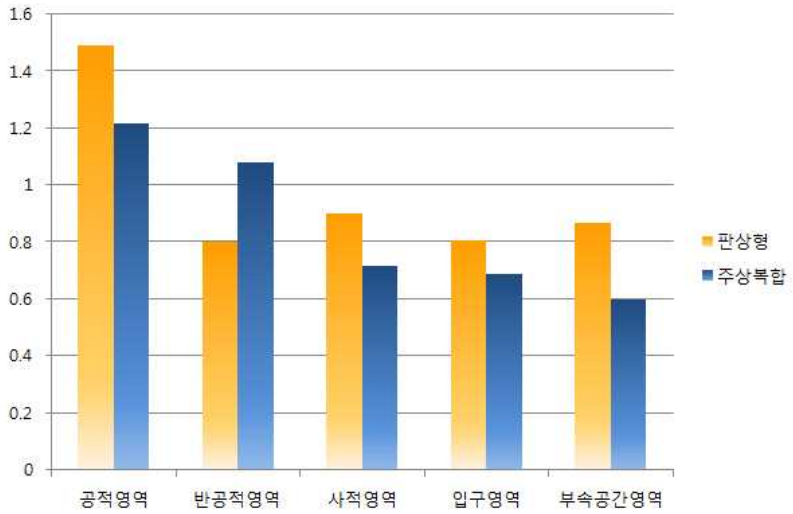
또한 주방 및 식당영역의 위상변화 현상이다. 주방 및 식당 영역은 판상형 아파트에서는 공간의 통합 형태인 DK 형태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주방과 식당이 분리되는 사례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해당 공간의 통합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방과 식당 영역의 공간위상이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사적영역의 낮아진 통합도는 사적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복도공간 및 꺾임공간, 그리고 전실 등의 장치를 사용해 사적영역의 공간성격을 더욱 깊은 공간으로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사적공간내 활발하게 생기는 다양한 부속공간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상형 아파트보다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사적영역의 통합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다음 그래프는 각 실별 판상형 아파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전이과정에 따는 통합도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0]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의 전이과정에 따른 영역별 통합도 변화 추이




[그림 4-11]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의 각 영역별 통합도 변화 추이

[표 4-11] 통합도 순위 변화

| | 공적영역 | 반공적영역 | 사적영역 | 입구영역 | 부속공간영역[52] |
|---|---|---|---|---|---|
| **판상형** | 1 | 5 | 2 | 4 | 3 |
| 통합도 평균값 | 1.489954 | .798547 | .897745 | .803214 | .862852 |
| **주상복합** | 1 | 2 | 3 | 4 | 5 |
| 통합도 평균값 | 1.215541 | 1.078874 | .715548 | .685676 | .593365 |

52) 부속공간 영역의 경우 판상형 대형평면에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20개의 사례 중 6개)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4.1.3. 전이과정에 따른 각 시대별 사례의 중심공간의 변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홑집(single layer)에서 겹집(double layer)으로의 전이과정에 따라 가옥 내 중심공간이 실외공간인 '안마당'에서 실내공간인 '대청'으로 이동하였고, 동시에 현대 대형 아파트 주거공간에서는 판상형 아파트(single layer)의 경우 '거실'에서 주상복합 아파트(double layer)로의 전이과정을 통해 '복도공간'이 중심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주거내 중심공간의 변화는 시대를 초월한 주거史적 전이과정의 유전인자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로써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5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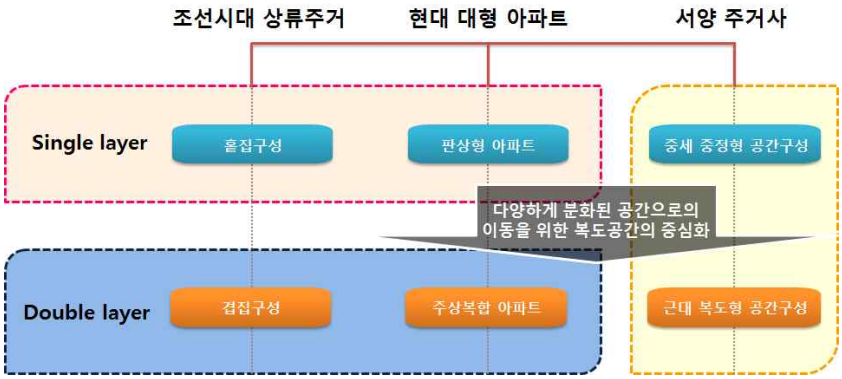
서구의 주거史를 살펴보면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경우 시대의 전형이었던 중정형 주거공간의 경우 중심공간을 중심으로 소요공간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 실내공간의 대형화와 공간요구의 증가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공간이 분화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복도공간이 중심이 되어가는 형태로의 전이과정을 거쳤다. 즉 복도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분화된 실들로의 이동을 위한 '복도공간' 이 중심인 공간구성 형태를 보였다. 다시 말해 이러한 공간형태의 변화를 통해 기존에 복도공간 없이 중심공간과 중심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구성을 통해 전체 시스템을 이루었던 형태와 대비되는 형식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서 논하는 'Layer'의 변화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조선시대와 현대 주거공간의 관계성 연구를 기반한 연구의 확장으로서 그 유전인자를 유럽의 주거史에서도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4-11]은 사양의 주거史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심공간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즉 중정형 중심공간에서 다양한 실들로의 이동이 가능한 복도공간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서 논하는 현대 판상형 대형 아파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전이과정을 거치면서 보여지는 복도공간의 중심화 현상과 어느 정도의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4.1.2)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시대가 다른 주거史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속성을 논할 수 있는 연구의 확장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53) Crow J. F., 유전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유전인자는 각 인자형의 기본적인 특성은 유전정보를 간직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것을 전달하는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유전정보는 건축공간으로 유추해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54) Hanson, J., "Decoding Homes and Houses, Cambridge University, UK, 1998




[그림 4-12] 각 시대별 주거공간의 전이과정 요약

하지만 과거의 사례의 경우 우리와 서구는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의 사용측면에서 다른 점을 보였다. 즉, 조선시대의 경우 '실외공간'영역 중심의 주생활에서 현대 아파트 도입과 함께 본격적인 '실내공간'영역 중심의 주생활 패턴으로 변화한 반면에, 서양의 경우 중세시대부터 '실내공간'영역 중심의 주생활이 이루어졌다. 즉 주거공간의 구성 형태와 그 전이과정은 유사하지만 이러한 차이점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일반적인 유사성은 바로 다양하게 분화되는 공간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복도공간 중심화'** 과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 겹집화 과정을 통해 중심공간이 '대청'인 실내공간으로 이동하였고, 다양하게 분화된 실내공간 영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대청공간 및 쪽마루가 그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요구공간의 내부화 과정을 거쳤다. 현대의 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렇듯 서구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아파트 주거공간은 근대건축 이후에 등장하였지만 초기 등장형태에서는 복도공간을 찾아 볼 수 없는 형태(Single layer)였다면 주상복합 아파트(Double layer)의 등장과 함께 다시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주거의 도입과 함께 끊임없는 공간요구의 증대에 따라 전이과정을 거치면서 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시대별 주거의 형태적 전이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복도공간의 중심화 현상은 주거史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본 연구의 확장으로서 '시대를 초월한 유전인자 찾기'를 통해 진행해야 할 후속연구의 여지로 남아있다.

## 4.2. ‘부속공간 증대’ 현상

### 4.2.1.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부속공간 증대’

조선시대 近代初期 부농주거의 커다란 특징은 ‘부속공간 증대’ 현상이다. 조선시대 近代初期 상대적으로 대지의 압박이 커졌고, 공간 이용의 효율성 요구와 실외에서 이루어지던 다양한 생활상이 주거 내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바로 채 내의 부속공간 화 현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조선의 주거가 후대로 갈수록 기능에 따라 別棟化되고 있음을 입증해 왔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초기근대 시기의 특히 채내에서 이러한 기능에 따른 공간적 요구가 내부에서 해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고 있지는 않다. 채나눔 혹은 별동화는 가장 쉽게 주거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임에 틀림없다. 이는 별다른 건축기술적 발전을 전제하지 않으며 단지 대지의 확보와 경제적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전남지방 겹집의 사례를 통해 보면, 안채 내부에서 실분화를 통해 필요공간들을 획득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채나눔을 통한 방법이 아닌 실分化(부속공간 증대) 방법으로 다양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었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옥의 건조기술의 발달에 기인한다.**

**두 번째, 이 당시 대지에 대한 압박감이 존재했다.**

협업의 필요성에 의한 씨족마을의 발달, 인구의 증가로 농촌에서도 대지에 대한 압박감이 존재하였으며, 따라서 ‘채나눔’보다는 겹집화 과정을 통한 채 내의 실分化를 통해 공간적 요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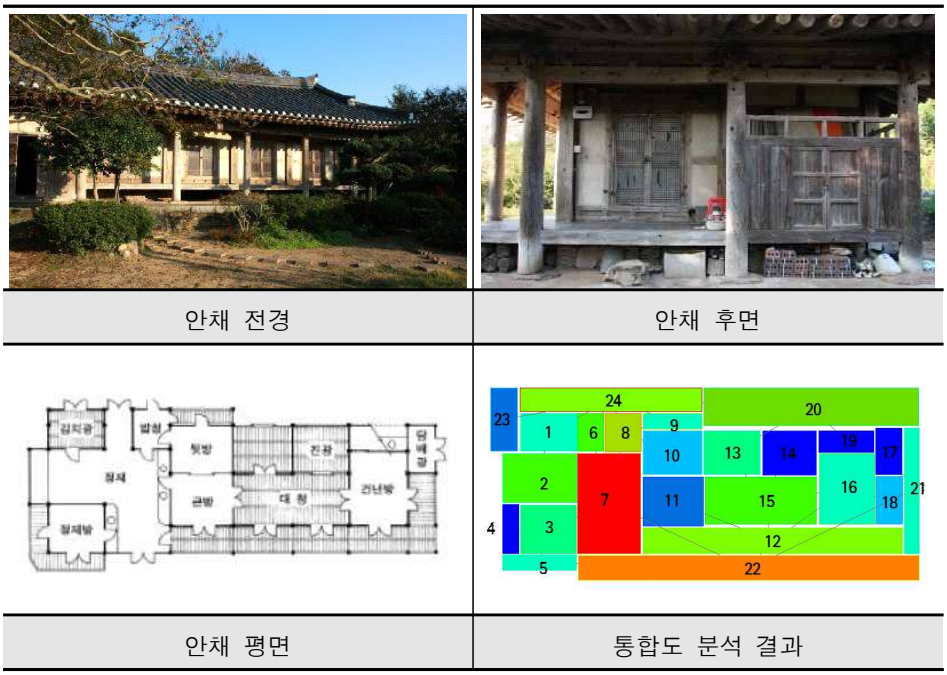
세 번째, 가족구성이 직계가족 중심으로 변화하고, 신분제의 붕괴되는 과정에서 주거 구성원에도 다양한 변화를 추측할 수 있다.[55] 이러한 이유로 채내의 실分化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진화해 나아갔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나주 홍기창 가옥의 경우를 살며보면 전형적인 이 시기의 겹집화 형태를 나타내

55)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기(19C)는 이미 신분제가 의미를 잃고 계급제로 이행되었다고 보고, 그 기반이 농업이라는 의미에서 상류층(부농)으로 칭한다.

* 갑오경장(1984) 이후 공식적으로도 신분제는 폐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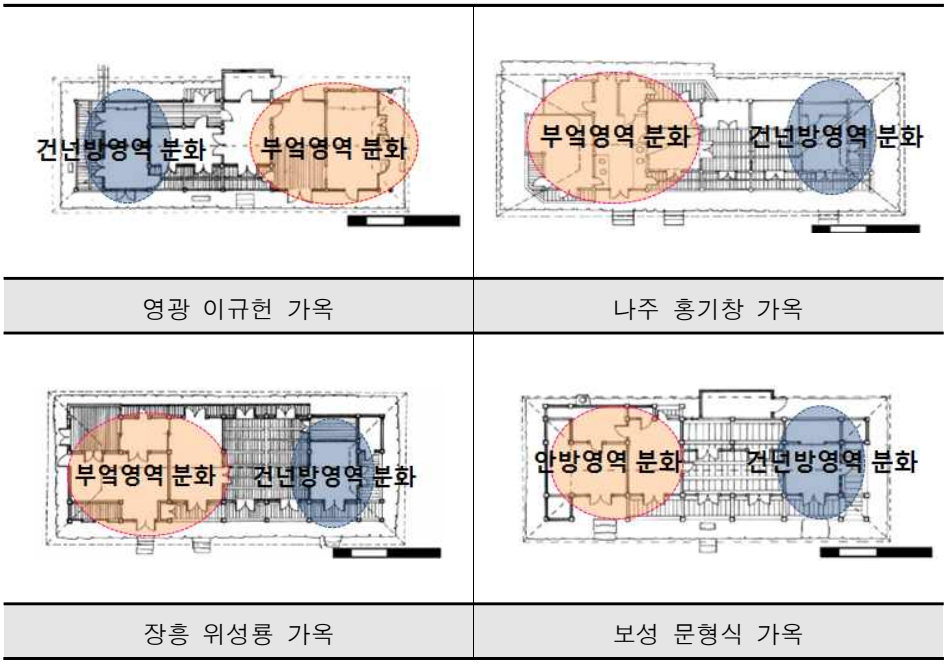
고 있다. 안살림을 담당하는 큰방영역과 뒷방영역으로의 분화, 대청공간의 중요성이 증대 되면서 대청공간이 전면 툇마루와 전후로 분화되는 특성을 살펴볼 수 있고, 후면에 발생하는 김치광, 밥청 등의 공간은 부엌과 안방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가사노동을 배려하려는 노력이 평면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적 특성은 가사노동이 점차 채내로 통합되는 初忌近代 시기의 경향과 부합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4-13] 나주 홍기창 가옥의 안채 구성과 통합도 분석

나주 홍기창 가옥의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위상학적으로 안방영역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지(부엌) 영역이 통제도(공간의 연결정도)와 통합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안채의 겹집화 현상에 따른 다양한 기능의 수용에서도 안방+부엌 영역이 채내의 중심공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랑방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넌방 영역은 진입공간에서의 진입은 용이하지만, 안채와의 동선 및 연결관계는 먼 계획 수법을 확인 할 수 있다. 부속공간 증대 현상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홑집형태의 Single layer 주거 형태의 안채구성에서 겹집형태의 안채구성, 즉 Double layer 형태의 주거 형태로 변모함에 따라 안방영역 인접 공간에는 안살림과 관련

된 부속공간이, 건넌방 영역 인접공간에는 건넌방과 관련된 인접공간이 부속공간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와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겹집화 주거의 발생 원인과 상통함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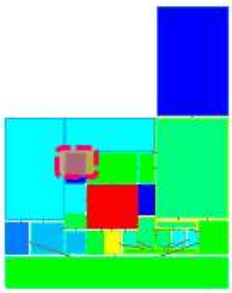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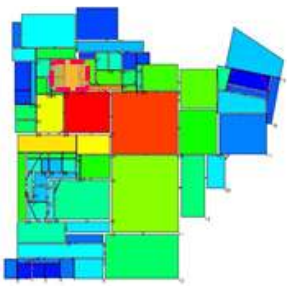

| 영광 이규헌 가옥 | 나주 홍기창 가옥 |
|---|---|
| 장흥 위성룡 가옥 | 보성 문형식 가옥 |

[그림 4-14] 조선시대 근대초기 전남지방 부농주거의 “부속공간 化” 현상

이렇듯 초기근대 전남지방 부농주거는 평면형의 혼용을 통하여 다양한 모습의 실용적인 실 분화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구조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 즉 이 지역 가옥들은 폭 방향으로의 확장 의지와 이에 대한 결과가 시대의 경과에 따라 발전된 평면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속공간 증대 현상으로 인접한 공간과의 제어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안채내 사례의 안방영역과 부엌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통제도(Control Value)분석을 실시하였다.[56]

56) 통제도(Control Value)는 바로 옆에 이웃한 공간의 수, 즉 동선을 공유하는 공간의 수와 직접 결부된다. 다시 말해 해당 공간을 둘러싼 국지적 동선분포를 보여준다. Hillier, B. & Hanson, J.,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ersity, UK, 1984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1.2장 참고

[표 4-12] 조선시대 상류주거 통제도 분석 결과

| | | 홑집 | | 겹집 | | P값 |
|---|---|---|---|---|---|---|
| | | 통제도 평균값 | N | 통제도 평균값 | N | |
| 안채영역 | 안방 | 0.881857 | | 1.363461 | | .039 |
| | 부속공간 | - | | 웃방, 작은안방, 고방 등 | | |
| | 부엌 | 0.928955 | | 1.678445 | | .002 |
| | 부속공간 | | | 정지방, 밥청, 광 등 | | |
| | 사례 例 | | | | | |
| | | 관가정 안방영역 | | 나주 홍기응 가옥 안방영역 | | |
| | |  | |  | | |
| | | 가옥 전체의 통합도 분석 | | | | |

안채영역 內 안방을 기준으로 통제도 분석결과 홑집구성보다 겹집구성에서 현저하게 증가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안채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안채에 포함된 안방의 통합도가 따라서 증가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고, 또한 안살림권이 강화되면서 주변 통제공간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안방을 기준으로한 통제도 값의 증가 현상은 안채의 겹집化 즉, 홑집에서의 전이과정에 따른 다양한 대·내외적 이유에 기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4.2.2.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 주거공간의 '부속공간 증대'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서도 다양한 실 분화를 통한 '부속공간 증대'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앞서 정의한 공간구분에 따라 영역에 대한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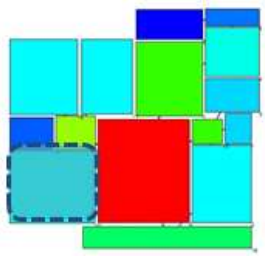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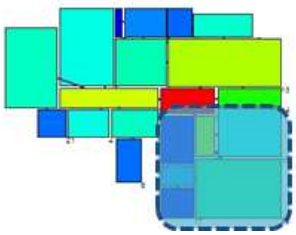
[표 4-13]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의 공간 정의 및 부속공간 분류

| 공간구분 | 실례 | 공간정의 | 주생활 |
|---|---|---|---|
| 사적영역 | 방, 욕실 | Private한 공간으로 취침, 개인용무 등사적인 공간 | 취침, 개인용무 |
| 공적영역 | 거실 | 갈수록 중요성 및 활용도가 증대되는 공간으로 가족 커뮤니티 공간 | 커뮤니티 |
| **부속공간 영역** | **Powder, Dress, Family-room,** |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 생겨난 공간** | **다용도** |
| 서비스 영역 | 발코니 | 외부 조망 및 다용도 공간 | 외부조망, 다용도 |
| 외부영역 | 현관 앞 공간, 정원 | 입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 친교 공간 | 산책, 사회 |

200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실分化를 통해 다양한 부속공간들이 탄생한다. 특히 사적영역에 부속공간의 탄생이 활발한데 드레스룸, 파우더룸, 개인서재 등이 개인침실과 연결 관계를 보이며 생겨난다. 또한 반공적영역으로써 가족실의 탄생이 흥미롭다. 이렇듯 다양한 부속공간의 탄생은 본 연구에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 생겨난 공간'으로 규정한다. 사적영역에서 침실을 기준으로 활발하게 탄생하는 부속공간들과의 관계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통제도 분석(Control Value)을 하였다.[57]

57) 본 연구의 2장(2.1.3. 분석지표 및 도구)에서 설명했다.

[표 4-14]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 통제도 분석 결과

| | | 판상형 아파트 | | 주상복합 아파트 | | P값 |
|---|---|---|---|---|---|---|
| | | 통제도 평균값 | N | 통제도 평균값 | N | |
| 안방영역 | 안방 | 1.034953 | 20 | 1.778232 | 20 | .039 |
| | 부속공간 | 안방화장실 | | 드레스룸, 파우더룸, 개인서재, 개인욕실 | | |
| | 식당주방 | .672677 | | .0.985547 | | .460 |
| | 부속공간 | 다용도실 | 7 | 다용도실 | 20 | |
| | 사례 | | | | | |
| | | 압구정동 구현대 7차(1978) | | 삼성동 아이파크(2004) | | |
| | |  | |  | | |
| | | 통제도 분석 | | | | |

통제도 분석결과 부부침실 영역을 기준으로 증가폭이 커진 결과 값을 확인 할 수 있다.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의 경우 부부침실은 전용욕실 혹은 전실 정도의 소수의 부속공간이 존재했다. 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부속공간이 생겨났는데, 특히 사적영역 즉 부부침실에 연결되는 부속공간의 등장이 가장 활발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전이과정에 따른 결과로 드레스룸, 파우더룸, 개인서재, 개인욕실 등 **'Layer'의 증가 현상**과 함께 부부침실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제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4.3. 실내공간 內 영역의 기능적 분리

### 4.3.1.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안채 內 기능적 분리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주거의 범위는 상당이 넓었다. '채나눔'을 통한 가옥구성에서 안채, 사랑채, 문간채, 행랑채 등 활발한 '채나눔'과 채와 채 사이의 전이공간과 마당들 까지 모두 한 주거의 범위를 통칭하게 된다. 하지만 조선시대 近代初期로 진입하면서 주거의 범위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내밀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로 변모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당시 주택의 배치 평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시기 주택이 안채의 확장에 따라 다양한 요구기능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 선정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안채 내의 건넌방영역은 채 內에서 독립된 위치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내밀한 안살림 공간은 건넌방영역에서 단절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면의 구성은 좌로부터 부엌, 안방, 대청마루, 사랑방으로 되어 있는데 부엌과 사랑방 뒤편에 각각 방을 더 만들었다. 또한 이 사례는 전·후·좌·우에 퇴를 둔 것이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후·좌·우 공간별 배려는 안마당의 대외적인 공간(전), 뒷마당의 내밀한 가족만의 공간(후), 부엌과 관련된 공간(좌), 사랑방과 관련된 공간(우)의 다채로운 공간구성을 짐작케 한다.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 보고서, 문화재청, 2006」에 따르면 '사랑방은 안방 대청에서 직접 출입은 하지 않고 측면 출입을 하게 한 것은 서로의 동선을 달리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서술한다.[58] 이처럼 안채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의 통합과 수용이 어떠한 건축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 분석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연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면을 도식화하여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방식은 SACONVEX V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59]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간의 연결관계 분석 및 특정 공간영역에서 특정 공간영역까지의 공간심도를 구하고, 이러한 분석지표를 다이어그램 화 하였다.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하여 겹집化된 채 내에서 어떻게 동선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간영역이 기능적으로 나뉘어지는지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작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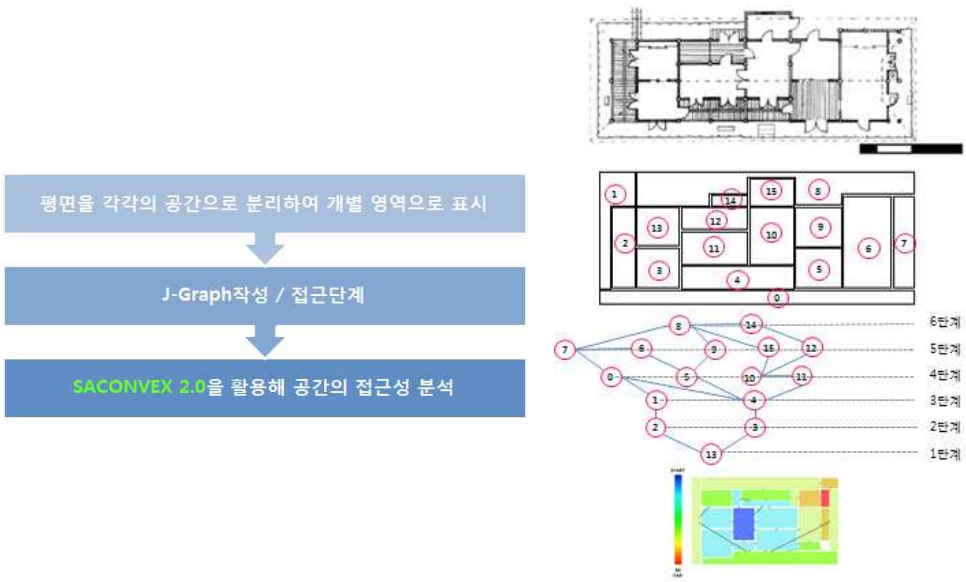
58)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 보고서', p.62

59) SACONVEX V2.0 프로그램은 김민석 박사가 개발하였다.(서울대학교 박사졸업, 2010)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간간의 연결과계 및 특정 공간영역에서 특정 공간영역까지 공간심도를 다이어그램화 하고, 지표를 산출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진행하였다.

먼저, 수집한 22가구 사례의 안채를 분류하여 어느정도 유사한 평면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그 후, 공간의 영역별로 번호를 매기고 J-Graph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기준공간을 설정한 후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준공간으로부터 공간심도의 값이 각 공간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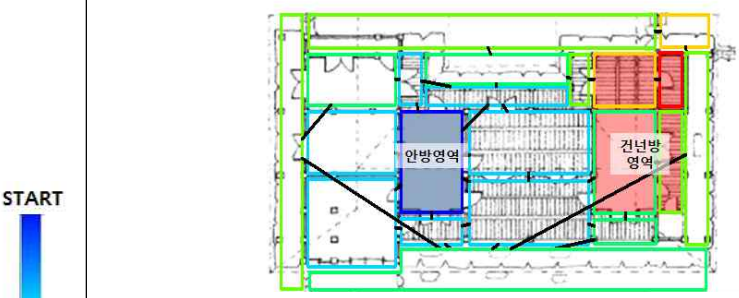
[표 4-15] 채 내의 영역의 기능적 분리과정 분석

| 나주 홍기창 가옥의 안채 분석 과정 |
| --- |
|  |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겹집化과정에 따라 '채나눔'이 기법이 약화되고 안채가 사랑채보다 공간위상 및 기능적 우위에 있게 됨에 따라 사랑채 기능을 수행하였던 영역이 점차 겹집化된 안채로 통합되어 '건넌방'영역이 사랑방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의 연장선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안방과 부엌을 포함한 '안살림영역'과 외부 손님들이 드나들 수 있는 대청 및 건넌방영역의 구분이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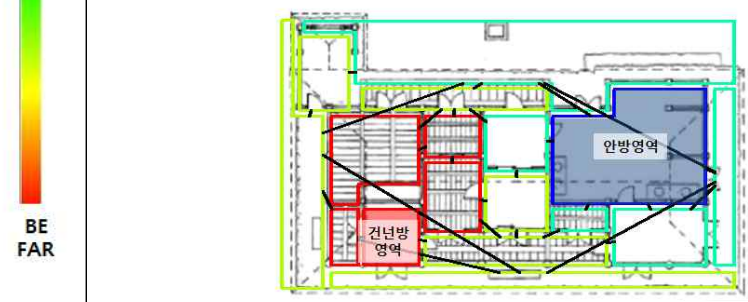
따라서 위에 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채 내 영역의 분리정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ACONVEX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해보았다.[60] 채 내의 안살림과 관계된 안방영역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랑방역할을 하

게 되는 건넌방 영역의 분리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방영역에서 건넌방영역까지의 공간심도(Point Depth)값 : **4.50**

보성 이용우 가옥




안방영역에서 건넌방영역까지의 공간심도(Point Depth)값 : **3.00**

무안 박봉기 가옥

[그림 4-15] 채 내의 영역의 기능적 분리과정 분석 1.(안방기준)

위의 이용우 가옥 사례의 분석결과를 보면 안방영역에서 건넌방 영역까지 총 4단계를 거쳐 이동하게 된다.(안채사례 전체 평균값: 4.50) 건넌방 영역은 우측에 따로 퇴공간 및 진입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채내의 남과여, 혹은 대내·외적인 공간이 성공적으로 분리됨을 확인할 수 있다.

60) SACONVEX 2.0은 김민석 박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써 단위공간 내의 공간영역간의 거리를 가시화 하여 표현한다. 기준공간은 '파란색'으로 표현되고, 기준공간으로부터 먼 공간일수록 '붉은색'으로 표현된다. 또한 이러한 값은 Point Depth값으로 지표화 하여 산출되는데 이 값의 단위는 한 개의 공간을 거쳐갈 때마다 수치 1씩 증가하여 표현된다. 즉 1번공간에서 2번공간 까지 이동하는데 거치게 되는 단위공간이 4개이면 Point Depth 값은 '4'로 지표화되어 표현된다.

START

BE FAR

건넌방영역에서 안방영역 까지의 공간심도(Point Depth)값 : 5.50

보성 이종선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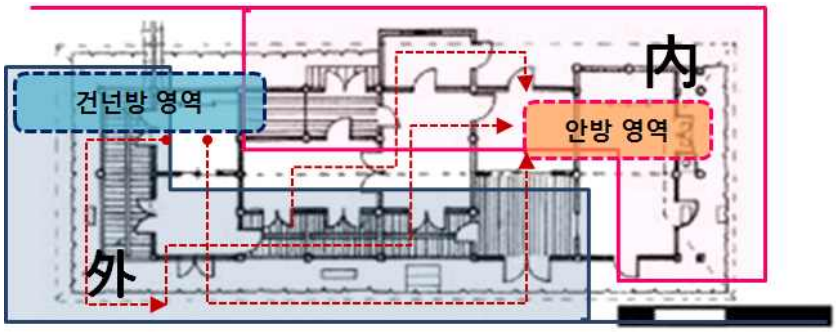
건넌방영역에서 안방영역 까지의 공간심도(Point Depth)값 : 5.50

장흥 위성탁 가옥

[그림 4-16] 채 내의 영역의 기능적 분리과정 분석 2. (건넌방 기준)

건넌방을 기준공간으로 분석해본 결과 또한 비슷하다. 보성 이종선 가옥의 경우 건넌방에서 안방영역까지 이동하고자 할 경우 전퇴 혹은 외부공간을 거치지 않고는 이동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도록 계획되어있다. 이처럼 폭방향으로 넓어진 겹집化 된 가옥에서는 조선시대 사회상이 반영된 주생활의 행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서 조선시대 근대초기 전남지방 부농주거의 안채는 겹집化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동선구분을 통해 남성중심의 대외적인 공간인 건넌방 영역과 여성중심의 대내적인 안살림 공간 영역을 성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사례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으로 대표된다. 즉 여성중심의 내밀한 안방영역과 남성중심의 대외적인 건넌방영역이 기능적으로 채 내에서 분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겹집으로의 전이과정을 통한 물리적·형태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 주거내의 속성 또한 변화하여 진화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그림 4-17] 채 내의 영역의 기능적 분리

따라서 이어지는 4.4장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며 수용해 나아가는 '안채'의 공간내의 영역별 구성의 특징과, 남성과 여성, 가족과 내방객 등 각각의 주체별 동선관계 및 공간 연결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또한 '홑집'에서 '겹집'구조로의 전이과정을 통해 Family-Life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다. 겹집化 현상이 가장 뚜렷한 안채가 다양한 요구기능을 통합해 가는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았고, 이러한 현상이 아파트 도입과 함께 새로운 전이과정을 통해 보여지는 유사한 관계성에 주목하며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했다.

### 4.3.2.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기능적 분리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 역시 전이과정 이후 단위공간이 기능적으로 분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도입과 함께 나타난 LDK평면 형태의 경우 아래 [그림 4-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거실을 중심공간으로 방들이 둘러싸는 단순한 평면구성의 속성을 유지한다. 이 시기에 나타난 사례는 거실과 복도공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고, 사적공간인 방으로의 이동 또한 공간의 전이단계가 매우 단순했다. 따라서 공·사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이어질 PD(Point Depth)분석을 통해 각 공간까지의 전이단계 지표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8] 주상복합 아파트의 실내공간 영역의 기능적 분리

**판상형 아파트**

START

BE
FAR

**영역별 최대 거리 Point Depth 값: 7.00**
**사례 전체평균 값: 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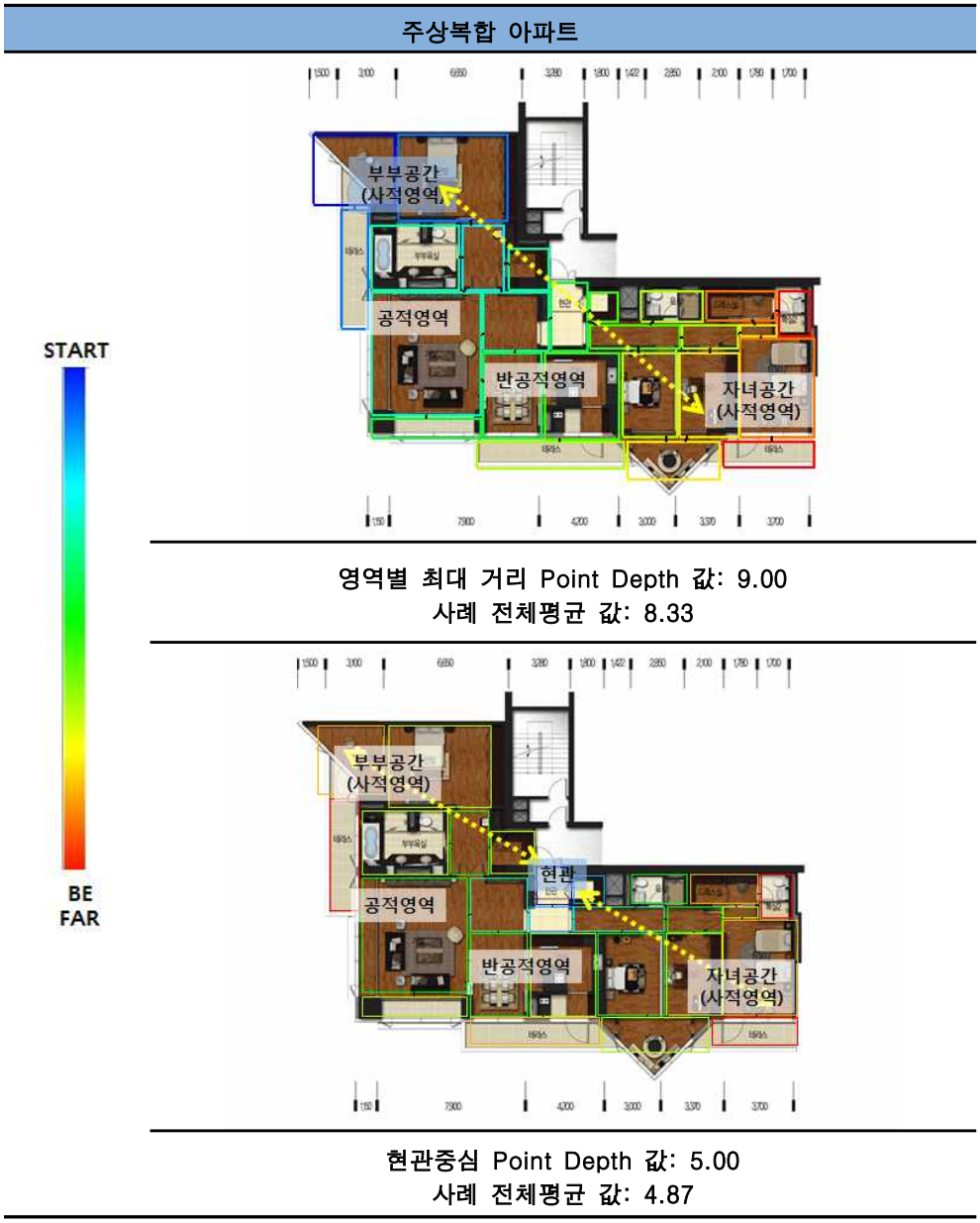
**현관중심 최대 거리 Point Depth 값: 4.00**
**사례 전체평균 값: 4.27**

[그림 4-19] 삼성동 홍실 아파트 Point Depth 분석 (by SaConvex2.0)

위의 판상형 아파트의 PD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홍실 아파트의 경우 현관에서 가장 거리가 먼(심도가 깊은) 공간까지의 거리가 4단계에 불과하다.[61](전체 평균값: 4.27단계) 이처럼 대형평면임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간의 전이단계가 깊지 않은 이유는 거실을 중심으로 방들이 둘러싸고 있는 단순한 'Single Layer'형태의 주거공

61) 분석결과 모든 사례가 현관에서 가장 먼 공간은 부부침실 내 전용욕실로 쓰이고 있었다.

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면 형태에서는 거실로부터 3단계를 넘지 않는 심도에 모든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영역이 기능적으로 분리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0] 더 샵 센텀스타 평면 기준 공간별 Point Depth 분석 (by SaConvex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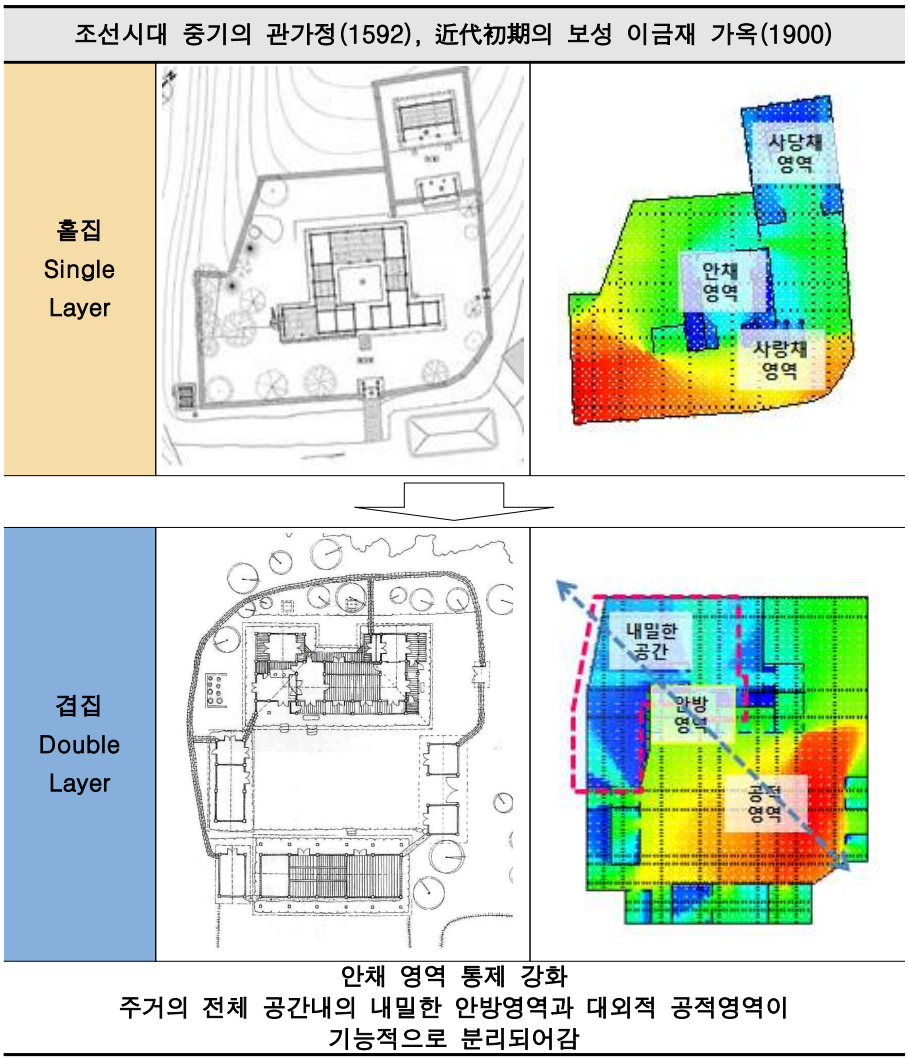
위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현관을 기준으로 가장 깊은 공간의 깊이가 5.00(평균: 4.87)로 비슷한 평형대의 판상형 아파트보다 공간 심도가 깊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부영역과 자녀영역의 공간 분리현상(PD값: 9.00 / 평균: 8.33)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처럼 공적공간을 가운데 계획하고 양측 공간을 분리하여 사적공간이 기능적으로 분리되도록 두는 기법이 현재 주상복합 대형아파트의 규범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복도공간 및 전실 등 전이공간을 활용하여 영역별 공간심도를 조절하고 있다.

해당사례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겹집化 현상과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전이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영역의 기능적 분리'현상을 확인하였다. 즉 조선시대 近代初期 겹집의 경우 겹집化가 진행된 안채가 다양한 요구기능을 수용·통합 하면서 채내의 성공적으로 영역을 분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서도 복도공간과 새롭게 생겨나는 부속공간을 통하여 공적·사적영역이 기능적으로 분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통해 시대상에 따라 거주자의 요구기능을 수용해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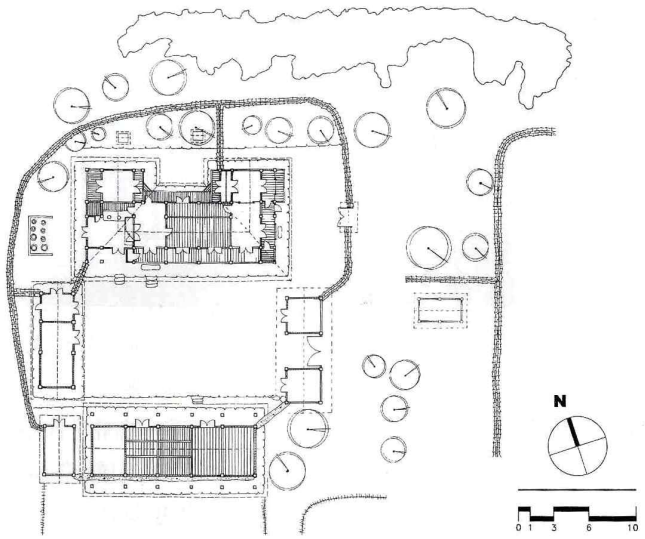
## 4.4. 평면형태의 전이과정 이후의 발생되는 Family-Life 변화

### 4.4.1.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Family-Life 변화

겹집구성에서 홑집구성으로 전이과정을 거치면서 주거내 가족 구성원들의 Family-life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를 '채나눔'을 통해 공간을 이용하는 홑집구성에서 '내부공간 化'를 통한 겹집구성으로의 전이과정에 있어서 주생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21] 홑집에서 겹집으로의 전이과정에 따른 VERAM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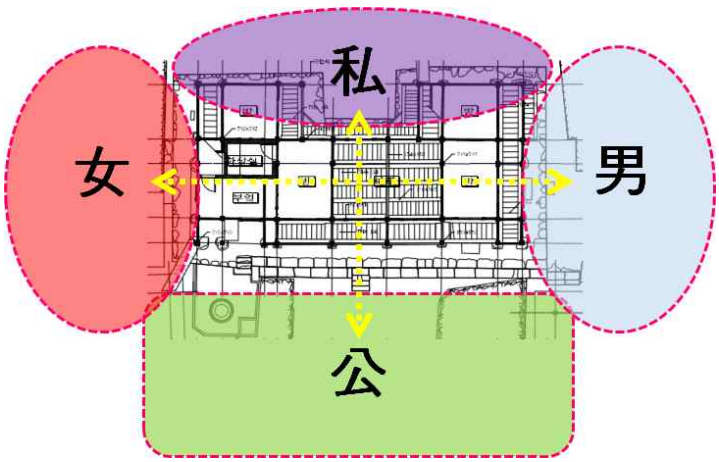

[그림 4-22] 보성 이금재 가옥 배치 평면도

조선시대 중기 '채나눔'을 통한 가옥구조의 사례의 경우 그림[4-20]에서와 같이 사랑채, 안채, 행랑채, 사당채 구성에 따라 공적영역 중심으로 각 채의 영역이 둘러싸며 내밀한 영역을 만들어내는 공간구성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近代初期 겹집주거인 보성 이금재 가옥의 사례를 살펴보면, 문간채를 통해 들어서게 되는 공적영역과 겹집化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통합·수용하게 된 안채영역, 안채영역 후면에 마련된 내밀한 가족중심의 공간으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확인한 공간구성은 가옥영역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진입공간, 공적공간, '채'공간, 내밀한 공간으로의 공간구성의 규범을 보이게 된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이 지역에서 보이는 겹집사례 중 凹자형 주거에 대한 선행연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62]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 중 전남 보성군의 예동마을과 강골마을에 소재한 이용우 가옥과 이금재 가옥이 바로 해당 형태의 평면형을 보인다. 위 연구에서는 이러한 평면 형태를 가지는 사례는 본 연구에서 전제하는 진화론에 입각한 전이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해당 사례의 태생기원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당 가옥의 실제 쓰임새와 그 Family-Life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서술해보고자 한다. 이금재 가옥은 안마당을 마주하고 안채와 사랑채가 채를 같이 사용하는 가옥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 또

62) 전봉희, 全南 寶城 地域의 凹字形 住居에 관한 硏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8

한 겹집化에 따른 요구공간의 내부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금재 가옥은 사랑방을 포함한 우측면 공간, 안살림과 관계되는 좌측면 공간, 공공성과 가족성의 내밀함이 대비되는 전·후면 공간구성의 흥미로운 공간구성을 보여준다.[63] 이러한 구성은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과 함께 밝혔던 공간영역의 기능적 분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23] 보성 이금재 가옥 남·여·공·사적인 영역의 기능적 분리

이러한 영역의 기능적 분리현상은 한 단위주거 내에서 시대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양상으로 간주된다. 즉 조선시대 중기의 경우 이러한 기능적 분리를 '홑집' 구성을 중심으로 '채나눔'을 통해 방대한 대지를 활용해 구축해 나아갔다면 조선시대 近代初期의 나타난 위 사례와 같은 겹집가옥에서는 제한된 대지 내에 공간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채' 내·외부의 공간을 활용해 당시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반영된 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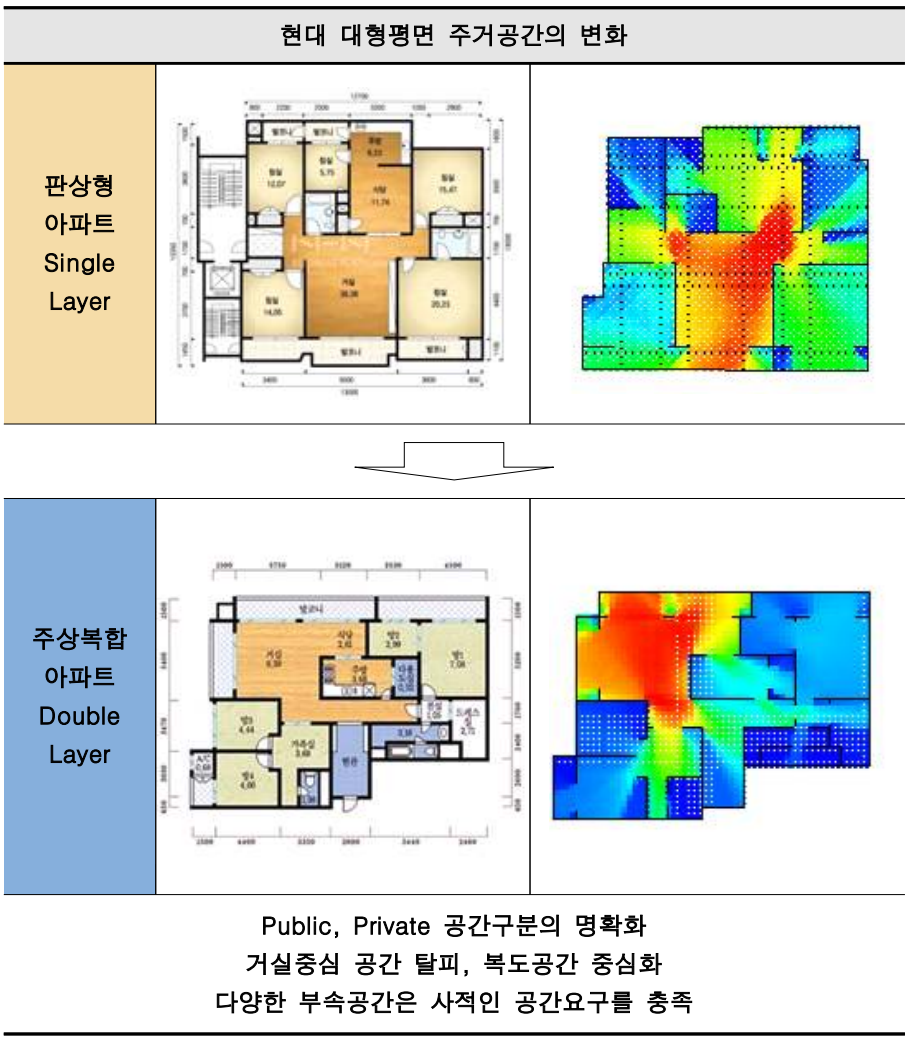
63) 위의 논문, p.172

[그림 4-24] 보성 이금재 가옥 안채 정면, 배면, 우·좌 측면 사진
(출처: 한국의 전통가옥, 중요민속자료 기록화보고서 제13호, 문화재청,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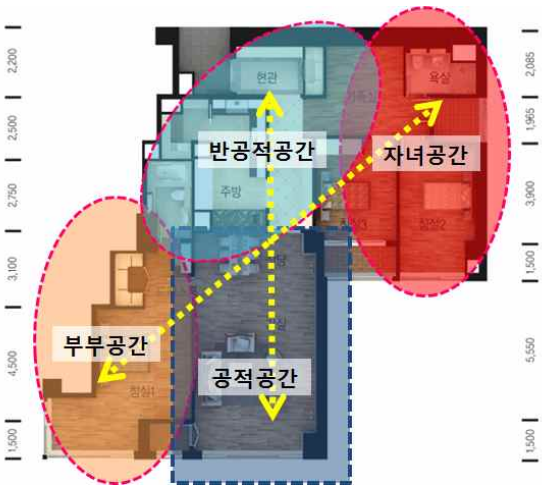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이금재 가옥의 안채구성은 전·후·좌·우 사방의 공간과 영역을 활용해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듯 조선시대 近代初期 전남지방 부농주거의 경우 겹집화 과정을 통해 폭 방향으로 넓어진 안채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격의 공간영역을 구성함으로써 당시 거주자의 공간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 4.4.2. 현대 대형아파트 주거공간의 Family-Life 변화

현대 대형아파트 주거공간 역시 전이과정을 통해 Family-Life의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판상형 대형아파트의 경우 거실공간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례가 현관에서 가장 먼 공간은 부부침실 내 전용욕실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계획기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되며, 그 기능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5] 판상형 아파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로 전이과정에 따른 VERAM값 변화




[그림 4-26] 주상복합 아파트에서의 영역의 기능적 분리
(플래티넘 남산, 178.54㎡, 2010)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는 공적공간의 축으로 부부공간과 자녀공간 등으로 분리되는 기법이 일반적 경향임을 알 수 있다. 공적공간이 중간에서 공간을 연계·매개하는 특성을 보이며 부부공간과 자녀공간이 양측으로 분리되면서 상대적 심도가 깊어졌다. 이러한 영역구성을 통하여 단위주거 안에서 다양한 공간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주생활 행태와 구성은 현대의 가족구성과 그 시대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1970, 80년대 대표 주거공간인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면적과 방의 개수가 비례했다.[64] 이러한 경향은 방의 수요가 많았다는 반증인데, 해당시기 공급된 대형평면 판상형 아파트가 제공하는 5,6개의 침실은 이 당시 대가족으로 실제로 거주하는 대가족의 공간요구를 충족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200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면적과 방의 개수가 비례한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핵가족화 된 소수의 구성원의 공간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의 개수가 줄어든 대신 다양한 부속공이 탄생하는 형태로 진화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속공간의 탄생은 거실면적의 감소, 방의 개수 감소 등으로 생겨난 공간이 개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대형평면 아파트 공간의 전이과정을 통하여 시대상 및 거주자의 공간이용 행태 등 다양한 변화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64) 본 연구 4.1.2장에 [표 4-3]에 설명하였다.

## 4.5. 소결

4장에서 연구한 각 시대별 상류주거의 전이과정과 그 관계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공간구성 변화과정이 있었다.**

이는 상류주택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나, 상류주거에서 활발하게 변화특성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홑집(Single Layer)'**구성을 통한 채나눔 구성에서 '겹집' 구성으로의 전이과정에서 홑집의 경우 통합도 지표 값이 **사랑채>안채>문간채>행랑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값을 통해 조선시대 중기 유교윤리관이 반영된 주생활을 짐작해볼 수 있다. 조선시대 近代初期에 나타난 **'겹집(Double Layer)'**주거공간에서는 그 통합도의 값이 **안채>문간채>사랑채>행랑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안채의 위상이 조선후기로 갈수록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대외적인 공간인 사랑채의 경우는 그 위상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 후기 유교윤리관의 약화와 이른바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사상이 주생활에 반영되어 나타났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 주거공간 구성에도 유사한 변화과정이 있었다.**

아파트의 도입과 함께 대표 주거공간 구성으로 자리잡은 **LDK평면 구성(판상형 아파트: Single Layer)**의 경우 통합도의 순위가 **공적영역>사적영역>입구영역>반공적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실을 중심으로 사적영역이 둘러싸고 있는 단순 공간구성임을 증명한다. 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Double Layer)**의 경우 **공적영역>반공적영역>사적영역>입구영역>부속공간영역** 순으로 통합도의 순위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거실이 중심공간에서 벗어나고 대신 다양하게 탄생한 부속공간들로의 이동과, 공적·사적 공간간의 공간 심도를 높이려는 복도공간의 중심화 현상 때문에 여전이 공적영역이 높은 통합도를 보이지만 그 중심엔 '거실'대신 '복도공간'이 위치하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사적영역의 낮아진 통합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복도공간 및 전실 등을 이용하여 공간심도가 전보다 깊어졌음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이는 다양한 부속공간의 가장 낮은 통합도 값은 이러한 부속공간이 사적 공간인 주로 '침실'과 연결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조선시대 상류주택과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이과정의 유사성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Layer의 개념'을 통해 설명이 가능했다.

**조선시대 상류주거의 경우 겹집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부속공간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폭방향으로 충분히 넓어진 내부공간에 기인하는데, 전술한 배경을 토대로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 近代初期에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며, 이렇게 탄생한 **다양한 부속공간을 통하여 거주자의 요구기능을 충족**해 나아감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도 주상복합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부속공간이 탄생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과 함께 탄생하는 드레스룸, 파우더룸, 개인서재, 가족실 등의 공간은 거주자의 공간요구를 충족시켜주며, 부속공간이 가장 활발하게 등장하는 사적영역의 경우 판상형 아파트에 비해 인접하는 부속공간과의 관계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통제도 분석을 통해(1.034953 ⇨ 1.778232)**부속공간과 사적공간이 긴밀한 통제관계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조선시대 상류주거의 겹집화 현상과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은 다양한 부속공간의 탄생을 통해 거주자의 요구기능을 충족시키고 있다.

**조선시대 상류주거는 겹집화 현상에 따라 공간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그에 따라 Family-Life가 변화하였다.**

4.3장의 연구를 통해 안채내의 동선분리를 통해 요구기능을 성공적으로 수용해 나아감을 증명했으며, 안채내의 사랑방의 도입을 통해 **전·후·좌·우의 각각의 공간**을 대외적인 공간, 남성중심의 공간, 여성중심의 공간, 가족의 내밀한 공간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으로 각 공간영역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었다.**

종전에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에서 보여지는 공·사영역의 단순구분 및 동선의 연결관계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으로 사적영역의 공간심도가 깊어지며 공사영역의 분리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공적영역이 중심에, 부부영역과 자녀영역이 양분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시대별 주거공간의 전이과정을 통해 공간영역이 기능적으로 분리되고 있으며, 거주자의 요구사항이 주거에 반영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 제 5 장 결 론

5.1 연구의 종합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5.1. 연구의 종합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홑집'에서 '겹집'구성으로의 전이과정과, 현대 대형평면 아파트 주거공간의 '판상형'에서 '주상복합'으로의 전이과정을 'Layer 개념'을 도입해 대칭적 구조 해석의 관점으로 정성적 배경과, 정량적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수집된 사례의 평면에 대하여 공간구문론의 통합도, 통제도 지표와 내부공간의 기능적 분리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PD값(Point Depth)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평면형태의 전이과정에 따른 Family-Life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가옥내의 시각적 접근성을 V-ERAM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각 시대별 공간영역 사이의 공간위계변화에 주목하여, 시기에 따른 평면구조의 변화양상을 주목하였고, 연구를 통해 밝혀진 차이와 변화를 가져온 원인에 대하여 다차원적인 해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첫 번째, 평면형태(공간구성) 전이과정과 그 과정간의 유사성이 있었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은 '홑집'구성을 기본으로 '채나눔'을 통한 주거공간 구성에서 近代初期 '겹집화' 과정을 통해 폭 방향으로 넓어진 안채중심의 구성으로의 전이과정을 거쳤다. 현대의 경우에도 아파트의 도입과 당시의 규범이었던 L-D-K 구성은 거실을 중심공간으로 방이 둘러싸고 있는 평면 형태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부속공간의 탄생과 부속공간으로 이동을 위한 복도공간이 중심공간으로 변모했다. 홑집구성에서 보여지는 안방-대청-건넌방의 연결 축은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에서 거실을 중심으로 양측에 방이 둘러싸는 공간구조의 특성상 이러한 현상을 재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겹집구성에서는 안방-대청-건넌방의 공간전이 단계가 단계 중간에 생겨난 다양한 부속공간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깊어진 전이단계를 보여주며, 공·사, 대·내, 남·여의 공간 구분이 뚜렷해진다. 이러한 현상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복도공간과 새롭게 생겨난 부속공간들이 동인이 되어 세대간, 공·사적 영역간 기능적으로 분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전이과정의 유사성을 규명했고, 이러한 현상은 평면 내 '새로운 Layer'가 추가되었다는 관점에서 공통속성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부속공간 증대' 현상을 확인하였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경우 '겹집化'과정을 겪으면서, 채 내의 다양한 부속공간들이 생겨남으로써 거주자의 공간요구를 충족시켰다. 즉 안살림과 관계되는 고방, 뒤주, 밥청, 감실 등의 새로운 요구공간들이 부속공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대 주상복합 대형평면 아파트에서도 평면형태의 전이과정을 거치면서 드레스룸, 파우더룸, 가족실, 개인서재 등 다양한 요구공간들이 부속공간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부속공간 증가'현상의 공통속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실내공간 內 각 영역의 기능적 분리현상을 증명하였다.**

조선시대 近代初期 상류주택의 겹집화 현상이 두드러진 안채내의 영역의 의도적 분리현상을 통해 대외적인 공간인 건넌방 영역과 안살림 공간인 안방영역의 성공적인 분리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대의 경우에도 다양한 부속공간들과 함께 부부영역, 자녀영역, 공적, 반공적 영역 등으로 영역의 기능적 분리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네 번째, 각 시대별 평면형태의 전이과정 이후 발생되는 Family-life 변화양상을 연구하였다.**

조선시대 중기 '채나눔'을 기반으로 한 가옥구성에서는 옥외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졌고, '채'별 공간성격이 극명하게 구분되었다. 4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랑채', '안채', '행랑채', '사당채' 등 각 채의 쓰임새에 따라서 그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면, 近代初期 나타난 겹집 주거공간에서는 안살림이 중심이 되는 '안채중심'의 공간 구성이 이루어지며, 채 내의 다양한 요구공간을 수용해 나아감을 확인하였다. 현대로 넘어와 대형평면 주거공간의 전이과정을 살펴보면, 판상형 대형평면 아파트의 경우 '거실'이 중심공간으로써 대부분의 가족생활이 거실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거실을 둘러싸고 방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와 같은 단순 L-D-K평면은 Public, Private한 공간구분이 불명확하고, 각 공간의 쓰임새 또한 단순 명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에 따라 다양한 부속공간들이 탄생하고 더 이상 '거실중심'이 아닌 '복도공간'중심의 공간구성으로 바뀌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주상복합으로의 전이과정에 따라 생겨난 다양한 부속공간들로의 이동을 위한 복도공간의 공간소요가 증가했고, Public, Private한 공간의 분리가 명확해지기 위한 방편으로써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렇

듯 조선시대와, 현대 상류주택의 전이과정은 다양한 Family-life의 변화 양상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각 시대의 상류주거로서 조선시대와 상류주택과 현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다양한 공간적 의미를 들여다보았고, 주거공간 분석의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로서 각 시대의 주거공간의 속성 및 관계성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흥미로운 점은 조선시대 후기 실分化를 통한 '부속공간 化'(Double layer) 되었던 현상이 현대 아파트 도입(Single layer)과 함께 사라졌다가 주상복합 아파트(Double layer)의 등장과 함께 재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주거양식의 도입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는 공간요구와 형태의 진화로 보여지는 공통속성이라고 판단된다.

##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볼록공간(Convex Space)은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과 값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의 타당성은 여전히 연구의 난제이자 한계로 남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주생활학적인 관점에서의 평면계획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 특성 등의 그 외 계획요소는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상류주택과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간 분석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례를 다룰 수 없고,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사회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주거유형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사례선정에 있어 중기의 경우 경상북도 양동지방을 근대초기의 경우 전남지방 부농주거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조선시대 중기의 경우 홑집중심의 가옥구성 사례가 경상북도 양동마을에서 전성기를 보였고, 이후 근대초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겹집주거의 경우 전남지방에서 활발하게 등장하며 발전하는 겹집구성의 가옥이 전성기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선시대 시기별 주거의 전성기를 보였던 대상 사례를 각각 연구의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상류주택 속성파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다르지만 상류주거라는 공통 속성을 토대로 그 특징과 변화양상, 관계성을 재조명하고, 서양의 주거史와도 그 관계성을 살펴보는 연구의 확장을 시도해봄으로써 시대를 초월한 주거공간 속성의 유전인자를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확장을 통해 앞으로의 주거공간과 전통주거와의 관계성 및 미래 주거공간의 특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및 보고서


-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사, 2000
-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도서출판 아르케, 1999
- 전봉희 권용찬,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도서출판 동녁, 2012
- 정은진,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특성”, 한국학술정보(주), 2006
- 천득염, 전봉희, “한국의 건축문화재(전남편)”, 기문당, 2002
- 최재필, “우리나라 근대 주거의 변화”, 주거론, 대한건축학회편
- 최윤경,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2003
- 한국의 전통가옥, “중요민속자료 기록화보고서 제13호”, 문화재청, 2006
- 한국의 전통가옥, “중요민속자료 기록화보고서 제37호”, 문화재청, 2011
- 「전남의 전통건축」, 전남대학교 박물관·전남대학교, 1999, pp.27～28
- Hillier, B. & Hanson, J.,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ersity, UK, 1984
- Hanson, J., “Decoding Homes and Houses, Cambridge University, UK, 1998

## 학위논문


- 김화봉 조선시대의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박선희, 조선시대 반가의 주생활과 공간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 조영선,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주거공간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윤일이, 조선후기 상류주택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이상은, 주생활과 공간구조와의 관계에 따른 조선시대 상류주택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이진경, 서구의 근대적 주거공간에 관한 공간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 학회논문 및 정기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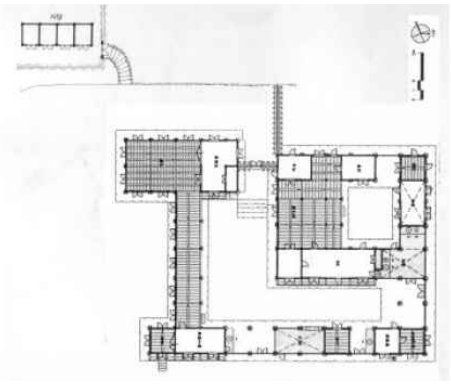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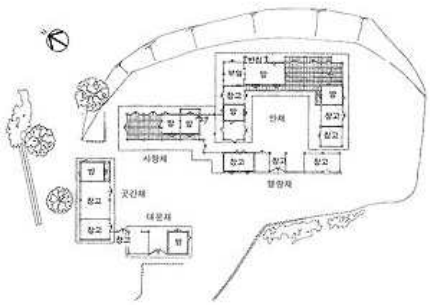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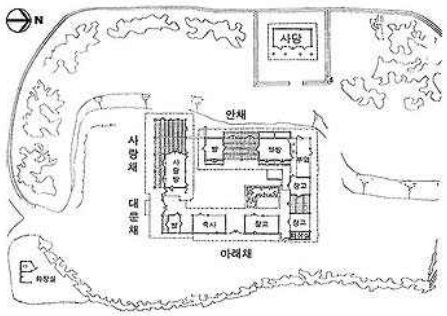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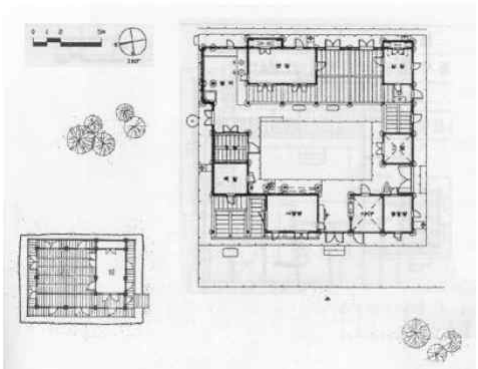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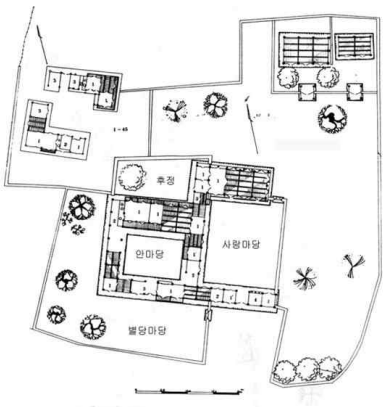

- 강영환, “한국 전통민가 연구의 동향과 과정”, 대한건축학회지 통권 147호, 1989
- 김미경, “최근 분양된 수도권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공간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6권 6호 통권65호, 2007. 12
- 김지민, “전남지방 민가의 안채 평면형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4권 통권44호, 2005. 10
- 서경욱,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초고층 공동주거 공간계획의 특징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2호 통권85호, 2011. 4
- 오혜경, 함민정, “최근 입주된 수도권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본 규모별 실 구성 요구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9권 제5호, 2008. 10
- 이강민, 전봉희, “조선시대 전남지역 부농주택의 평면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0호, 2000
- 이상은, 최재필,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이용한 조선시대 안동지역 상류주택 공간배치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통권108호, 2002. 10
- 장동국, 박강철, “공간구문모델에 의한 한국전통마을 공간구조분석 : 낙안, 하회,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0
- 전경희, 남경숙, “실내 공간에서의 전통의장요소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
- 전봉희, “조선후기 주거사에 있어서 겹집화 현상에 관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6. 10, pp.193～201.
- 전봉희, “全南 寶城 地域의 凹字形 住居에 관한 硏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8
- 조영선,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주거공간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최재필, “공간구문론을 사용한 국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시계열적 분석 수도권 4LDK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6
- 최재필, “한국 현대 사회의 주생활양식의 변화: 수도권 3LDK 아파트 주호 평면계획의 변천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95호, 1996b
- 최재필, 조형규, 박인수, 박영섭, “국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4, pp. 155-164.
- 최재필 외, “국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분석”, 1996년~2002년의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188호, 2004
- 최재필 외, “Visibility ERAM을 이용한 초대형 복합공간의 동선체계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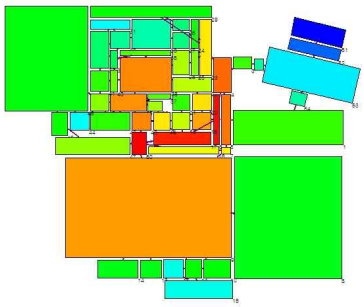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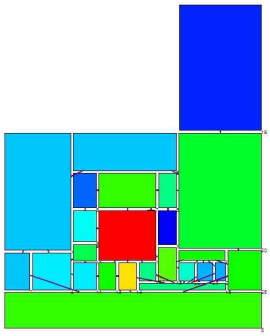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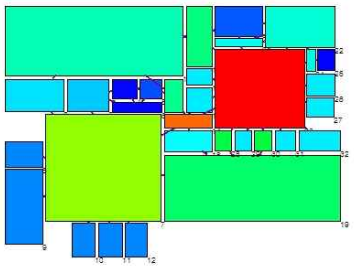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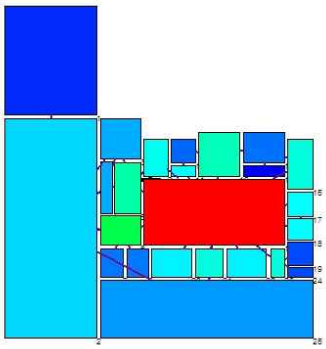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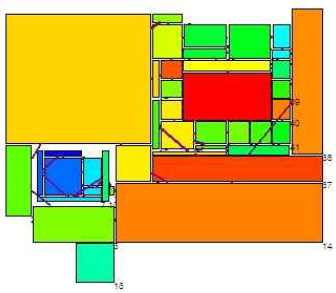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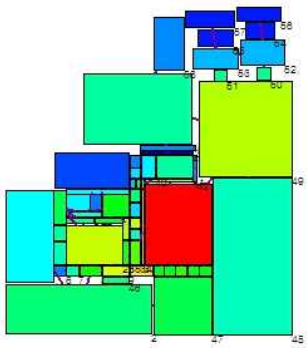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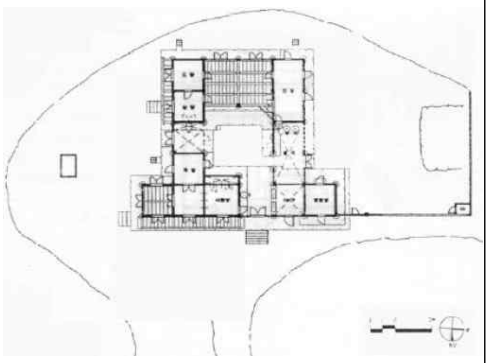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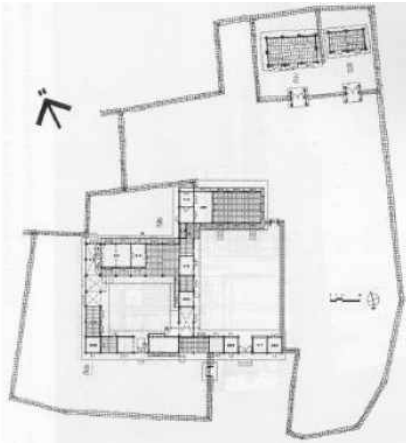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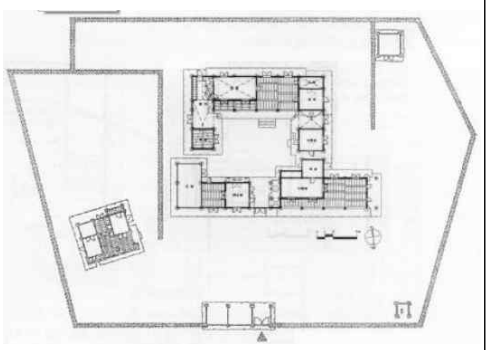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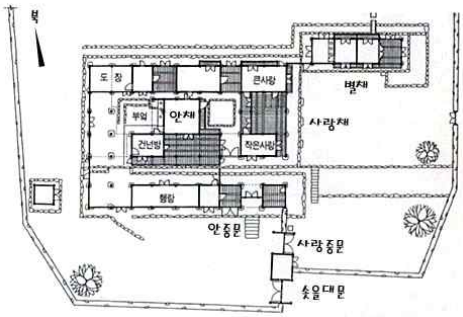
■ 연구대상 도면 및 CONVEX 2.0 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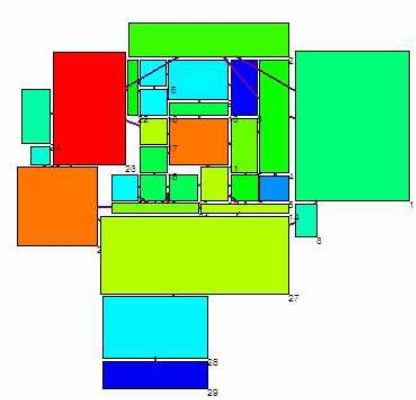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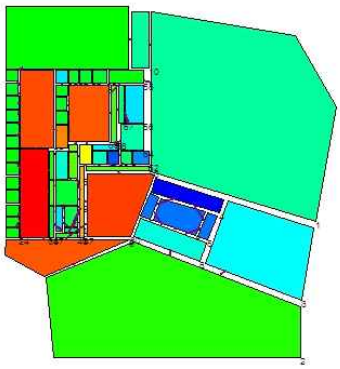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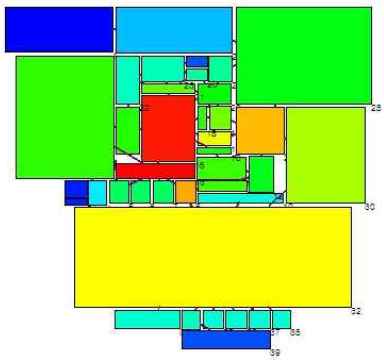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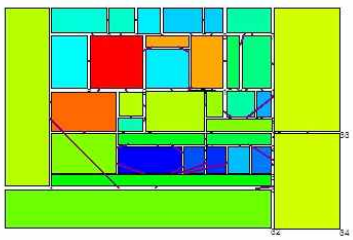
조선시대 상류주택 분석대상 도면자료

| 계서당 | 관가정 |
| --- | --- |
|  | |
| 낙선당 | 수졸당 |
|  |  |
| 쌍벽당 | 양진당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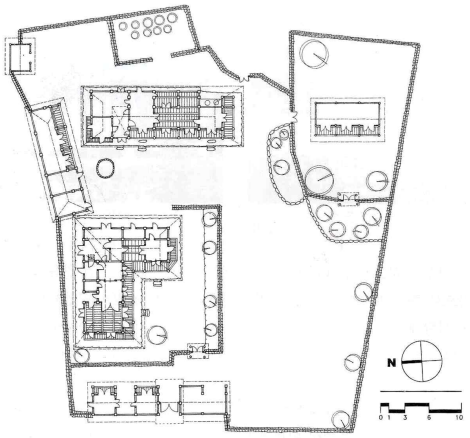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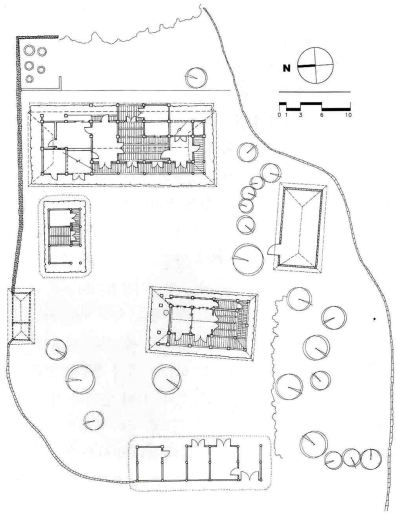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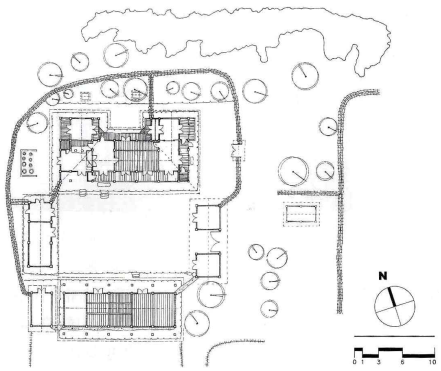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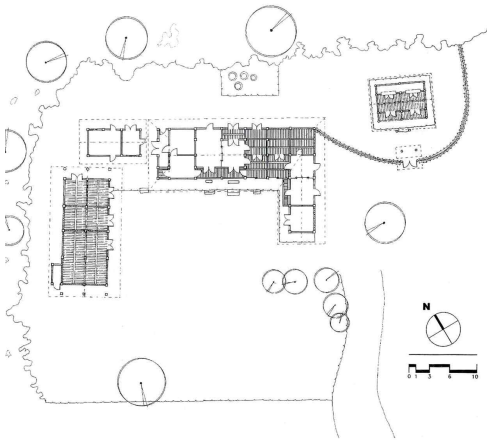
조선시대 상류주택 통합도 분석(중기 / 홑집 / 채나눔 구성)

| 계서당 | 관가정 |
| --- | --- |
|  |  |
| 낙선당 | 수졸당 |
|  |  |
| 쌍벽당 | 양진당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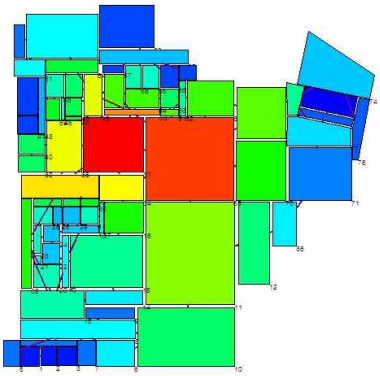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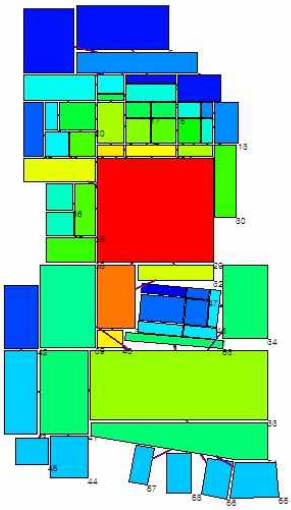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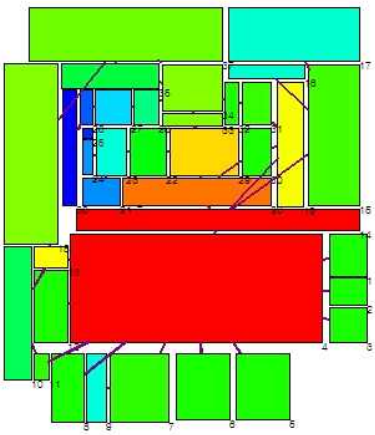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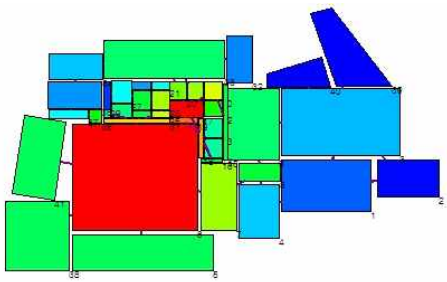
| 조선시대 상류주택 분석대상 도면자료 | |
|---|---|
| 유일재고택 | 충효당 |
|  |  |
| 하동고택 | 향단 |
|  |  |

| 조선시대 상류주택 통합도 분석(중기 / 홑집 / 채나눔 구성) | |
|---|---|
| 유일재고택 | 충효당 |
|  |  |
| 하동고택 | 향단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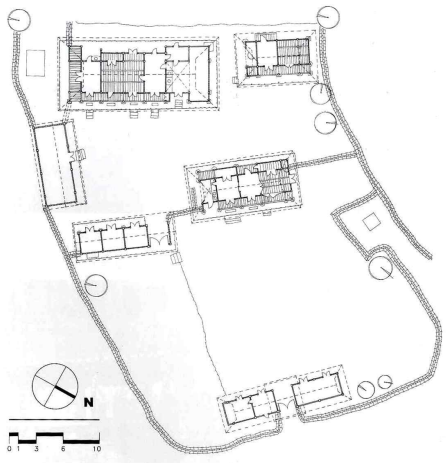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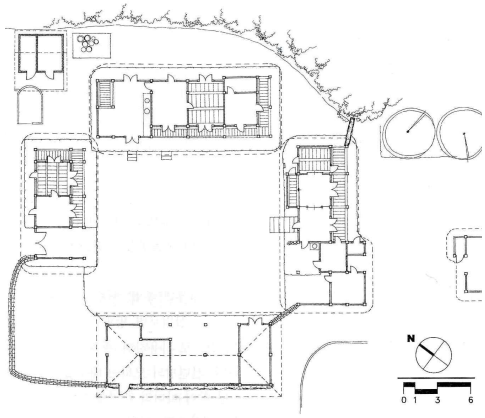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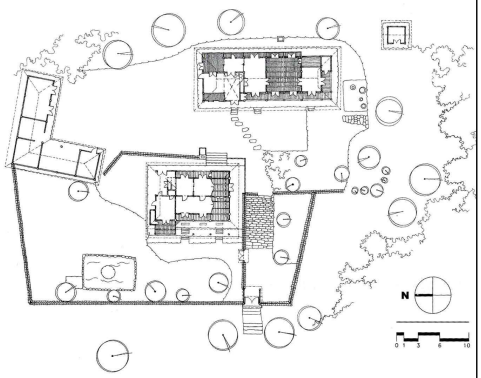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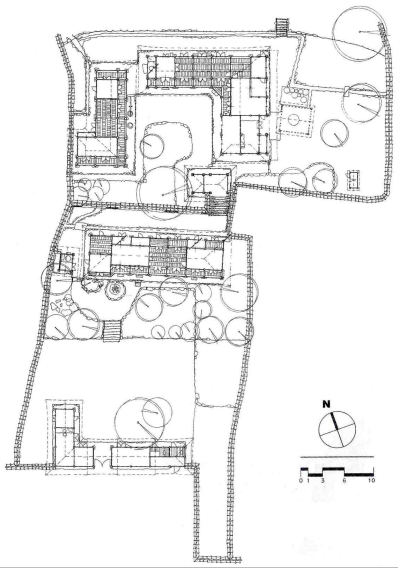
조선시대 상류주택 분석대상 도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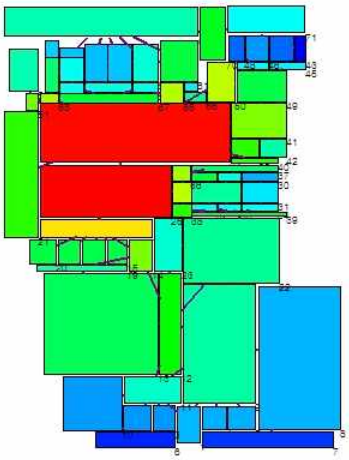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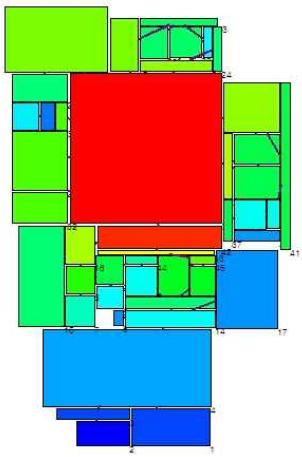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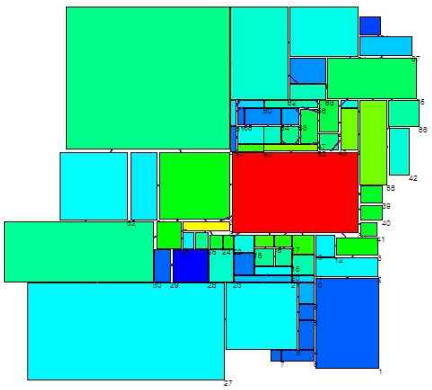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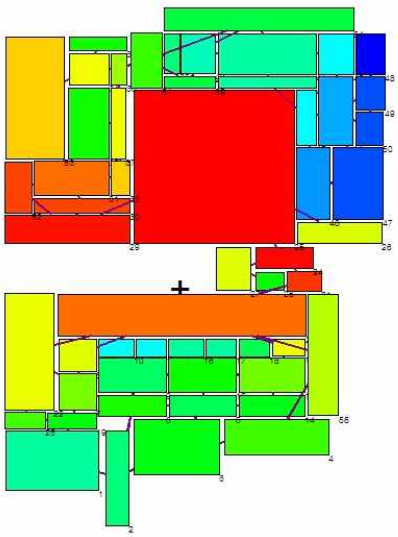
| 나주 홍기응 가옥 | 나주 홍기헌 |
| --- | --- |
|  |  |
| 보성 이금재 | 보성 이범재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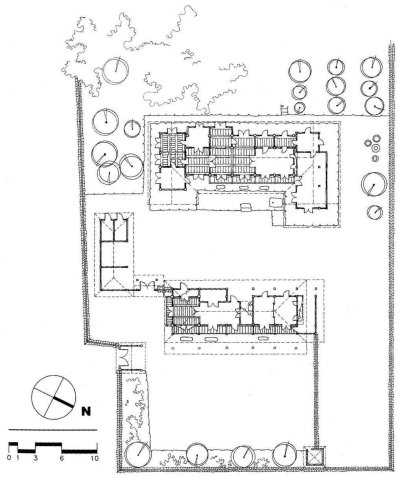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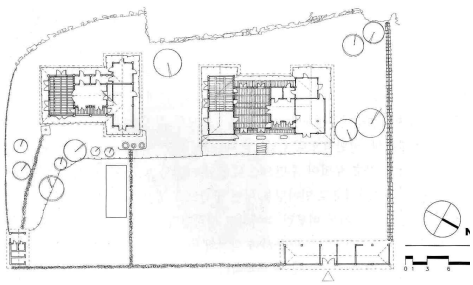
조선시대 상류주택 통합도 분석(후기 / 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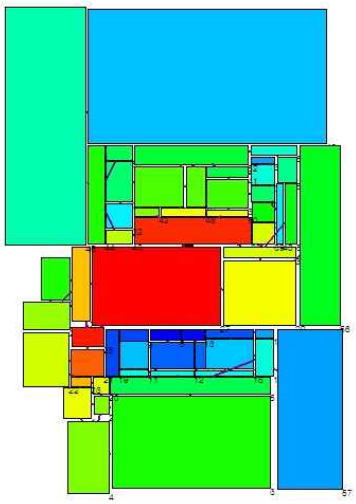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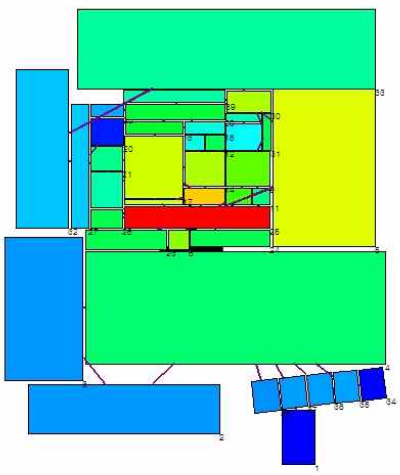
| 나주 홍기응 가옥 | 나주 홍기헌 |
| --- | --- |
|  |  |
| 보성 이금재 | 보성 이범재 |
|  |  |

조선시대 상류주택 분석대상 도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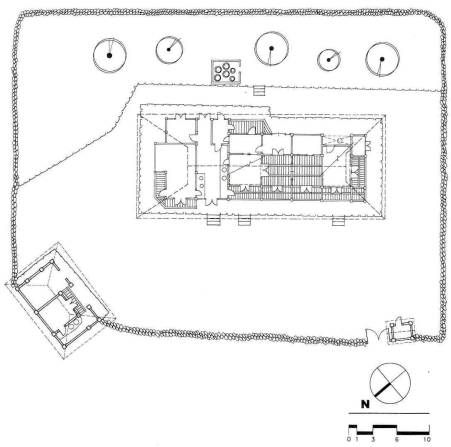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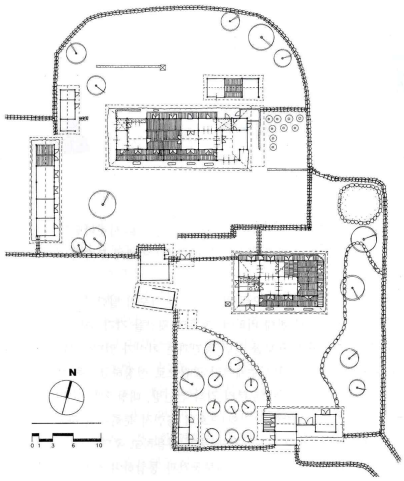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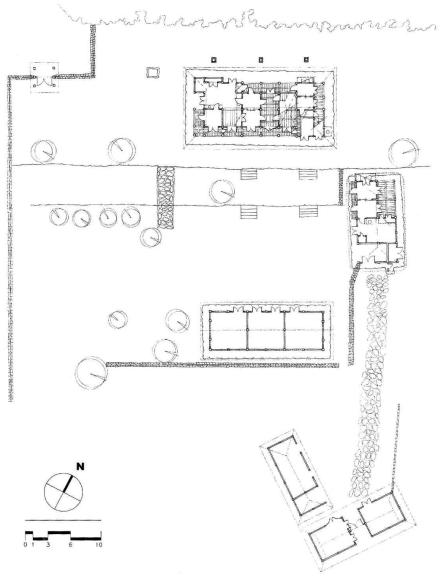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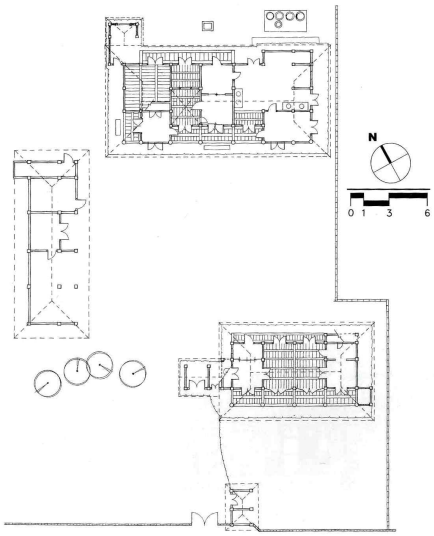
| 나주 이용욱 | 영암 최성호 가옥 |
| --- | --- |
|  |  |
| 장흥 위성룡 가옥 | 해남 윤탁 가옥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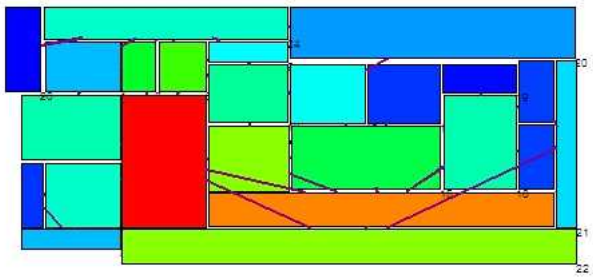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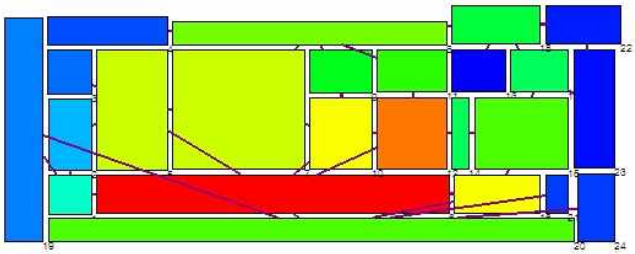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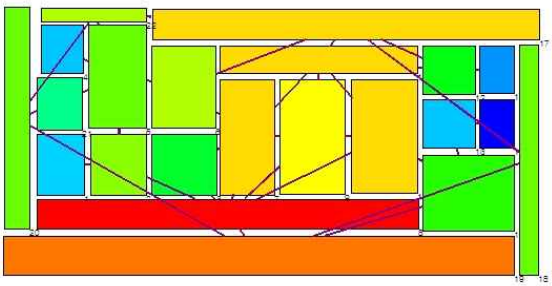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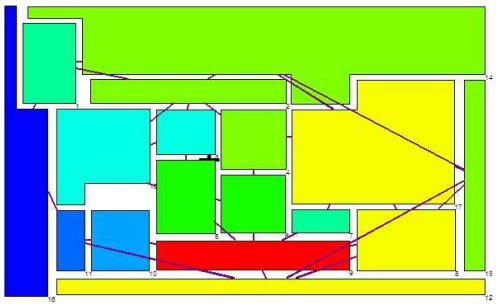
| 조선시대 상류주택 통합도 분석(후기 / 겹집) | |
|---|---|
| 나주 이용우 가옥 | 영암 최성호 가옥 |
|  |  |
| 장흥 위성룡 가옥 | 해남 윤탁 가옥 |
|  |  |

| 조선시대 상류주택 분석대상 도면자료 | |
|---|---|
| 화순 양동호 가옥 | 화순 양승수 가옥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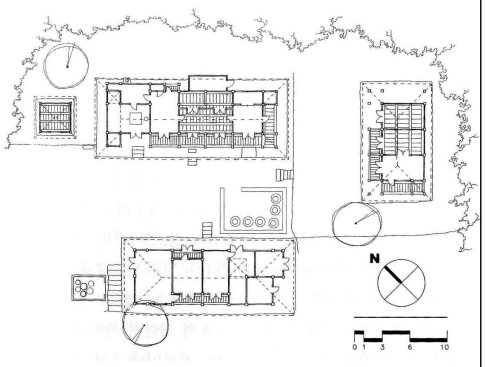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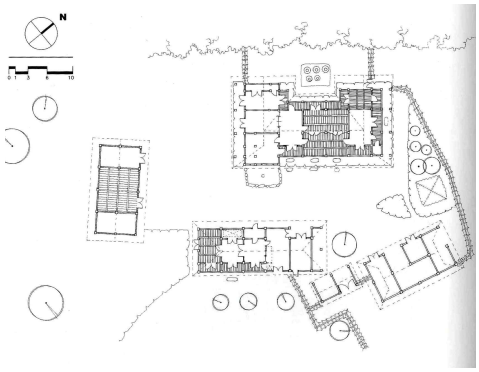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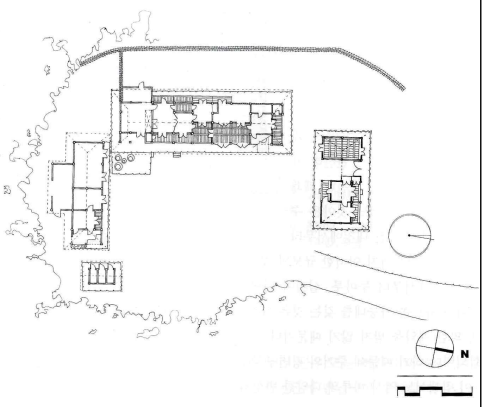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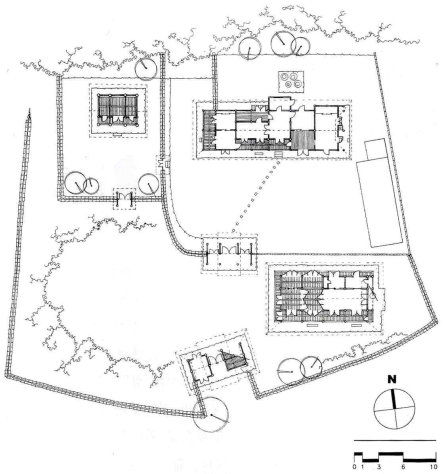
| 조선시대 상류주택 통합도 분석(후기 / 겹집) | |
|---|---|
| 화순 양동호 가옥 | 화순 양승수 가옥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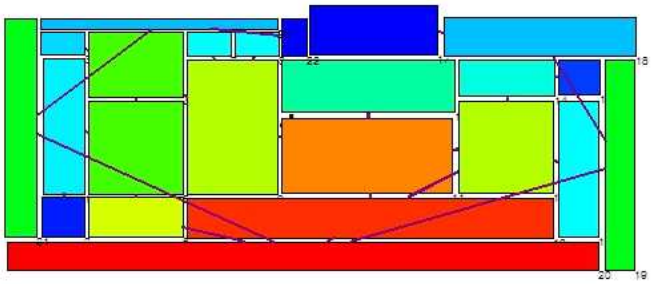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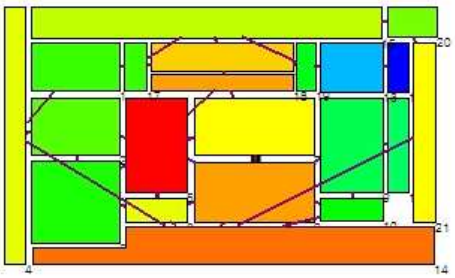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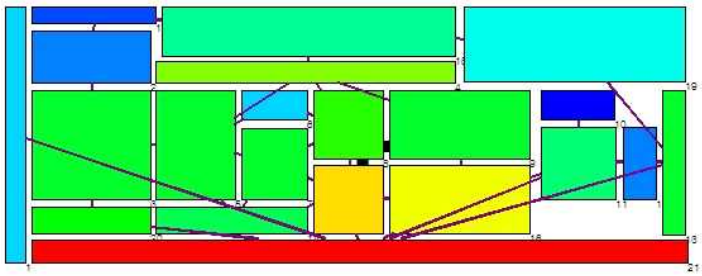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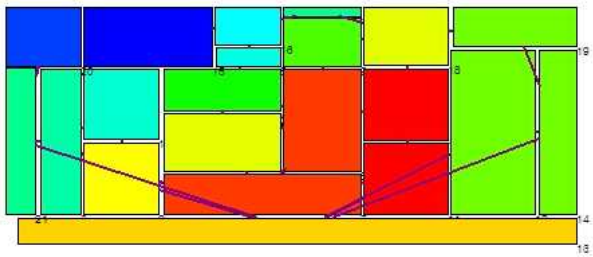
조선시대 상류주택 분석대상 도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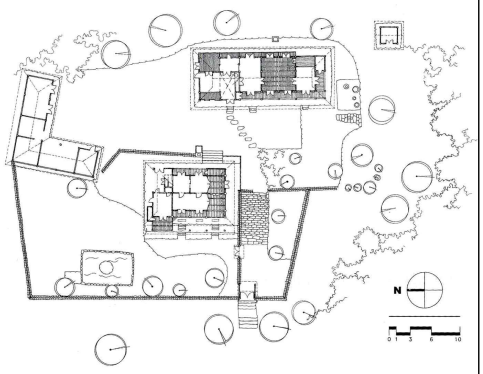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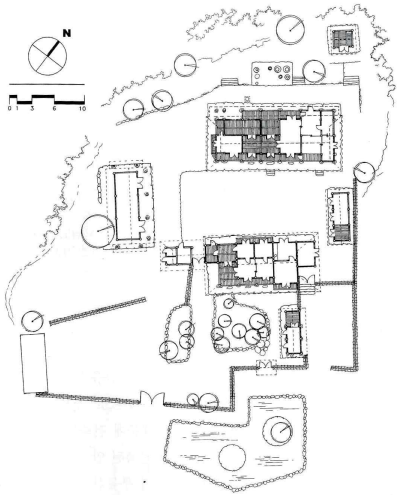
| 나주 홍기창 가옥 | 담양 고재선 가옥 |
| --- | --- |
|  |  |
| 무안 나상열 가옥 | 무안 박봉기 가옥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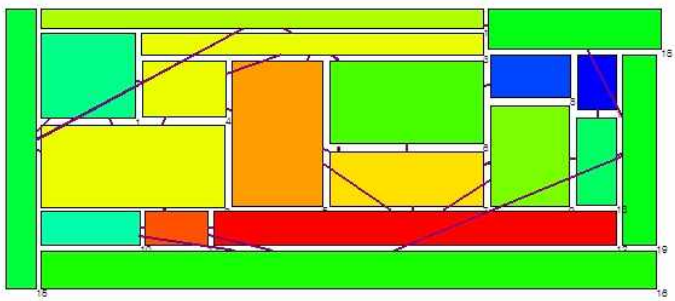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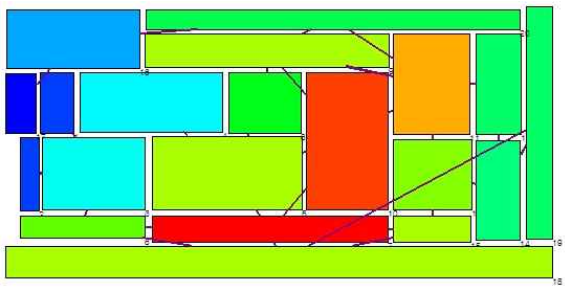
| 조선시대 상류주택 통합도 분석(후기 / 겹집 / **안채**) | |
|---|---|
| 나주 홍기창 가옥 |  |
| 담양 고재선 가옥 |  |
| 무안 나상열 가옥 |  |
| 무안 박봉기 가옥 |  |

조선시대 상류주택 분석대상 도면자료

| 보성 문형식 가옥 | 보성 이용우 가옥 |
| --- | --- |
|  |  |
| 보성 이종선 가옥 | 영광 이규헌 가옥 |
|  |  |

| 조선시대 상류주택 통합도 분석(후기 / 겹집 / 안채) | |
|---|---|
| 보성 문형식 가옥 |  |
| 보성 이용우 가옥 |  |
| 보성 이종선 가옥 |  |
| 영광 이규헌 가옥 |  |

| 조선시대 상류주택 분석대상 도면자료 | |
|---|---|
| 장흥 위성룡 가옥 | 장흥 위성탁 가옥 |
|  |  |

| 조선시대 상류주택 통합도 분석(후기 / 겹집 / **안채**) | |
|---|---|
| 장흥 위성룡 가옥 |  |
| 장흥 위성탁 가옥 |  |

# 현대 대형 판상형 아파트 분석대상 도면자료

## 개포동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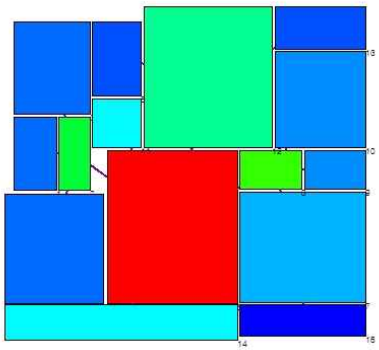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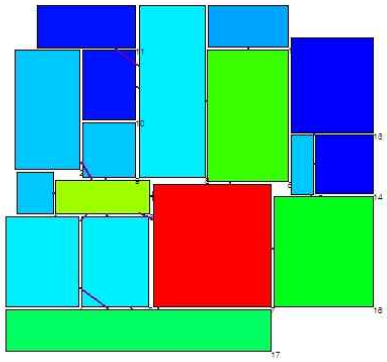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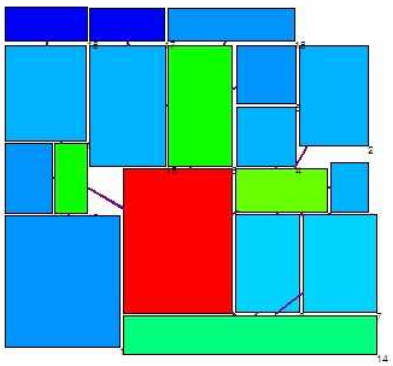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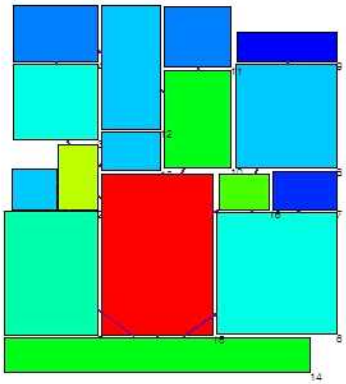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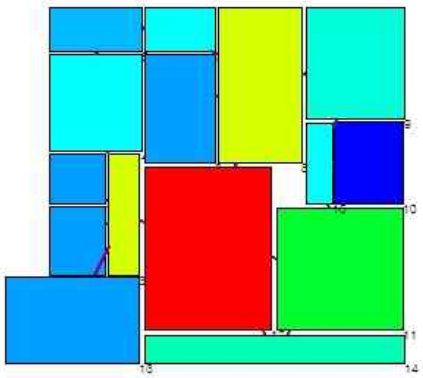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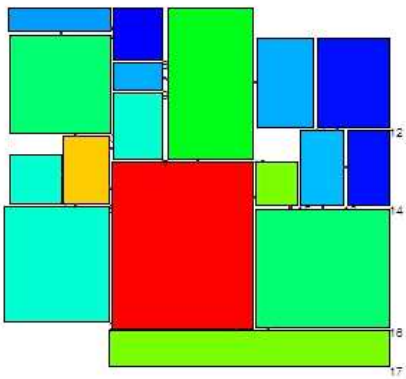
## 개포동 현대

## 대치 선경2차

## 대치동 청실

## 도곡동 삼익

## 도곡 우성

| 현대 대형평면 판상형 아파트 | |
|---|---|
| 개포동 경남 | 개포동 현대 |
|  |  |
| 대치 선경2차 | 대치동 청실 |
|  |  |
| 도곡동 삼익 | 도곡 우성 |
|  |  |

# 현대 대형 판상형 아파트 분석대상 도면자료

## 삼성동 상아3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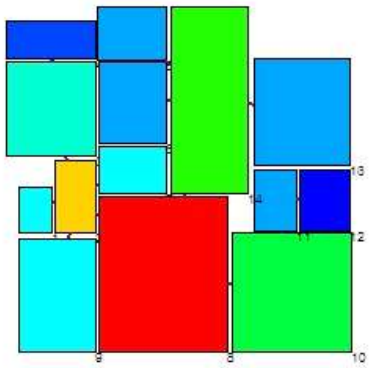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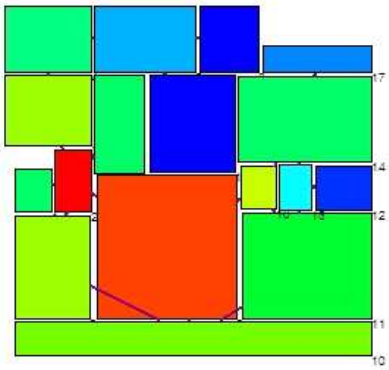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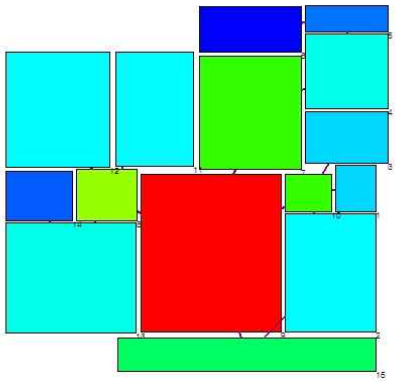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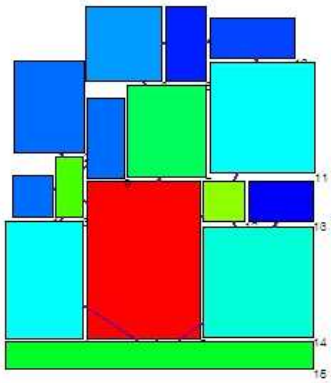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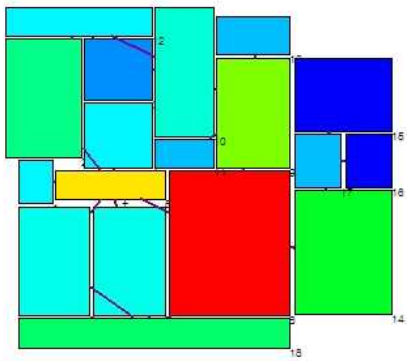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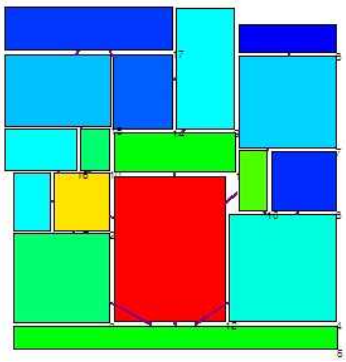
## 삼성동 홍실

## 압구정 구현대 7차

## 압구정동 미성 2차

## 압구정동 성수현대

## 압구정동 한양 2차

| 현대 대형평면 판상형 아파트 | |
|---|---|
| 삼성동 상아3차 | 삼성동 홍실 |
|  |  |
| 압구정 구현대 7차 | 압구정동 미성 2차 |
|  |  |
| 압구정동 성수현대 | 압구정동 한양 2차 |
|  |  |

# 현대 대형 판상형 아파트 분석대상 도면자료

## 압구정동 한양 7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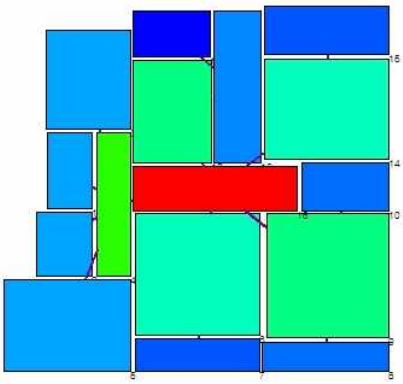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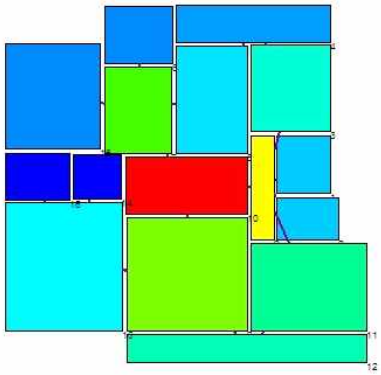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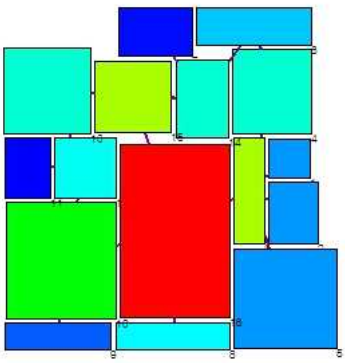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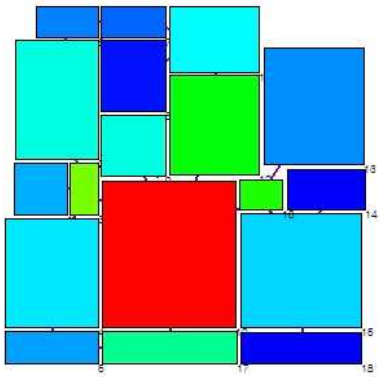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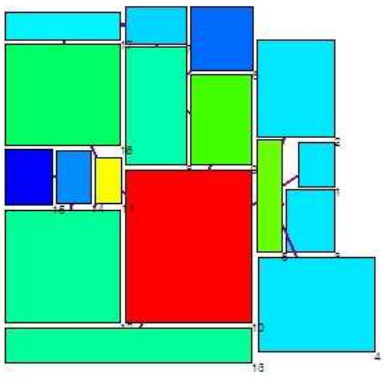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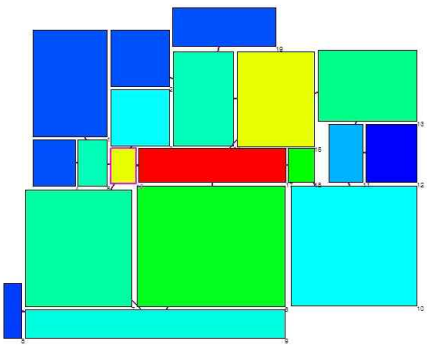
## 압구정동 현대10차

## 역삼동 개나리 4차

## 청담동 삼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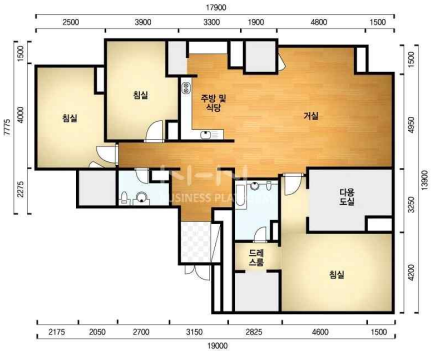
## 청담동 현대1차

## 반포 삼호가든

| 현대 대형평면 판상형 아파트 | |
|---|---|
| 압구정동 한양 7차 | 압구정동 현대10차 |
|  |  |
| 역삼동 개나리 4차 | 청담동 삼익 |
|  |  |
| 청담동 현대1차 | 반포 삼호가든 |
|  |  |

# 현대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분석대상 도면자료

## 신천동 갤러리아 펠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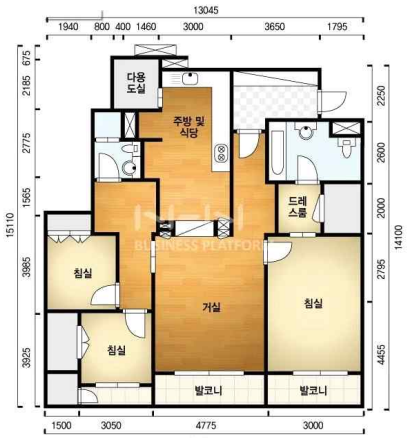



## 여의도 금호 리첸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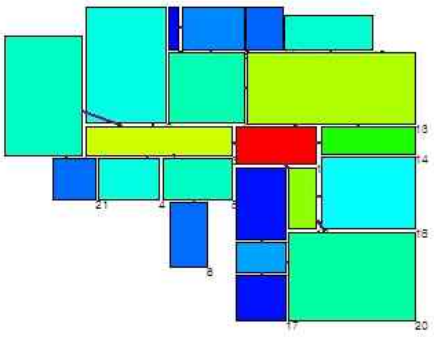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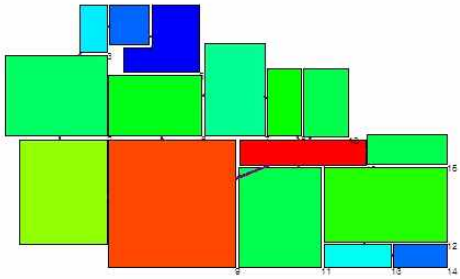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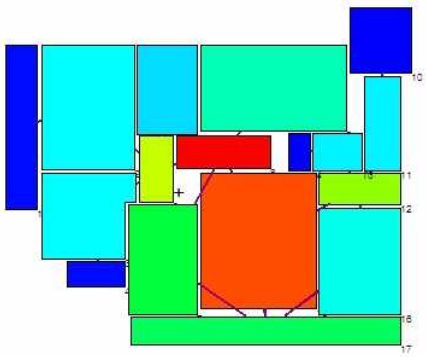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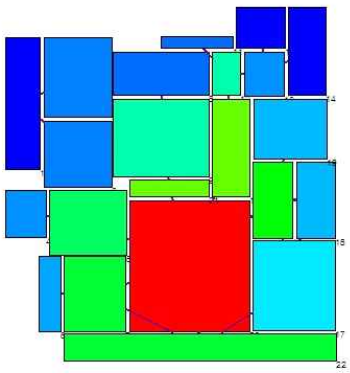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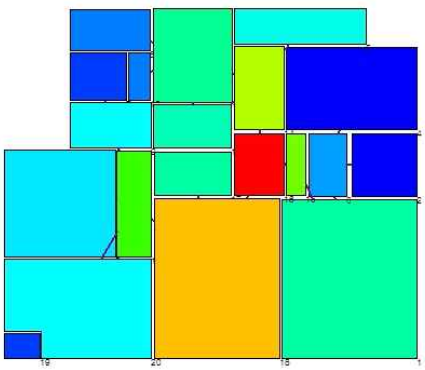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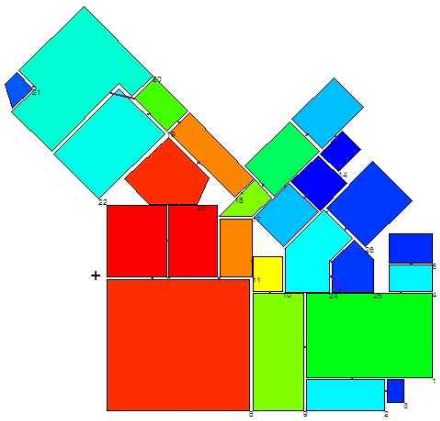
## 대림 아크로빌

## 포스코 더 샵 시티

## 롯데 캐슬 아이비




## 용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 현대 대형평면 주상복합 아파트 | |
|---|---|
| 신천동 갤러리아 펠리스 | 여의도 금호 리첸시아 |
|  |  |
| 대림 아크로빌 | 포스코 더 샵 시티 |
|  |  |
| 롯데 캐슬 아이비 | 용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
|  |  |

# 현대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분석대상 도면자료

## 용산 시티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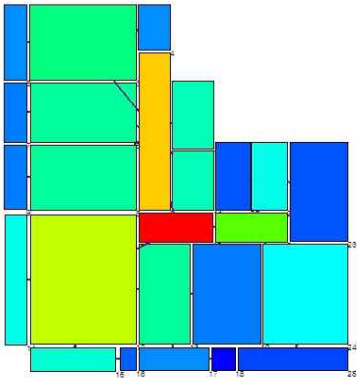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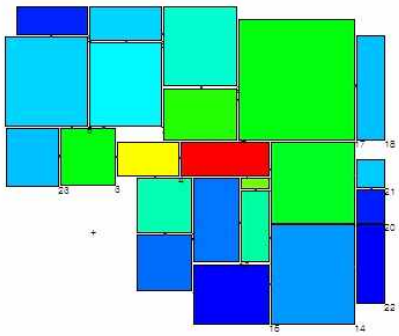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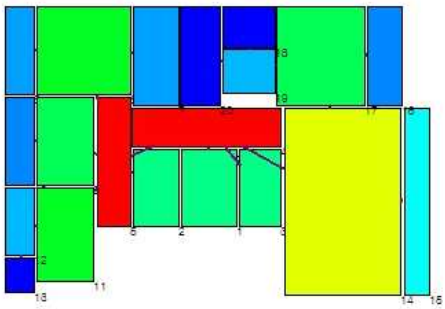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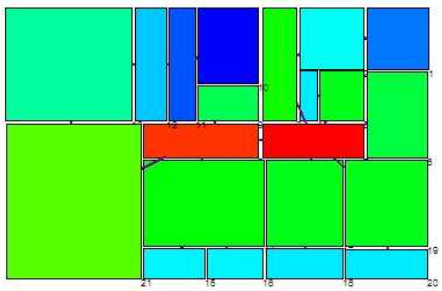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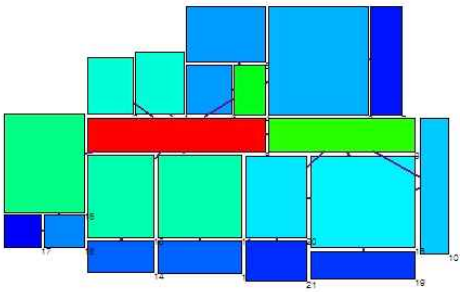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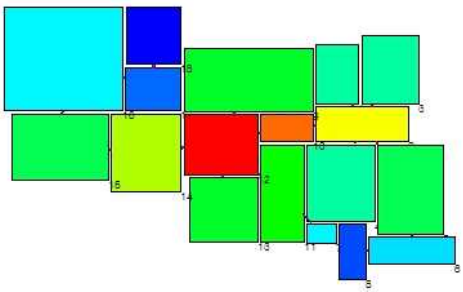
## 삼성동 아이파크

## 도곡동 아카데미 스위트

## 서초 아크로비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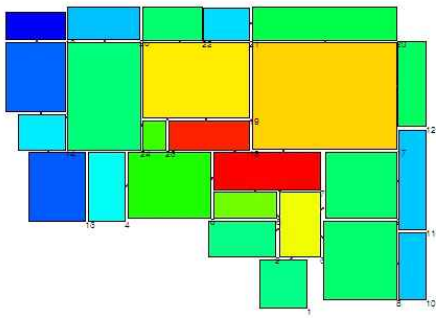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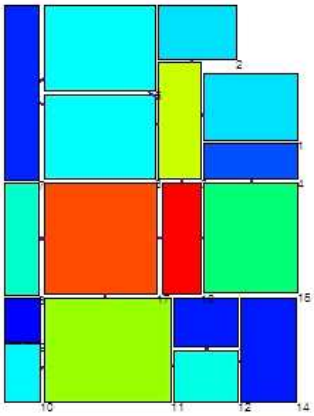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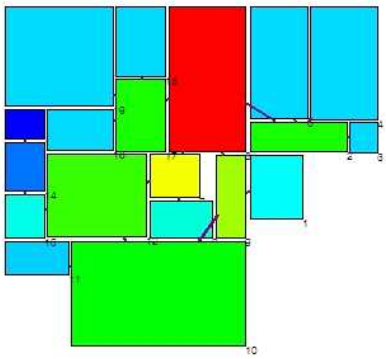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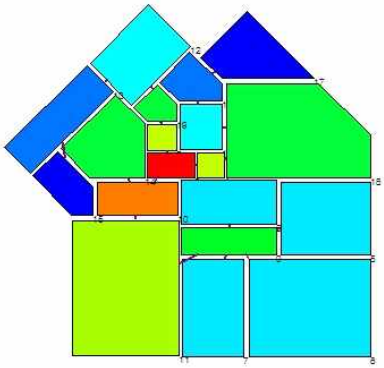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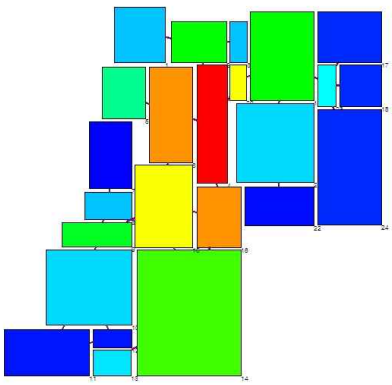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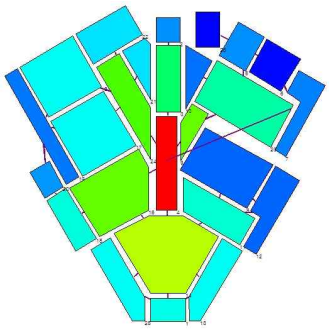
## 여의 자이

## 도곡동 타워펠리스 3차

| 현대 대형평면 주상복합 아파트 | |
|---|---|
| 용산 시티파크 | 삼성동 아이파크 |
|  |  |
| 도곡동 아카데미 스위트 | 서초 아크로비스타 |
|  |  |
| 여의 자이 | 도곡동 타워펠리스 3차 |
|  |  |

현대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분석대상 도면자료

| 대우 트럼프 월드 | 용산 파크타워 |
| --- | --- |
| | |
| 삼성동 포스코 더 샵 | 목동 하이페리온 |
| | |
| 남산 플래티넘 | 동천 레미안 |
| | |

| 현대 대형평면 주상복합 아파트 | |
|---|---|
| 대우 트럼프 월드 | 용산 파크타워 |
|  |  |
| 삼성동 포스코 더 샵 | 목동 하이페리온 |
|  |  |
| 남산 플래티넘 | 동천 레미안 |
|  |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pper-Class Dwellings of the Chosun period and the Contemporary Residential Apartments

Kim, Doyoung
Department of Architecture
Master Course i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Choi, Jaepil

The rapid modernization of society has caused a halt in Korea's architectural traditions it finds itself today in midst of reinvestigating its historic trac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domestic Korean traditional housing of each specific period throughout history by us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ologies. These findings can ultimately help enrich the current architectural culture of Korea.

The study of domestic housing in Korea has been analyzed under different perspectives and scenarios although studies undergone in an architectural light show the tendency to investigate specific regional or periodic characteristics. More so, there is a trend in past studies to focus solely on philosophic, typological or ornamental analysis and also through investigations of cultural anthropology. However,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domestic housing as social bi products that contain the traces of past ways of living should not be investigated out of context. That is, spatial

configuration and its periodic living patterns per say, should not be investigated separately but rather,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systematic analytical method of analys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two phenomena.

The subjects of investigation in this paper that will be compared as means of finding the historic progression of domestic dwellings in Korea will be limited to: the typical upper class residential dwellings during the Joseon period and today's modern, high class multi-complex apartment. Each case study represents a typical upper class residential dwelling of each respective time period and it is obvious that there have been dramatic changes in the outer appearance or the external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e dwellings, which are in accordance to the socio cultural trends of each time period. However, as upper class residential dwellings inevitably exist to this very day, irrespective of the time period,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primarily,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al spatial configuration and its external architectural appearance.

Such changes in the residential dwellings were analyzed in multiple layers through both qualitative research of society, culture and historic context, with quantitative analysis using Space Syntax.

The upper class double layered dwellings of the Joseon period and the corresponding modern case study would be the multi-complex apartments. They represent the dwelling type that is found most commonly in Korea since its debut in 2000. Its success in Korea can be seen to start from the rapid implanting of apartments in the 1960's, with the 1964 Mapo Apartment as the first domestic apartment to be successfully built, and the drastic escalation of apartment construction in the 1980's.

Such developments of the apartment with its foreign Western roots were constructed with little regard to its specific contextual conditions and rather advertised their economic feasibility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This of course lead to inevitable uniformity of the built context and the phenomena where architecture began to lose any sense of cultural diversity in architectural expression that was unique to Korea.

Furthermore, in the changing process from the traditional residential dwelling to the Westernized residential apartment through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t is undeniable that this transferal process was quite drastically accepted and there is objective analysis with case studies which supports this so. The case study uses objective measures to examine the reasons behind how Korea, compared to other countries, came to develop apartments to the point at which it became the most common type of residential dwelling.

An important understanding which arises from this study is that it starts by investigating the changing process of the traditional korean dwelling to its modern equivalent in terms of the influences of living patterns on spatial configuration. A subsequent study which investigates further the links between traditional and modern residential dwelling would be needed.

The apartment plans of this era follow the trend to become larger and more spacious. They start from the initial 3LDK apartment type which dominated the 1980's which then evolve into the 4LDK and 5LDK types as demand for space increases in the high end residential market. However, from the late 1990's, the new multi-complex residential apartments were introduced which showed a different planning method to the former 4LDK and 5LDK single layer type plans as demand for more suitable living configurations rose.

The current multi-complex apartments retain its size and shows a tendency to be comprised of three bedrooms and also additional rooms based on user demands such as utility rooms, powder rooms, dressing rooms, private study and family rooms. These types of plans show the transition from single layer type to the formation where the living room is placed in the center with rooms surrounding it, as an additional layer thus becoming the double layer type.

Moreover, the paper investigates the transition process from single layer plan to double layer planning and its periodic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In the Joseon period, in light of investigations of the double layer dwellings in the Jeon nam region, there are successful cases where there has been an externalization of extra rooms. It is also found how these then become internalized which inevitably influence the life style of its inhabitants.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the introduction of upper class multi-complex 4,5LDK apartments, from single-layers to the double layer form, the introduction of divided space, their context, use and influence on life style the influence of spatial configuration on living pattern and the changing significance of the major rooms was specifically investigated.

This paper finds relevance today by shedding new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configuration and physical architectural expression of space of residential dwellings across different time periods, hence revealing a deeper insight into the traditional genealogy of the Korean residential dwelling needed.

Keywords : Wealthy Rural Houses, Modern Residential Complex, Space Figuration, Space Syntax

Student Number : 2011-20578